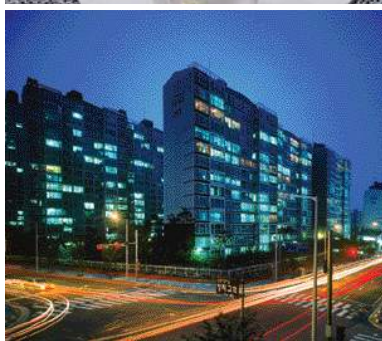


건축사

k o r e a n a r c h i t e c t s



대한건축사협회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6 동아타워빌딩 2층 우편번호 : 137-857
전화 : 02-581-5711-4 팩스 : 02-586-8823 E-mail : gods@ktra.or.kr
http://www.ktra.or.kr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vol.450 / October / 2006

0610

칼럼
한국건축문화대상의 시상제도와 협의의 역할

시론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

특집-2006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수상작
청계천문화관
해송원
슬빛머금은 남쪽마을..
오름-묵방리주택
전라북도도청 및 의회청사
(주)하이마트사옥
노은리수빌 II
동신대학교 기숙사
계획건축물부문 수상작

기획연재
문화의 교류, 한국의 외국건축-09

자재정보

Contents

36



43



47



50



건축사
korean architects

차례 2006 10 450호

칼럼	한국건축문화대상의 시상제도와의 역할	장양순	12
시론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	양해운	14
건축만평		유원재	16
특집	2006 한국건축문화대상		17
	준공건축물부분		
	대 상_ 청계천문화관		36
	해송원		42
	솔빛머금은남쪽마을...		44
	오름: 목방리주택		50
	본 상_ 전라북도청 및 회청사		52
	(주)하이마트사옥		58
	노은리슈빌 II		64
	동신대학교기숙사		70
	계획건축물부분_ 대상, 우수상, 특선		77
현상설계	고양시환경에너지시설신기술대체건설사업(터키)		90
기획연재	수직의 욕망	구영민	93
기고	소나무기행	김석환	101
	건축과 미술의 구름다리	이용환	105
건축마당	협회소식		108
	건축계소식		112
	건축인터넷정보		115
	통계		122
	해외잡지동향		124
	자재정보		127

발행인 이철호
 편찬위원 장양순, 양해운, 유원재, 박호건, 이관직, 이종훈, 신호근
 취재·편집 최락청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6 동아타워빌딩 2층
 우편번호 137-857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인터넷 http://www.kira.or.kr
 인쇄점 정문사문화(주)
 광고문의 홍보편찬팀



53



63



66



70

korean architects

Vol. 450

October 2006

Column

Awarding System of KAA & Role of KIRA	Chang Yang-soon	12
---------------------------------------	-----------------	----

Focus

Our Twisted Self-portrait	Yang Hae-yoon	14
---------------------------	---------------	----

Cartoon

	Yoo Won-jai	16
--	-------------	----

Special Issue Korean Architecture Awards 2006

Prize Works - Professional Part		
---------------------------------	--	--

Grand Prize_	Cheonggyecheon Culture Center	36
--------------	-------------------------------	----

	Dae Yang Shipping Training Center	42
--	-----------------------------------	----

	Nohyung Tranchae	44
--	------------------	----

	Ascend : Mookbangri Residence	50
--	-------------------------------	----

Superior Prize_	Jeonbuk Provincial Office & Conference	52
-----------------	--	----

	Hi-Mart Headquater Building	58
--	-----------------------------	----

	Noeun Richeville II	64
--	---------------------	----

	Dormitory of Dong-Shin University	70
--	-----------------------------------	----

Prize Works - The Submitted Part		77
----------------------------------	--	----

Competition

New technology for Environment & Energy		90
---	--	----

Serial

A desire for Verticality	Koo Young-min	93
--------------------------	---------------	----

Feature

An Account of Travel for Pine treesr	Kim Seok-hwan	101
--------------------------------------	---------------	-----

Connection Bridge between Architecture and Fine Art		
---	--	--

	Lee Yong-hwan	105
--	---------------	-----

Architects' Plaza

Kira News		108
-----------	--	-----

Archi-Net		112
-----------	--	-----

Archi w.w.w		115
-------------	--	-----

Statistics		122
------------	--	-----

Overseas Journal		124
------------------	--	-----

Product Information		127
---------------------	--	-----

Publisher Lee Chul-ho
 Assistant Editor Chang Yang-soon, Yang Hae-yun, Yoo Won-jai, Park Ho-gyun,
 Lee Kwan-jick, Lee Jong-houn, Shin Ho-guen
 Editor Choi Rak-chung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321-6 Seocho-2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857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한국건축문화대상의 시상제도와협회의역할

Awarding System of KAA & Role of KIRA

올해로 15회를맞는한국건축문화대상은국내건축상중에서최고의권위를갖고있다. 이는정부에서건설건축관계를총괄하는건설교통부와건축사법에의한유일한건축사단체인 40년역사의대한건축사협회가주최기관이되기때문이기도하지만, 그 시상규모에있어서도시설별로4개부문으로나누어 각부문 마다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그리고 건설교통부장관상등을수여하기때문이다.

그러나내용을분석해보면이해할수없는시상제도에수상자들의불만은 물론 건축인들은어안이병병해질수밖에없다. 즉한작품으로인하여수상을하게되는데도공동주거부문의경우, 대상은시공자에게대통령상, 설계자와건축주는장관상 그리고동부문의본상은설계자에게총리상, 시공자와건축주는장관상을시상하며, 이외3개부문에대한대상의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설계자에게 대통령상, 시공자및 건축주에겐 장관상을 그리고 동 부문의 본상의 경우, 시공자에게는총리상, 설계자및건축주에겐장관상을시상하고있다.

그간한국건축문화대상의시상제도는많은변천을거듭해왔다.

시상첫해인 94년과 96년에는정부시상이없었으며이후6년간은대상1점을뽑아설계자에게는대통령상을, 시공자와건축주에게는총리상을시상하였다. 2004년에주거부문과비주거부문으로시상부문을나누면서대통령상과총리상이각2점으로 배가되었으며, 시상은 주거부문의 경우 시공자에게 대통령상, 비주거부문은 설계자에게 대통령상이 주어졌으며, 동일한작품에서이를수상하지못한설계자나시공자는총리상을수상하였다. 결과를볼때, 시상부문과이에비례한상의규모는 증가하였으나, 한작품에대하여설계자와시공자건축주가각기다른품격의상을시상하는것은국내외를막론하고전무후무한일인데도변함없이계속되어온것이다.

필자는대한건축사협회를대표하여한국건축문화대상시행위원장으로위촉되어수행하면서이러한제도의불합리성을알게되었으며, 이런일이어떻게지금까지아무런이의없이존속되어왔는지에대하여이해할수가없었다. 결국필자는시행위원회에서이의부당성을지적하고, 공동주최사의하나인서울경제신문사를통하여작년도에이를바로잡았다. 즉 상의 숫자는 2004년과같이대통령상2점, 총리상2점이나이를설계자, 시공자, 건축주가공동수상하게만든것이다. 물론각자수상이면더좋으나정방방침을한번에바꿀수없어, 완벽하지는못하나진일보한선에서금년을기약한것이였다. 그러나금년도에는또다시 2004년이전으로회귀하여한작품에서대통령상과장관상또는총리상과장관상이시상되는결과를가져왔다.

이문제를설득하기위하여, 국제위원회를통하여각국의예를 알아본바정부시상을하는일본의경우, 설계자만시상하거나 또는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에게 공동시상하는제도를택하고있었으며, 베트남에서는설계자와시공자에게만공동시상을하고있었다.

정부는 무생물인 건물에는 시상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발생된 것에는
 한사람만이 시상해야한다는 규정을 들어 공동시상을 불허
 한 작품에 대하여 설계자와 시공자 건축주가 각기 다른 품격의 상을 시상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
 건축은 음악이나 미술, 문학 등 순수예술과 달리 혼자서는 만들어질 수 없어
 협회는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시행위원을 임명할 때 좀 더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진 사람을 임명하고,
 임기도 회장의 임기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에 따라 연장해야
 시행규정의 복수위원직 활용하여 직무인수 제대로 해야

정부시상제도가없이건축단체에서시상하는경우대부분의국가들은일본과같이설계자에게만또는설계자와시공자그리고건축주에게공동시상하는공동시상제를택하고있었다.

한국에서도 민간단체인 한국건축가협회는 ‘ 엄덕문건축상 이나 ‘ 평건축상 의 경우에는 설계자에게 그리고 한국건축가협회상에는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모두에게공동시상을하고있다.

건축은음악이나미술, 문학등순수예술과달리혼자서는만들어질수없는특징이있다. 아무리좋은디자인이만들어져도건폐율, 용적률의충족등향후수익과직결되는문제부터건축비의증가등투자금액은물론진취적이며미래지향적인디자인에대한건축주의 동의와이해가없으면 불가한 일이다. 시공 또한디자인을완벽하게구현할 수있는 기술과 열성그리고치밀함이 없으면 불가한 것이다. 따라서이들이삼위일체가되지않으면안되는것이건축의특성이다.

그러함에도정부의시상관계를관장하는행자부측에서는무생물인건물에는시상할수없으며그로인해발생된것에는한사람만이 시상해야한다는규정을들어불허한다는것이다. 기독교의성삼위일체론까지예시하며설득했으나이들은이해한다면서도, 건축에적용할경우 공예등 타분야에서도 이를 요구할것이므로통제가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였다. 상식적으로공예의 경우, 장롱 하나를 만들 때목공, 도장, 금속장식물등분야가다를것이다. 그러나이것을건축에적용한다면설계의경우전기, 설비, 조명, 조경까지그리고시공의경우에는각 공종별로 시상해달라는 것과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요구하는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비교는언어도단이라생각한다.

‘ 한국건축문화대상시행위원회 에서는이문제에대하여향후각국의시상제도에관한연구용역을발주하여이를근거로정부를설득할예정이라한다. 만시지탄이나환영할만한일이다.

이제이러한일을위해서는협회의역할도중요하다. 본협회가지명한시행위원은관례에따라시행위원장이된다. 그런데이의임기가 회장의임기에맞춰2년이다보니, 첫해는 관습대로따라가고, 다음해는어차피끝나는 해이니그냥마치는것이다. 지금까지많은 선임들이노력을해왔겠지만, 그선임들이이러한시상의모순또한모를리없었다는것도부인할수없을것이다. 따라서협회는앞으로 시행위원을임명할 때 좀 더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진 사람을임명해야할 것이며, 임기도 회장의 임기에구애받지않고 필요에 따라 연장해야한다. 또한주최자는2인이시행위원이될수있는바, 이를활용하여인수인계시는복수로위원직을행하게함으로써, 선임자가완벽하게업무를인수하게하여야할것이다. 이러한조치들만이시상제도를바꿀수있는초석이될것이다. ■

우리들의일그러진자화상

Our Twisted Self-portrait

우리는 우리의 일그러진 모습을 매일 보고도 일그러진 모습으로 보지 않는다. 매일 매일 보니 늘 같은 모습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은 우리의 일그러진 모습을 보고 알게 된다. 우리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로 생각한다. 힘든 일은 하인을 시키고 저분한 일은 하녀를 시키고 옛날 양반 시대로 돌아간 듯하다.

10여년 전, 전세는 살아도 차는 있어야 한다고 너도나도 차를 사더니 이제는 경차를 타면 측은하게 보는 시대다. 용기 없이 탈 수 없는 차가 경차가 되어 버렸다. 너도나도 기름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중형차, 대형차로 바뀌는 추세다. 그런데 이제는 한계단 높아져 대형차는 외제차로 바뀌어 가고 있다. 한번 교통사고라도 나면 몇 천 만원을 물어내야 하고 보험에는 외제차와의 사고 시 부담하는 항목이 따로 있단다.

우리는 진정부자라서 점점 좋은 차를 타는가, 기름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가 기름 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요즘 건축사는 돈을 많이 버는 士자의 부정적 통계에서조차 빠졌다. 고려할 만한 가치가 없어서일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돈 잘 벌 때, 돈 잘 쓸 때에서 조금도 후퇴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 아니면 숨길 수밖에 없는 사회 풍토 때문인지 도모른다.

몇 년 전 만해도 직원 4~5명이면 영세한 편이고 최소 10명은 되어야 했다. 그런데 지금은 잘나갔던 건축사도 2~3명은 괜찮은 편이다.

정부가 우리의 GDP를 16,000불이라니 건축사도 그 수준으로 생각하나 보다. 16,000불로 똑같이 나눠주면 얼마나 좋으랴!

한때 싸구려 건축 설계로 치부되던 다가가, 다세대 설계는 정부의 정책에 밀려 눈 씻고 찾아보기조차 힘들다. 경제성이 없어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마치 누가 저인망으로 치어까지 굶어간 바다 밑처럼.

일이 없는 만큼 설계를 하고자 하는 지원자도 줄어들고 일을 통하여 경험을 가질 기회조차 없으니 우리는 풍전등화(風前燈火)와 같은 시기에 살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을 언제까지 침묵으로만 끌고 가려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인증제를 하여 외국 회사가 몰려오면 큰 사무실도 큰 일이다. 건축사들만 통화가치를 반으로 낮출 수도 없고...

건축사만이라도 현실을 바로 보고 대책을 논의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사회에 휩쓸려 가다 보니 주 5일 제 근무로 한 달에 20일 일하기도 바쁘다. 30일 일해도 살기 힘든 세상에 배움이며 일주일 에 이틀을 쉬어야 한다. 선진국에서조차 주 6일 근무를 자청한다는 기사까지 나오는데 노는 것 싫은 이 없고 잘 먹고 좋은 차 타는 것 싫은 사람 있겠는가.

매일 뛰어오르는 집 값에 오르는 세금, 땅에 떨어진 기초 질서와 공직자들의 끊임 없는 비리는 힘든 건축사들의 마음을 더욱 더 허탈하고 쓸쓸하게 한다.

건축사, 식구는 많고 먹을 것은 없는 안타까운 현실
건축사의 살길 찾기, 협회가 앞장서야
경차는 용기없인 탈 수 없는 차가 되어버린 우리의 현실
현실 정확히 보지 않으면 건축사 단체 부도 위기 올수도

언제우리는경차를타도, 힘들고더러운일을마다않는가슴이행복한사람이될는지...

‘70년대말네덜란드가인구천만명에자전거가 1,400만대였던시절나는잠시그곳에서건전한인간과건전한사회와건전한국가
를보았다.

유럽경제가아주아주힘들었던때그들은검소하고절제된생활습관으로위기를잘넘기는천국의모습을보여주었다.

북해유전이있는산유국인데도국민차는604cc다. 아우토반을국민차를타고달린다.

자전거도로, 자전거 신호, 자전거의생활화는생활에서국민을건강하게하고검소한습관을가지게한다.

우리는이제가식의옷을벗고참모습을보여야한다. 참모습을보고함께노력하여이 어려움을견딜수있도록국가를비롯하여모
든단체의지도자가모범을보여야할때이다.

건축사의아픔을아는이얼마나될까. 현실을알면일을수주못할까봐위장술만늘어간다.

우리는모든기준을하향조정할때가되었다. 자체적으로썸썸이를줄이고부담을줄여야한다. 있는자만살고없는자가죽은다음
에는있는자가죽을차레이기때문이다. 모두가함께살수있는지혜로운사고가필요할때다.

건축사가몇명씩합종연횡(合從連衡)하여합치는모습은살아남기위한몸부림이지만조금더시간이흐르면건축사의수가직원의
수보다많을지도모른다.

과부가과부사정을알고홀아비가홀아비사정을안다고했다. 건축관련모든협회지도자들은회비조차못내는회원들의사정을알
아야하며어려워도회원들이협회를떠나지않게힘이될수있도록체질을바꾸고지출도과감히줄여회원의부담을덜어끝까지회
원과고락을함께하는협회가되어야할것이다. ㉡

2006 한국건축문화대상

Korean Architecture Awards 2006



이시대건축문화의표상을선정하는2006한국건축문화대상의영예의수상작이선정됐다.

이번대상은사회공공부문, 민간부문, 공동주거부문, 일반주거부문4개부문으로구분하여수상하는데, 사회공공부문대상에는「청계천문화관(설계자:김정철/주)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자:현대건설(주), 건축주:서울특별시)」가, 민간부문에 「해송원(설계자:이인호/주)이래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자:주식회사청하건설, 건축주:대양상선(주)」가, 공동주거부문에 「솔빛머금은남쪽마을... (설계자:정영균/주)희림 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자:케이티건설(주), 건축주:대한주택공사)」가, 일반주거부문에 「오름-목방리주택(설계자:임재용/건축사사무소O.C.A, 시공자:우성희, 건축주:우성희)」가선정되었다.

이들사회공공부문, 민간부문, 일반주거부문설계자와공동주거부문시공자에게는영예의대통령상을, 사회공공부문, 민간부문, 일반주거부문의시공자, 건축주와공동주거부문설계자와건축주에게는건설교통부장관상을시상한다. 또한본상도4개부문으로나누어수상하는데, 사회공공부문에전라북도도청및의회청사와민간부문에(주)하이마트사옥, 공동주거부문에노은리슈빌Ⅱ, 일반주거부문에동신대학교기숙사가선정되었으며, 이들사회공공부문, 민간부문, 일반주거부문시공자와공동주거부문설계자에게는국무총리상을, 사회공공부문, 민간부문, 일반주거부문의설계자와건축주, 공동주거부문시공자와건축주에게는건설교통부장관상을시상한다. 또한무안백련지수상유리온실을포함한15점은우수상으로서모두대한건축사협회장, (주)서울경제신문사장공동명의로상을각각시상했다.

한편일반및신인·학생들을대상으로한계획건축물부문에서는서윤승(홍익대일반대학원건축학과)씨와최미경(부경대건축학부)씨가공동출품한「Mixed - Intersection」에대상을차지하여건설교통부장관상을수상하는것을비롯해우수상5작품, 특선6작품, 입선22작품등모두34개작품이입상했다.

아울러 올해의건축문화인상 에서김중성(주.서울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건축사가올해의건축문화인상우수상자로선정되어건설교통부장관상을수상했으며, 공로상에는정정치(건축사사무소합정건축대표, 前한국건축문화대상시행위원회위원장) 건축사와윤종열(법률신문사편집국장, 前서울경제신문부동산부장) 씨가선정되어각각트로피를수상했다.

아울러시상식은오는10월17일건설회관대회의실에서개최됐으며, 수상작전시회는건설회관로비2층에서10월17일부터10월21일까지5일간전시된다.

준공부문 | 대상



청계천 문화관(사회 공공부문)/김정철



해송원(민간부문)/이인호



솔빛 머금은 남쪽마을...(공동주거부문)/정영균



오름-목방리 주택(일반주거부문)/임재용

상의 제정 배경 및 목적

제정배경

- 한국건축문화대상은「건축은문화」라는대명제아래 ‘건축의대중화 틀추구함으로써우수한건축물이피어날수있는여건을조성하고, 우리건축의정통성과현대성이구현된역작을발굴, 이시대건축문화의표상으로삼아건축문화창달에기여함을기본취지로지난92년건설부와(주)서울경제신문이공동제정함.
- 제3회(94) 행사부터는지난 1971년부터대한건축사협회가단독개최해오던「한국건축전」과통합을이뤄민 · 관 · 언론이공동시행주체가되는건축분야의대표적전시 · 시상행사로발전.

목적

- 우리고유의건축문화창달및패적인생활환경조성
- 우리건축물의인간중시, 환경과의조화구현
- 건축계의유능한후진발굴및창작의욕고취

올해로 15회째를맞는이행사는지난 96년제5회때부터본상이상수상자중건축문화발전에기여한공로자에대해대통령상등정부포상을수여함으로써명실공히국내건축상제도중가장권위있는행사로발돋움함.

역대 주요 수상작(준공건축물부문)

	대 상	본 상	우수상
제1회 (1992년)	한샘시화공장	삼성종합연수원창조관, 호텔현대 분당시범아파트단지, 현대아파트, 연남동주택	-
제2회 (1993년)	헌법재판소	국립부여박물관, 이화여대공관 학동수출당, 부산서대신동주택	-
제3회 (1994년)	민정학원	아주대병원, 예담교회 SBS 등촌동스튜디오, 포이탈빌라	엑스포아파트 전쟁기념관
제4회 (1995년)	포스코센터	경희분당차병원, 쌍용투자증권사옥 홍천휴게소팍파스, 삼성국제경영연구소	수원선경도서관, 토월대동아파트 삼성동현대빌라
제5회 (1996년)	대법원청사	분당주공아파트, 태평양파크빌라트 신내지구9단지아파트, 수원야외음악당 진로하우스공장, 용문청소년수련원	-
제6회 (1997년)	LG화학 기술연구소	삼청동주택, 분당집합주거 웨스턴조선호텔빌라, 코오롱타워 블루힐백화점, 국민생명미래연구소	-
제7회 (1998년)	울산현대예술관	고려포리머사옥, 김옥길기념관, 오크밸리리조트 씨네플러스, 이태원다가구주택, 백남학술정보관	-
제8회 (1999년)	(해당작없음)	양산컨트리클럽하우스, 두산타워, 구산타워 국민의료보험공단일산병원, 국민대학교국제교육관 부산당감지구주공아파트, 임거당	-
제9회 (2000년)	교원그룹연수원 - 게스트하우스	성동구노인종합복지관, 웰컴시티, 동아미디어센터 미제루, 영동군보건소, 서미갤러리	-
제10회 (2001년)	의재미술관	가나안교회, 천주교인보성체수도회전주성당 용인삼성생명노블카운티, 대구달성명곡주공아파트 은평구립도서관, 서울예술대학안산캠퍼스	-
제11회 (2002년)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	수원시연화장, 코리아디자인센터 부산아시아드경기대회선수 · 기자촌아파트 대한주택공사기흥상갈금화마을, 원당성당, 중부대학교건원관	-

	대 상	본 상	우수상
제12회 (2003년)	시몬느 사옥	분당C-11-4-12, 광명철산지구주공아파트 춘천두미르군인아파트, 동부금융센터 매스메세이지, 포스코역사관	-
제13회 (2004년)	광주광역시청사, 아이파크삼성동	KT 여의도빌딩, 한성대학교도서관 현대해상화재보험광화문사옥, 연하당 용인신갈새천년주거단지, 광장1차현대홈타운	-
제14회 (2005년)	달성군청사, 타워팰리스III	대치동부센트레빌 배재대학교예술관	A House With Three Courts 수입777, 보현빌딩, 옥계휴게소

역대 응모작 및 수상작 수

() 숫자는 입상자수

부문	년도	1회(92)	2회(93)	3회(94)	4회(95)	5회(96)	6회(97)
준공건축물부문	99점(18)	40점(18)	81점(28)	76점(24)	75점(33)	63점(22)	
계획건축물부문	신인부문	-	-	15점(10)	16점(9)	23점(45)	304점(36)
	학생부문	-	-	127점(29)	179점(38)		

부문	년도	7회(98)	8회(99)	9회(00)	10회(01)	11회(02)	12회(03)	13회(04)	14회(05)
준공건축물부문		72점(22)	52점(25)	62점(26)	78점(24)	67(20)	90(21)	89(22)	88(23)
계획건축물부문		322점(30)	-	26점(13)	123점(33)	128(25)	263(28)	252(28)	142(31)

준공건축물부문

행사일정

- 작품공모공고: 5.1 ~ 7.13
- 접수: 7.13(목) ~ 7.14(금) 09:00~18:00 / 장소: 대한건축사협회회의실
- 심사: 7.28(1차사전심사)
8.7 ~ 8.9, 8.16 (준공건축물부문2차현장심사- 지방)
8.12, 8.15 (준공건축물부문2차현장심사- 수도권)
8.21 (준공건축물부문최종심사)
- 시상식: 10.17 15:00 / 장소: 건설회관대회의실
- 수상작전시: 10.17~10.21 / 장소: 건설회관2층로비

주요 공모요강

가. 응모작품 및 자격

- 응모작품: 2004년6월12일부터 2006년6월 12일사이예국내에준공완료된건축물로한국건축문화대상에기출품한사실이없는작품. 단, 리모델링건축물은증축·개축·대수선에한하여응모할수있으며, 임시사용승인된건축물은응모불가함.
- 응모자격: 출품건축물의건축물대장에명시되어있는대표설계자, 시공자, 건축주각1인
※ 2006년도정부포상업무지침에따라대표설계자·시공자·건축주각1인에한해서상

나. 주요 출품규정

- 작품설명서, 건축물사진, 설계도면등이수록된B4 규격의사진첩2부
- 건축물대장1부

준공부문 | 본상



전라북도 도청 및 의회청사(사회공공부문)/우양근



(주)하이마트 사옥(민간부문)/이관표



노은 리슈빌III(공동주거부문)/이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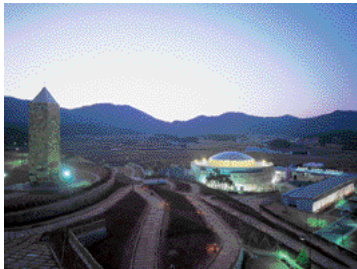


동신대학교 기숙사(일반주거부문)/박홍근

준공부문 | 우수상



무안백련지 수상유리온실/박동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한현호



서대문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한형우



철원종합문화 복지센터/정현화



천안시청사/이영희

- 설계자 · 시공자 · 건축주소개서1부/ 외국사참여작품의경우관련사실을필히기재하여야함.
- 1차사전접심사를통과한작품에한해2차현장심사를실시하며패널제출일은추후별도통보

심사

가. 심사방법

- 1차심사(사진접심사) : 현장심사대상작선정
- 2차심사(현장심사) : 현장대상작심사
- 최종심사: 입상작(대상 · 본상 · 우수상) 선정

나. 심사위원

- 이상준/ 연세대학교교수(심사위원장)
- 박호건/ (주)건축사사무소당건축대표
- 서치호/ 건국대학교교수
- 유원재/ 건축사사무소다건축대표
- 이종정/ 에스와이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 장양순/ 대한건축사협회이사
- 천태삼/ 대한건설협회기술환경본부장
- 최재필/ 서울대학교교수

시상내용

- 대표설계자, 시공자, 건축주각1인에한해시상 -

상 명		시상내용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대 상 (4점)	사회·공공부문	대통령상	건설교통부장관상	건설교통부장관상	
	민간부문	대통령상	건설교통부장관상		
	공동주거부문	건설교통부장관상	대통령상		
	일반주거부문	대통령상	건설교통부장관상		
본 상 (4점)	사회·공공부문	건설교통부장관상	국무총리상	건설교통부장관상	
	민간부문	건설교통부장관상	국무총리상		
	공동주거부문	국무총리상	건설교통부장관상		
	일반주거부문	건설교통부장관상	국무총리상		
우수상(다수)			대한건축사협회장및서울경제신문사장공동명의시상		

※ 수상자 트로피(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및 건축물부착용 명판(건축주) 수여

※ 대상 작품별 대표 설계자, 시공자에 한해 해외건축탐방 특전부여

수상자 명단(작품명/설계자/시공자/건축주순)

■大賞

- 사회공공부문(설계자-대통령상, 시공자 · 건축주-건설교통부장관상)
청계천문화관/ 김정철(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 현대건설(주) / 서울특별시
- 민간부문(설계자-대통령상, 시공자 · 건축주-건설교통부장관상)
해송원/ 이인호(주.미래종합건축사사무소) / 주식회사청하건설/ 대양상선(주)
- 공동주거부문(시공자-대통령상, 설계자 · 건축주-건설교통부장관상)
솔빛머금은남쪽마을... / 정영균(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 케이티건설(주) / 대한주택공사
- 일반주거부문(설계자-대통령상, 시공자 · 건축주-건설교통부장관상)
오름-묵방리주택/ 임재용(건축사사무소O.C.A) / 우성희/ 우성희
※작품명오름-묵방리주택은시공자와건축주가동일인이므로건축주만시상

■本賞

- 사회공공부문(설계자 · 건축주-건설교통부장관상, 시공자-국무총리상)
전라북도도청및의회청사/ 우양근(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 / 금호산업(주) / 전라북도
- 민간부문(설계자 · 건축주-건설교통부장관상, 시공자-국무총리상)
(주)하이마트사옥/ 이관표(주.엠앤디종합건축사사무소) / 지에스건설(주) / (주)하이마트
- 공동주거부문(설계자-국무총리상, 시공자 · 건축주-건설교통부장관상)
노은리슈빌Ⅱ/ 이의구(주.종합건축사사무소창건축) / 계룡건설산업(주) / 계룡건설산업(주)
※작품명노은리슈빌Ⅱ는시공자와건축주가동일인이므로시공자만시상
- 일반주거부문(설계자 · 건축주-건설교통부장관상, 시공자-국무총리상)
동신대학교기숙사/ 박홍근(주.포유건축사사무소) / 송촌종합건설(주) / 학교법인해인학원

■優秀賞(대한건축사협회장, 주.서울경제신문사장공동명의시상)

- 무안백련지수상유리온실/ 박동준(주.그룹포에이건축사사무소) / 남해종합개발/ 무안군
 -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한현희(GN종합건축사사무소.주) / 성일건설(주) / 김해시
 - 서대문구립이진아기놀이도서관/ 한형우(건축사사무소스페이스연) / 주식회사수산건설/ 서대문구
 -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정현화(주.구간건축건축사사무소) / (주)한라주택/ 철원군
 - 천안시청사/ 이영희(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 신동아건설(주) / 천안시
 - 군산자유무역지역시설공사/ 지순(주.간삼파트너스종합건축사사무소) / (주)국제종합토건/ 산업자원부
 - 용인시상현동지예슬유치원/ 이규상(주.보이드아키텍트건축사사무소) / (주)이안알앤씨/ 김명철
 - (주)피플웍스/ 안명제(주.전인건축사사무소) / 공간종합건설(주) / 주식회사피플웍스
 - 포도원교회/ 이용우(칸.도시건축사사무소) / 대한예수교장로회포도원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포도원교회
 - 예화랑/ 신창훈(운생동건축사사무소) / 구진산업개발주식회사/ 이숙영
 - 더샵센텀파크/ 이성인(주.건축사사무소앙코르) / (주)포스코건설/ (주)백송종합건설
 - 더미켄란/ 이민관(주.종합건축사사무소에이그룹) / (주)대교디앤에스/ 롯데빌리지재건축조합
 - 구기동주택/ 김영섭(주.김영섭+건축문화건축사사무소) / 한수영/ 한수영
 - 토함정사/ 정현화(주.구간건축건축사사무소) / 이강길/ 이강길
 - 첨경현/ 송광섭(건축사사무소환아키텍) / 박인중/ 박인중
- ※작품명포도원교회, 구기동주택, 토함정사, 첨경현은시공자와건축주가동일인이므로건축주만시상

심사총평

금년건축문화대상심사에참여하면서인상에남는여러가지가있다. 유난히무더웠던8월날씨, 전국에흩어져있는22개의건물들을둘러보느라행한모처럼만에남한일주, 그런가운데서새삼스레 발견한우리산하(山河)의아름다움등. 그러나역시좋은건축물을경험한것이가장큰즐거움이었고, 이와관련된두가지소감을피력하고자한다.

첫째, 설계자에대한건축주의신뢰(信賴)가좋은건축물을만들어낸다는사실의재확인이다. 흔히들 공사비를많이들이면건물의품질이좋아진다고하지만, 이번에둘러본훌륭한건축물중에는공사비를많이들이지않은주택, 공장, 교회등이있었다. 경제적이면서도종계건물을짓는것은누구나 바라는바이나, 종계짓는데에는건축주의방식과뜻에따라야함아보통이다. 그러나전문가로서의 권위를인정하고건축사에게설계와주요자재선택등을전폭적으로맡긴건물들은공사비의많고 적음에관계없이두드러져보였다. 남해해송원, 대구포도원교회, 구미피플웍스공장등의좋은예를들수있는데, 이설계자들은건축주의신뢰에대응하여좋은건물을만들어내는데열과성을다함으로써보답하였다고생각되었다.

둘째는, 이른바지방건축사들의약진이다. 오랫동안서울에근거를둔설계자들이전국의주요건물설계를도맡아해왔고, 지방건축사들의입지가상대적으로약했으나, 이들에의한동신대학교기숙사, 백련지온실등은뒤지지않은설계수준을보여주었다고생각한다. 이역시자신들을인정해주는



군산자유무역지역 시설공사/지 순



용인시 상현동 지예슬 유치원/이규상



주식회사 피플웍스/안명제



포도원 교회/이용우

준공부문 | 우수상



예화랑/신창훈



더샵 센텀파크/이성인



더 미켈란/이민관



구기동 주택/김영섭

건축주가있었기에, 각고의노력을기울인결과라고생각된다. 바라기는, 이들선도적사례를쫓는많은건물들이지어져서이를바탕으로한층높아진건축사의위상과이에따른우리건축문화의한계조높은창달이구현되기를희망한다.

셋째, 공동주택부문의응모작이눈에띄게적었다는것이다. 사전홍보가덜되어서인지, 주거부분과비주거부분으로만나뉘었던예년과달리금년에는주거부분도공동주택부분, 일반주거부분각각대상과본상이주어지는데도출품작수가많지않아야쉬웠다. 국토가하루가다르게공동주택들로채워져가고있는데도말이다.

반면민간부문일반주거와사회공공부문에는출품작수가많아선정과정이쉽지않았다. 수차례속의(孰議)를거쳐최종대상및본상작품들을선정했지만, 아쉽게우수상에머문작품들도있었다.

아래이어지는각건물별심사평은사회공공부문은박호균, 민간부문유원재, 일반주거부문최재필, 공공주거부문은이종연위원등이써주셨는데, 좋은면들중심의평도있고, 아쉬웠던점중심의이야기도있으나, 분량관계상일부발췌하였으되대부분그대로옮겼다.

어려운여건가운데서도꼭꼭이좋은건축을만들어내는데애쓰고있는건축인들에게격려를보낸다.

• **청계천 문화관** 청계천문화관의경우청계천과의관계설정이중요할것임에도이미정해진청계천변이라는장소, 외관에물을표현한비닐형의디테일을가진유리입면등을제외하면기능적연계나시각적소통등에대한고려에아쉬움에있다. 미관 Set - Back의해건물이뒤로물러선것도한가지이유는되겠지만청계천을내려다볼수도있는내부통로나옥상데크에서조차사용재료나건축디테일에의해시선이차단되어있으며건물서쪽끝비상계단상부옥상의전망데크도청계천에서가장먼곳에배치되어있다. 물흐르듯내려가며이어지는전시공간을이루는경사로는반층레벨을건물전체의 1/3정도의길이로연결해주는데건물폭을약간줄이며건물길이를늘이든지, 경사로를양측상설전시장쪽으로길게늘이는방법으로좀더완만하게했으면하는아쉬움이있다. 건물폭을줄이고길이를늘여부지서쪽의야외전시장상부로건물이뺏어나올경우야외전시장의성격도더욱전시공간다워지고폭을줄으면후면의골목길도좋아질수있지않았을까생각해본다.

• **해송원** 남해바닷가절벽에해송들로둘러진부지에들어선선박회사의연구원으로, 씨스케이프와건축물이상생의효과를다이내믹하게나타낸작품이다. 자연은잘선택된공간언어로정리될때더욱대조적으로부각되고연출되어짐을잘보여준예가되겠다. 대지의고저차를잘이용하여전면도로에서바다를가로막는저항감을줄이고자수평선을강조하였고바다로경사지붕의형상을잘이용해진입로에서본조용한모습은안마당에들어서면바다를향해열린식당및각방들로전개된다. 건축주의고향에연수시설을건축하여기업의연수시설로이용하며, 또한지역사회의문화시설로도개방하려는애향정신은이프로젝트의의미를더욱빛나게할것이다.

• **솔빛 머금은 남쪽마을..** 제주시에서남서쪽으로 5km지점의마두산 · 곰솔 · 군락등수려한경관에한라산과바다가한눈에조망되는쾌적한주거환경을갖추고있다.주거단지의 개발 컨셉이기도한생태환경, 주민커뮤니티, 지역문화에대하여단지특성이잘나타난다. 남쪽의한라산과북측의바다조망이가능한주거동배치가자연과함께어우러지면서도제주전통의남측진입을살려이상적인향과함께우수한조망까지확보되었다. 20평형의소형평형아파트단지이면서도미래의생활패턴과제주도의지역특성을고려한공간계획을시도하므로단독주택에서익숙한동선이아파트에서도낯설지않도록배려한점, 지역문화와주민커뮤니티를시도한테마보행로 주변에단정한정남, 돌담, 돌하르방등곳곳에재현되어어지다가녹지보전구역을주민의올래마당(중앙광장)으로유도하므로테마Network가완성되어지속가능한환경을만들어냈다. 이단지의경우, 민간공동주택의주도적시장에서주택공사의공공분양도충분한경쟁력을갖추어주민의높은관심과재산적가치도높다는사례를보여주며, 솔빛머금은남쪽마을뜨란채의설계자와주택공사의노력의흔적이엿보인우수한작품이다.

• **오름_목방리주택** 오름이라는주제를가진이집은이번한국건축문화대상주거부분에입상한집 중에서가장열악한땅에지어진집이다. 충청북도청원군목방리산자락북사면에위치한땅은고저차가9미터를넘는경사를가지고있다. 작가는이땅의높낮이를따라자연스럽게올라가는집을안치고자한다. ‘ㄱ’자형태의집이땅의흐름을따라경사를오른다. 급한경사를완화하기위해서일단가장낮은부분은필로티를두어주차-현관-부엌-거실-아이들방-서재와부부침실로반층씩차이를두어이어지도록하였다. 자칫단조로워질수있는이러한일자형동선을극복하기위해부엌과거실사이에는작은포켓정원을두었고, 아이들방과서재사이에는데크를두었다. 안마당으로향하는다른몇개의데크나발코니를통해남쪽의자연은집안으로흘러들어오고, ‘ㄱ’자형태로인해부엌/거실채와침실채는시각적으로연결이된다. 이러한배치는안마당을감싸고놓이는우리네전통가옥의배치와일맥상통하는부분이다. 작가는‘오름’이라는주제와남쪽안마당을둘러싼전통적인배치그리고곳곳에발견되는작은공간들을통해서북사면경사지의약점을훌륭히극복하였다. 땅의부족함을집으로보충해주는작업. 이것이야말로건축사가가질수있는최대의보람이다. 이런점에서이집의건축사는행복한건축사이다. 이집에사는가족들도행복한가정을이루게되길바란다.

• **전라북도 도청 및 의회청사** 전북도청사는동서로과도하게긴부지형태때문에지금처럼여러기능을부지중앙에일자로배치할경우가로변을따라긴외부공간을가질수밖에없었을것이다. 동서방향으로긴저층부Mass 앞쪽에독립적으로배치된강당동에의해나뉘진, 강당동서측의썩큰야외집회장을포함한외부공간은강당동과지하의후생복지기능과어울려시민들의이용을충분히고려한느낌이지만강당동동측의나머지외부공간은단순히창사전면의전경으로서의미만가지고있는듯하다. 청사의1층의공용부분에는과도하게넓은면적이할애되어있는것같은데효과적인아트리움공간이되지못할바에는어느정도옥외공간으로계획하는것이좋았을수도있을것이다. 실내조경을포함하고있는1층홀아트리움의일정부분이중정으로계획되었다면2, 3, 4층에서의공용면적도줄이고북측에배치된너무깊은실들의실내조건도개선할수있을것이다. 내부공간과외부공간의중간영역의성격으로중정이나썩큰가든이주위의기능들과조화를이루며배치되었다면하는아쉬움이있다. 전북도청으로서의상징적미부여를위해고려된연결통로(대나무), 원추형Mass(익산미륵사지석탑), 출입구개노피(일주문), 커튼월(전통창살문), 벽천(물고기), 오작교(잠자리) 등은거의그의미를느낄수도없으며특히, 건물내에끼워진원추형Mass는아트리움공간에나쁜영향을미치고있는듯이보인다.

• **(주)하이마트 사옥** 대치동은마아파트4거리남동코너에들어선업무시설로서강남가로변의한조직을성실히채워낸어반콘텍스트를보여준작품이다. 지하철연결통로를건물내부로끌어들여공개공지를보행자에게제공함과동시에지하1층의판매시설의접근성을높인상생의효과가돋보인다. 1층에아트리움을두어로비를여윌고풍성하게연출하였고, 그상층부의거대한오프닝을통해업무시설의이용자들에게공간소유의자부심과즐거움을제공하였다. 기준층은각각의개방감을위한도로에나란히사무실을배치하였고특히서쪽의파사드는일사를조정하기위한레이어를통해단조롭기쉬운오피스빌딩의스킨을변화있게하였다. 사옥으로서특별히마련된최상층임원들의공간은옥상정원과의어우러짐으로펜트하우스의장점이잘연출되었다.

• **노은 리슈빌 II** 대덕연구단지, 충남대학등을이웃하고행정중심복합도시의지리적관문으로교통·교육·연구중심의배후도시로기반시설을잘갖추고있는노은택지개발지구에위치하고있다. 노은리슈빌 II는지형이용과방향에대한고려가특히뛰어난배치형태를하고있다. 전세대남향의판상형으로Green Context와계단형주동배치는Sky Line을이루면서열린공간이확보되었다. 단지를끼고흐르는반석천시선을위해저층부필로티설계반영은개방과편안함을살리고통풍로역할을해주어기온상승과고층아파트로인한풍속의감소를해결할수있는방안이되었고조경공간도테마화되어주민커뮤니티광장이곳곳에설치되므로자연스럽게순환산책로로연결되어단지를효과적으로이용하면서외부공간을증대시켜환경친화적인컨셉의도가잘나타



토함 정사/정현화



첨경현/송광섭

계획부문 |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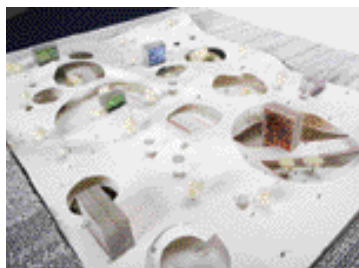
Mixed - Intersection서윤승, 최미경

계획부문 | 우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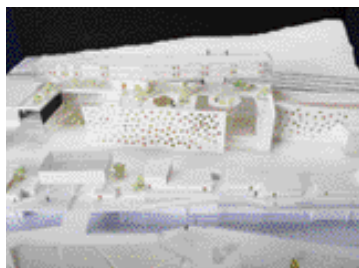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Rural convention center 계획안/오수희, 김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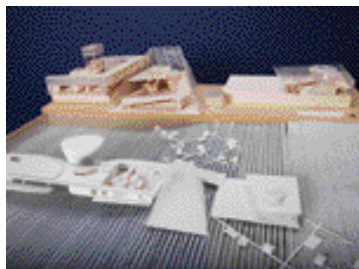
계획부문 | 우수상



인공적 지형의 형성을 통한 도농간 매개체/
최지호, 김현술, 문영목



재생-잃어버린 광촌의 기억/서지명, 박선상,
임유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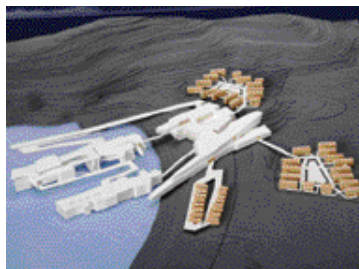


관계성의 전환/안영창, 유경재, 최승호



겹쳐진 영역내 체험 생활가로 조성/
이희정, 최재혁, 강동호

계획부문 | 특선



어촌을 살리는 화의 되먹임 고리 계획안/
황경진, 유보미, 최혜림

나있다. 과거의편리한주거의관심에서진화된다양한변화와특징을여러곳에서잘나타내주고 있었다. 현관의전실, 통풍형거실, 1층세대전용정원, 복층등채광환기가양호한4베이통선이깔끔하게정리된편의성이돋보여수요자중심의변화에발빠르게적용한설계사례라고보인다.

• **동신대학교 기숙사** 일반주거부문에대학교기숙사라는흔치않은작품이제출되었다. 아주작고치밀한구성을가지는단독주택에비해, 규모가크고많은익명의사람들이똑같이생긴작은방에서집단생활을할수있게끔설계된기숙사는자칫심사과정에서큰관심을끌지못할수도있다. 그러나이작품은기숙사가가지는본질적문제와주어진좁은땅에대학교에서하는만큼의큰매스를우겨넣어야하는문제를치열하고민끝에해결을해주고있다. 큰매스를적절히분절하고(혹은채광을위한슬리트, 계단실의옥외노출등의수단으로분절된것같은효과를내고), 중성적인콘크리트대신고령토벽돌로친근한질감과색을가지는입면을만들고그위에장식적요소를과감하게쓰면서, 동시에선큰광장등을도입하여제도화된건물(institutionalized building)의느낌을최소화하고있다. 동신대학교기숙사는대학의건물이흔히그렇듯공사비가충분하지못했음에도불구하고주어진예산안에서작가의창의력을발휘한좋은예로남을것이다.

• **무안백련지 수상유리온실** 백련지수상유리온실은물위에떠있는연꽃의이미지를보여주려는형태로보이는데옥상으로연장되어돌출된구조프레임, 구조물이물과만나는방법등에서는거대한만큼의효과를못내고있는듯하다. 영역별조닝계획에의한각기능의배치는유기적통합을이루지못하고각각별개의공간으로확연하게구분되어위치에따른약점의보완가능성을제한하고있는듯보인다. 가장중요한부분들인연전시관과2층의아열대식물전시관은모두수준간교를통한보행로와의관계가너무약해진듯이고주방과관리실등은감추어져도좋은기능이전면으로나와배치된느낌이다. 보행과휴게전망을위한데크와긴밀한관계를가지고좀더개방적으로1, 2층을통합할수있는방법으로주계단이계획되고, 2층의휴게영역은외부백련지와도관계를가지고1층의카페테리아와레벨을달리하더라도공간적으로개방, 통합될수있도록계획되었더라면하는아쉬움이있다. 1층의연전시관옆의옥외데크는주보행데크와도무관하면서관계만약화시키는듯이보인다.

• **천안시청사** 천안시청사는여러기능의건물을4층높이의L자형지붕으로엮어수평을강조하고Gate를관통하는동서진입축선상에11층타워를두어, 그Mass는강력한힘을느끼게해주고있지만그스케일과형태가실제기능에부합되지시민이주인이되는열린시청의이미지를주고있는지는의문이다. 동서방향주진입축에따른마당배치와주출입구위치는형태개념상으로만존재할뿐실제이용은북측주차장쪽에서진입하게될것으로보인다. 개념상진입축에맞춰시각적기능인지, 형태에맞는기능인지의문제는차치하고라도그레벨이너무낮고내부에서의스케일이커주출입구쪽에있는시민홀/만남의광장을이루는아트리움공간을답답하게만들며외부공간과의관계를단절시키고있는듯이보인다. 외부공간은레벨차이나Gate, 건축물과연결브리지등의의해명확하게구분되어각각성격을달리하는공간들을제공하여훨씬좋은느낌이지만스케일면에서는약간의아쉬움이있다. 같은평면이라도전체적으로남측의산쪽으로조금만더다가갔더라면자연과의긴밀한관계도연계되고스케일도훨씬좋아지지않았을까한다.

•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은외장타일을제외하면미술관이름과어울리는이미지를보여주는못하는듯하며전시물만으로앞으로이런이미지를만들어나가기도쉽지는않을것같다는느낌이다. 애초분청도예마을조성계획에서시작되었기에, 몇개의동으로나뉘어계획된것처럼보이는데아직은공원같은느낌이더강할뿐제대로마을이형성된느낌이덜하다. 그러나앞으로성장을어떻게유도하는가에따라훨씬좋은마을같은미술관이될가능성을가지고있다하겠다. 미술관이건축독자전시만너무엄매이지않고, 현재계획하고있는것처럼휴머니즘건축물을전시하는시설을인접한별도의부지에계획하는것보다는, 현재의각시설을연결하는산책로를따라필요한곳에, 가능하면휴과연관된재료로휴과생활에연관된모든것을담아

내고보여줄수있는, 그리고김해의도예인들이원하는가야토기와분청사기의전승을위한기능을담는시설을지어가며마을을완성시켜간다면좋겠다는생각이다.

- **철원종합문화 복지센터** 이곳의경우의형태위주접근방법은타워만없을뿐비슷하여모든기능들을큰형태의틀에가두는건축계획때문에외부공간계획은중앙에배치된수평이강조된건물예의해남겨진공간의처리계획정도로느껴질뿐내부공간과의외부공간과의관계나외부공간을구성하는방법등에아쉬운점들이보이고있다. 절제를추구한4층높이의수평이강조된 Box형태가주는인상은강력하다는면에서는성공적일수있겠지만이것이그안에담고있는기능들의, 그리고사용자의요구조건에상응하지못할경우는다른문제라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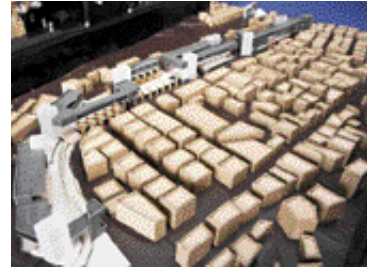
서측면대부분을덮고있는커튼월, 노출콘크리트와Hard Paving 위주로이루어진외부공간(마당)과도서관커튼월벽면에면한야외집회장, 청소년수련의숲이라는이름으로구석으로밀어버린듯한자연, 건축적방법으로도서관Mass 주위를둘러싼수공간등을볼때이용하기좋은건물이라기보다는보이기위한건물같은인상을지을수없다. 외부공간계획이이용자를위하기보다는건물이드러나보이기위한방법으로이루어진느낌이다.

- **군산자유무역지역 시설공사** 4층높이의수평이강조된하나의지붕틀로, 사이에Gate를두고두기능을묶어주는방법은천안시청사나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와비슷하다. 친환경추구에공사비상의제약이있었겠지만지면의외부공간은거의포장만으로이루어지고3층의중정도너무건축적인접근방법으로보이는아쉬움이있다. 공장동블록에서는서비스를위한중정을가진표준화된공장동으로둘러싸인단위블록을만들고, 단위블록사이에중앙녹지광장을두는합리적인배치방법을보여주는데추후동일한블록이계속개발될것으로가정한다면중앙녹지광장들을연결하는보행자녹지축이필요할것으로보이며업무, 지원시설과의연결축도고려했으면좋았을것이다. 물론업무, 지원시설동이보세구역밖에위치하고있기때문에게이트가있는블록외곽의보차로를이용하는것으로계획된듯이보이나관리가가능한입체적인연결도가능하지않았나생각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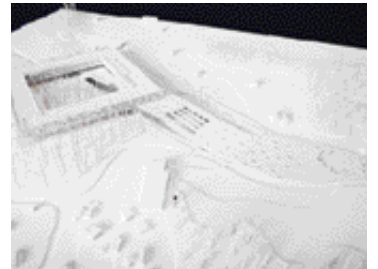
- **서대문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 이진아기념도서관은넓은공원에위치하면서도공원한쪽구석을암전히차지하여원래공원의틀은깨지않고있다. 외장재료는서대문형무소와그담장과의관계를고려하여벽돌을주재료로하고규모는기존건물과비교하여커졌지만효율적인평면으로필요이상으로크지는않다. 위치, 규모, 재료선정모든면에서드러내지않는방법으로접근하였으면서도저절로드러나보이는듯한느낌이다. 그런중에도아쉬운의문점들이여럿보이는데, 전면의지면과만나는벽면에나무외장재가적당한지, 내부아트리움에누드엘리베이터나서쪽면에남북축을따라일자로뻗은계단이바람직할지와지금은죽었지만6그루의자작나무가있는아트리움공간의폭은적당한지, 동쪽으로시내가조망되는위치의열람석과2개층높이의커튼월은적당한지, 아트리움공간을담담하게만들기때문에직선계단의유리바닥과엘리베이터를누드화시킨것인지, 오브제역할을하기위해유리라는재료를선택한것인지등이다. 만들어놓은문제를해결하는방법을찾는것과애초부터문제를만들지않는방법과를비교해볼필요가있을것이다.

- **포도원 교회** 대구광역시외곽의조용한주택가에세워진작은규모의검박한교회이다. 설계자와건축주의숨은노력으로너무지못한여건에도불구하고건축과정은어렵고오랫동안알뜰하게실현시킨프로젝트이다. 작금대형화되고현란해지는교회건축물에비해조용하지만강한메시지를전하는설계이다. 차후증축을고려해미리만들어둔열주는교회진입의축을형성하며마당의연출을담당하는조형물로보였고, 외벽을대부분옹벽으로단아표정을감춘침묵의종교적메시지를전달코자하였다. 이로인해채광을위한천창들은본당을뺀단아하며신성한분위기를만들어회중들에게열린교회의표상을나타내며경건함을주고있다.

- **(주)피플웍스** 디지털핵심부품을생산하는공장으로서기능적평면구성위에건축조형언어를간결하며경쾌하게여어낸작품으로오랜역사의구미공단의공장들로형성된주위분위기에새로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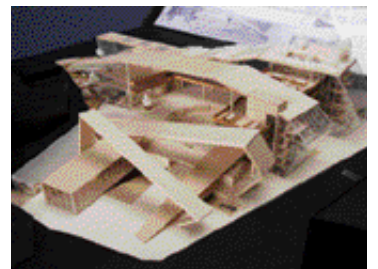
구포 5일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촌과 도시의 공존방안/이현경, 홍순필, 심소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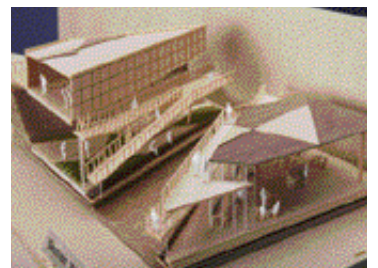
반응하는 대지의 생태적 문화인프라 구축/남시백, 김건우



場을 통한 지역정체성의 회복/박정규, 최혜영, 김연희



Rural+urban=ru-ba#준휘, 정의문, 김종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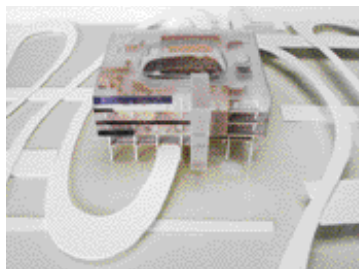


난 오늘 나루터를 건넌다.../이남현, 기대영, 김지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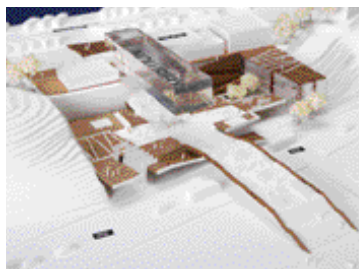
계획부문 | 입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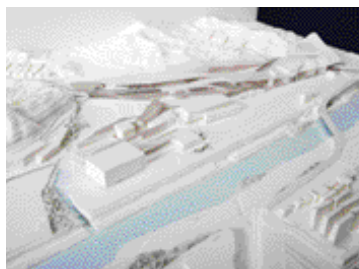
콜라주 도시(collage city)/이도형



새로운 네트워크를 위하여...갯벌생태 체험관 계획안/김노재, 김영균, 우민택



망상(網商)의 공간/조현규, 이승엽, 이주혁



Future is wonderful/전은수, 김태연



풍경의 소생/나성윤

활력을불어넣었다. 제한된대지에서운동장을배치함으로근로자의환경개선에노력하였고, 효과적으로단면구성을하여생산시설의간명하기능과공장도바이어를위한중요한쇼윈도우가되어야한다는경영마인드를담고있다. 로비와주계단은방문객이나상근이용자에게즐거운층간이동의시각적유희를주었고, 최상층의식당및후생시설들이잘가꾸어진옥상정원을향해열려있어첨단기술을연구개발하는직원들의근무환경을배려하는여유로움을마련하여, 디지털시대의공장의프로토타입을보여주었다.

• **용인시 상현동 지예슬 유치원** 용인시수지신개발아파트밀집지역뒷마을의유치원으로서절제된공간언어와구조의경쾌함이어우러진작품이다. 골목과뒷동산과의대조적조형미가이해하기힘들었으나대지앞으로신설될기간도로가예정돼있어도시적맥락을지키고자하였다. 둔탁한구조개념에서탈피하여가볍게보이며능률적구조시스템을찾아내고자노력했으며, 그위에역동적어휘의설계수법으로신선한이미지를표현하였다. 어린이들의많은꿈을담아내기위한공간을만들고자여러모로노력한모습들이모여하나새로운유치원의가능성을보여주었다.

• **예화랑** 강남지역예화랑을처음시도한건축주의오랜화랑건물인접대지에새로운변신을위한의도가건축을통해강하게표출된작품이다. 건축그자체가전시물이되어야겠다는외관디자인과전시작품을돋보이기위해건물이숨어있어야한다는두가지목표를열심히보여주었다. 특히여러프로세스를통해추출한외부의표피가젊음과다이나믹한신선감을주어, 이화랑에초대될작가의작품의도에도무한한가능성과새로운도전을던져줄수도있겠다.

• **더 샵 센텀파크** 이곳은최근주거의조건으로각광을받고있는훌륭한전망과정서적만족감을중시하는공원과사람들과어울려지는조경, 파노라마가펼쳐지는원경을즐길수있는장소에3,750여대의초고층고밀도화를시도하여부산아파트의랜드마크가되고있다. 주동전체가탑상형으로공용공간을최대편리하게배치하고환기채광조건이양호한4베이혹은5베이와주부동선을최대로줄이고2면이상열려있는평면을하여고급아파트인식을갖도록하였다. 주동은주동부와중층부기단부로나누어서고층부는헬리포트와경관조명을설치하여명쾌하고시원한느낌의분위기로계획되고초고층인접을감하여경쾌한분위기의색상으로처리하여동별포인트로강조하여단조로움과위압감을해소하기위하여수평선을강조한다디자인은시각적안정감을주고있다. 다만, 연약지반공사해결방안으로데크층을설치하여보행길과연결된도로면적상가를집중배치하고나머지부분에주차장으로사용하고있으나초고층고밀화로인한아파트층접근동선의무리한계획과유사시구조장비의접근성, 인근블록에깊은음영의문제점도제기되고있다.

• **더 미켈란** 서초동서리풀공원인근고급주택지에위치한더미켈란아파트는67세대대의대형고급단독형아파트이다. 기존두필지2개동의롯데빌리지36세대를합필하여재건축된경우이며기존의노후연립주택재건축의토지이용과건축계획의벤치마킹이될수있는경우이다. 대지의형태와규모에서단조로운일자주동계획이될수있는상황에서절곡형배치를선택하므로만들어진세대별조망확보와깊이와다양한외부공간이대형수목으로식재되므로숲속의아파트가가능하도록하였다. 동형태는고전적인외관연출의가능성을가져왔고석재외부마감재사용으로무게감이더하여 고급주택으로써설계의도를 잘 표현하였다. 다만, 단독형 아파트이므로지구·단지의공동주택에서와같은주동배치계획환경·토지이용, 외부공간계획등이다른출품작품과비교할수없는문제점과특정인을위한고급아파트로써공사비와계획적접근도비교가될수없었다. 이외에도과도한주차시설면적과1층전체를리조트느낌을위한로비활용은더적극적인주민커뮤니티장소로활용방안이검토가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 **토함 정사** 경주토함산을등지고남산을향해180도막힘이없이열려있는대지는건축사라하면누구나담을낼만한장소다. 땅은이미작가에게무엇을해야하는지말해주고있다. 토함정사의작가는이집의이야기에거실채와안채그리고그사이에놓인중정이렇게세명의등장인물을만

들어낸다. 이집은따라서좋은무대에등장인물들의재미있는관계가설정된흥미로운연출이돈보이는한편의연극이되고있다. 다만한가지아쉬운것은토탈정사의중정이한옥의마당같이식구들이오가며자연스레모여지지고볶는삶을담든것이라기보다는편안한집안에서창을통해내다보기만하는관상용공간에그치고있다는점이다. 안채와거실채사이연못에하늘을담고그것을즐길수있는좁고긴데크를주긴했지만, 여기에집식구들이짬을내어맘먹고모여앉지않는한이공간은그저바라보아좋은공간일지언정, 일상사를담아내는공간은아니라는생각이든다. 바로이점이연극에서연출되는삶과집에서살아지는삶과다르다는사실을나타내보여주는것은아닐까.

• **첨경현** 남한강을바라보며막힘이없는양평의남향반이땅은강을향한조망을최대한살리는집을요구할수밖에없다. 이요구에따라부엌과욕실을제외한모든공간은남쪽에배치되어있고, 방마다남쪽으로커튼월로보일만큼커다란픽처윈도우를두어남한강의경관을최대한실내로끌어들이고있다. 이렇듯첨경현은그이미그대로집에경관을가져다더하는것에일에충실한작품이되고있는것이다. 다만, 별채와이에붙은다리의매스가본채에비해과장되어있고, 콘크리트벽체와유리창문으로둘러싸여있어원래추구했던윈두막의이미지보다는경비초소같은느낌이주고있는것이아쉽다.

• **구기동 주택** 구기동주택은조각가부부와두아들을위한맞춤집이다. 그래서층고가높은작업실이필요했고, 아이들을지극히사랑하는부부는아이들의아주어렸을적기억을집에담고자했다. 구기동주택의작가는이러한요구를매우정갈하고세련된솜씨로해결해주고있다. 넓지않은대지임에도불구하고앞뒤마당을놓고, 대문에서3층침실까지이리저리돌아가며집을즐길수있는장치를오밀조밀제공해준다. 철제대문에낙서처럼묻어있는아이들어릴적그림에서부터군데군데아무렇게나놓인듯한집주인의조각작품들조차예사롭지않게보이는것은작가의치밀한계산과정성이깃들여져있기때문이다. 좋은집주인과실력있는건축사의만남이돈보이는구기동주택은정말아름다운집이다. 다만, 먼훗날이맞춤집의가족구성이바뀌거나주인이아예바뀌어도계속좋은집으로남아있을수있겠는가하는점에대한작가의성찰이명확히눈에뜨이지않는다는것이굳이트집거리가될수도있겠다.

계획건축물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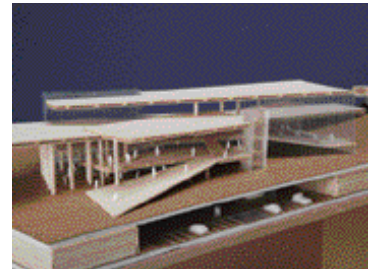
행사일정표

- 작품공모공고: 5. 1 ~ 7. 13
- 접수
 - 1차작품계획(안)접수: 8. 10(목) 09:00~18:00(접수장소: 대한건축사협회회의실)
 - 2차패널및모형접수: 8. 30(수) 09:00~18:00(접수장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1층예총화랑2실)
- 심사: 8. 11(1차작품계획(안) 심사)
 - 8. 31(목)(2차패널및모형심사), 9. 1(금)(작품설명프리젠테이션)
- 시상식: 10.17 15:00 / 장소: 건설회관대회의실
- 수상작전시: 10. 17~10. 21 / 장소: 건설회관2층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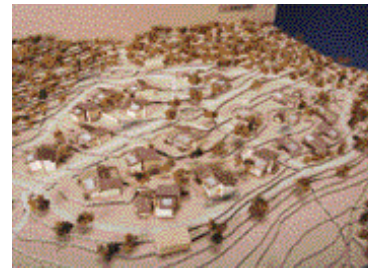
주요 공모요강

가. 응모 작품 및 자격

- 응모작품: 제시된주제를적용한미발표창작작품



주말농장을 이용한 도시형 농촌계획안/
조성태, 김현휘, 김기홍



농촌 시나리오/김경록, 이순중, 이대규



강화도 고려궁지를 중심으로 소도읍 재활성화 계획안/송승지, 신영준, 이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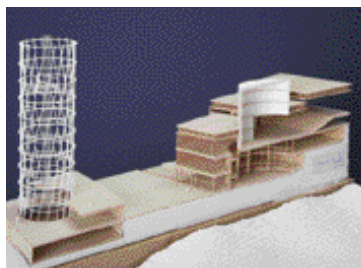


커뮤니티 공간 구축을 통한 상생/박석희, 이선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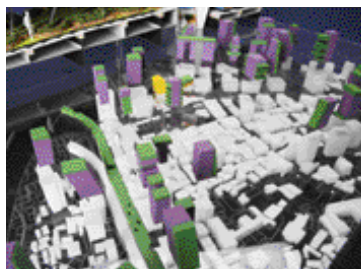


어촌마을 방파제를 이용한 복합문화시설 계획안/전민석, 문성우, 신상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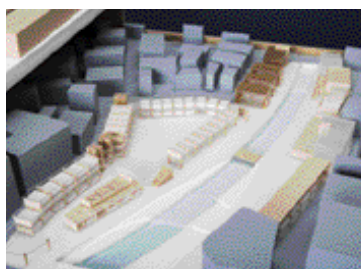
계획부문 | 입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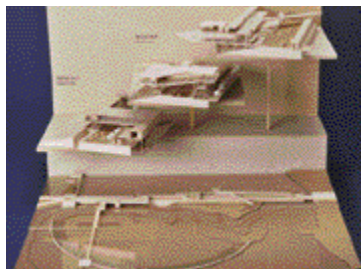
Recall of Diagenesis/노지현, 박혜경, 허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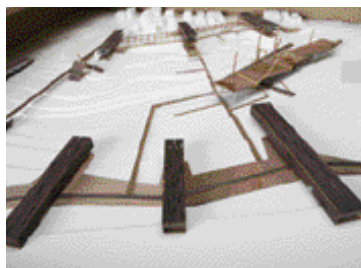
테라 팜 시티/김민수, 양근보



서로 다름에 교감을 기반으로 문화적 움직임이 있는 도심속 농수산물 재래시장 가로 계획안/오승환



Restoration of local culture/유기연, 박영준



포구 가는 길/이인근, 권민재, 한정환

- 작품주제: 도농상생(和의네트워크)

- 주제설명: 무한경쟁과 전면 개방이라는 급변하는 세계속에 농산어촌지역의 정체성과 다양성의 상실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도시는 활발한 변화와 세계화의 물결에 편승하여 획기적인 발전을 계속해왔지만 시장논리에 따른 상품화된 문화콘텐츠의 심각한 독점과 획일화의 위기속에 있고 농산어촌지역도 시대성과 장소성 그리고 역사성 등의 문화적 성격을 담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방안이 모색되고 전국토의 도시화를 상상할 정도로 도시는 확장되어가고 있는 반면 농산어촌은 젊은 계층이 도시로 빠져나가 노년층만 남아있는 변화하는 시대에 대처하지 못한 황량한 문화경관만을 보여주고 낙후되고 방치되어 황폐되어가는 마을회관 등의 자치시설등만이 남아있다. WTO체제하에 농산물수입자유화로 생존의 위기마저 느끼고 있는 농산어촌을 살리기 위해서 농산어촌의 다양한 문화와 문화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어질 때이다. 농산어촌을 살리기 위한 노력은 도시의 문화정체성 회복 및 발전을 위한 시도와 항상 연결되어야 한다. 도농상생(都農相生)의 네트워크이다. 그것은 깊은 여운을 주는 동양화의 여백과 같고 따뜻한 어머니의 품과 같으며 영원한 마음의 고향으로 즉 도시의 여백으로 안식처로 존재하는 늘 푸른 농산어촌의 경관을 잃어버린 채 지역문화의 정체성 및 발전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도농상생(都農相生)의 네트워크는 도농불이(都農不二) 운명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하되 '和'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和'란 지속 개발 가능한 미래를 담보해 줄 유일한 희망인 농촌을 상생의 터전으로 균형적인 지역발전 공간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조화를 의미하며 자연과 인공구조물의 조화와 정신과 물질문명의 조화를 의미하는 원개념(原概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산어촌의 지역성 및 다양성의 회복을 위한 도농상생(都農相生)의 '和의네트워크' 실현은 지역균형발전 및 한국적인 독특한 정신적, 문화적, 지적, 정서적 특징 그리고 한국의 시공간(역사성, 지역성)에 내재하고 있는 고유의 생활양식 등을 회복유지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도농상생(都農相生)의 '和의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농산어촌지역에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친환경 교육의장, 도농교류의장 뿐만 아니라 관광객 및 여행자의 체류의 장소와 농산어촌의 미래지향적 커뮤니티제안 등 시대적, 경제적인 요구에의 해 필요하고 실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위해 설계에서 고려될 수 있는 도입시설 및 설계기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도입시설> 마을의 마스터플랜, 친환경 농업교육관, 도농교류 및 홍보센터, 마을 문화회관, 특산물 판매장, 주민복지시설 및 지역자치센터, 생태체험 및 역사문화탐방의 마당, 펜션형 숙박공간 등 <설계기법> 생태건축 및 친환경 설계, 에너지 절약 설계, 그리고 지역 및 장소성, 시대성을 나타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설계기법 등을 이용한 신축 및 리모델링 설계. 그러나 모든 설계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도 도농상생(都農相生: 和의네트워크)의 개념을 근간으로 설계자가 바람직하다고 상상할 수 있는 창의성 있는 프로그램이 우선되길 바라며 제출되는 성과물이 농산어촌지역의 균형발전에 초석이 되고 문화창조의 선두주자로써 건축문화의 위상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원한다.

- 출품자격:

- 일선 건축분야 설계업 무종사자(건축사 자격 소지자 제외)
-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 건축 관련 학과 재학생
- 일반 국민

나. 주요 출품규정

- 1차: 작품계획안 A2(42.0m×59.4m) 1부

- 아이디어 위주의 전개과정, 설계개념 등을 표현(패널 축소판이 아님)
- 작품설명서 1부(A4 1매)

※ 작품설명서에 접수번호를 필히 기재해야 하며, 참가신청 작품명 · 작품계획안 · 작품설명서 제목이 동일해야 함.

- 2차

- 패널 A0 1매 - 작품계획안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주제를 발전시켜 표현
- 모형(가로×세로 80cm×80cm, 높이 50cm 이내 - 모형대 제출 불가)
- 2차 심사시 작품설명 프리젠테이션 실시

심사

가. 심사방법: 패널및모형심사

나. 심사위원

- 김낙중/ 건국대학교건축전문대학원교수(심사위원장)
- 신호근/ 넥스트건축사사무소
- 심재호/ (주)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 양해윤/ 예전건축건축사사무소
- 유종옥/ (주)아림종합건축사사무소
- 이관직/ 비온드스페이스건축
- 이종훈/ (주)천일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시상내용

- 대 상(1점): 상금500만원, 건설교통부장관상, 해외건축탐방
 - 우수상(5점): 상금200만원, 대한건축사협회장상, 해외건축탐방
 - 특 선(6점): 상금100만원, 대한건축사협회장상
 - 입 선(20점 이내): 상금30만원, 대한건축사협회장상
- ※우수상이상수상자(대학재학생에한함)중영어인터뷰심사를거쳐ARCASIA 학생잼버리대회
파견특전

수상자 명단

■大賞(건설교통부장관상)

Mixed-Intersection / 서운승(홍익대일반대학원건축학과), 최미경(부경대건축학부)

■優秀賞(대한건축사협회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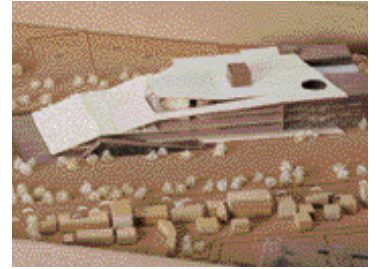
- 농촌관광활성화를위한Rural convention center 계획안/ 오수희 · 김영인(부경대건축학과)
- 인공적지형의형성을통한도농간매개체/ 최지호(목원대건축학전공), 김현술 · 문영목(원광대 건축학전공)
- 재생-잃어버린광촌의기억/ 서지명 · 박선상 · 임유빈(건국대건축전문대학원건축설계학과)
- 관계성의전환/ 안영창 · 유경재 · 최승호(고려대건축공학과)
- 겹쳐진영역내체험생활가로조성/ 이희정(경기대건축학부), 최재혁 · 강동호(아주대건축학부)

■特選(대한건축사협회장상)

- 어촌을살리는和의되먹임고리계획안/ 황경진 · 유보미 · 최혜림(충북대건축학과)
- 구포5일재래시장의활성화를위한농산어촌과도시의공존방안/ 이현경 · 홍순필 · 심소연(부경대 건축학과)
- 반응하는대지의생태적문화인프라구축/ 남시백 · 김건우(국민대건축학과)
- 場을통한지역정체성의회복/ 박정규 · 최혜영 · 김연희(공주대건축학과)
- Rural+urban=ru-ban / 박준휘 · 정의문 · 김종민(부경대건축학과)
- 난오늘나루터를건너다... / 이남현 · 기대영 · 김지선(수원대건축공학과)

■入選(대한건축사협회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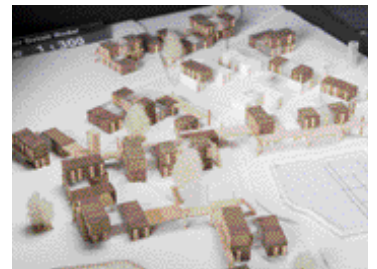
- 폴라주도시(collage city) / 이도형(울산대건축학과)
- 새로운네트워크를위하여..(갯벌생태체험관계획안) / 김노재 · 김영균 · 우민택(한양대건축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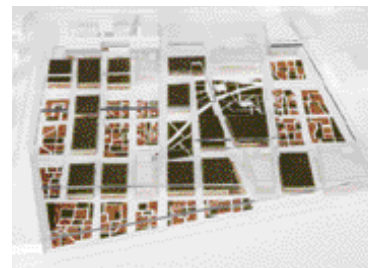
하나되다/심응석, 성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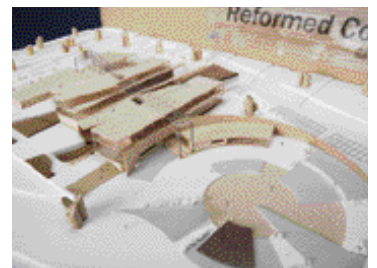
식물스케일에 의한 건축적 랜드스케이프/ 김준용, 감동호



자생 시나리오(마이크로&메크로인프라 네트워킹)/김태균, 이근택, 임재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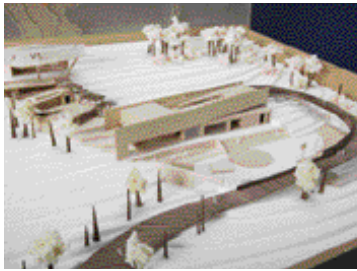


도시속농수산물시장의복합화/권준우, 구분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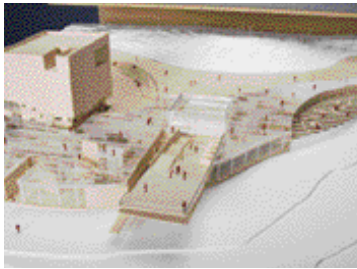


접촉.관계.연속./김형석, 이근영, 최현숙

계획부문 | 입선



화성시 독지리 형도 개발 계획안/최탄일, 이해진, 오지승



회복(Express way)/정우석, 김대익

- 망상(網商)의공간/ 조형규 · 이승엽 · 이주혁(서울대건축학과박사, 석사과정, 석사과정)
- Future is wonderful / 전은수(한양대건축대학원), 김태연(홍익대건축대학원)
- 풍경의소생/ 나성운(수원대건축공학과)
- 주말농장을이용한도시형농촌계획안/ 조성태 · 김현휘(한양대건축대학원건축설계전공), 김기홍(경기대건축학과)
- 농촌시나리오/ 김경록 · 이순중 · 이대규(건국대건축전문대학원건축설계전공)
- 강화도고려궁지를중심으로소도읍재활성화계획안/ 송승지 · 신영준 · 이재성(홍익대건축공학과)
- 커뮤니티공간구축을통한상생/ 박석희 · 이선희(전남대건축학부)
- 어촌마을방파제를이용한복합문화시설계획안/ 전민석 · 문성우 · 신상진(아주대건축학부)
- Recall of Diagenesis / 노지현 · 박혜경 · 허준화(인하대건축학부)
- 테라팜_시티/ 김민수 · 양근보(연세대건축공학과)
- 서로다름에교감을기반으로문화적응직임이있는도심속농수산물재래시장가로계획안/ 오승환(제주대건축디자인전공)
- Restoration of local culture / 유기연 · 박영준(수원대건축공학과)
- 포구가는길/ 이인근 · 권민재 · 한정환(아주대건축대학원)
- 하나되다/ 심응석 · 성준영(홍익대건축공학과)
- 식물스케일에의한건축적랜드스케이프/ 김준용 · 감동호(건국대건축전문대학원건축설계학과)
- 자생시나리오(마이크로&메크로인프라네트워킹) / 김태균 · 이근택(아주대건축학부), 임재홍(아주대대학원건축학과)
- 도시속농수산물시장의복합화/ 권준우 · 구본근(성균관대건축공학과)
- 접촉.관계.연속.. / 김형석 · 이근영 · 최현숙(홍익대건축공학과)
- 화성시독지리형도개발계획안/ 최탄일(고려대건축학과), 이해진 · 오지승(고려대건축공학과)
- 회복(Express way) / 정우석 · 김대익(인하대건축공학과석사과정)

심사평

김낙중 /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교수, 심사위원장

일반적인설계공모작품의아이디어나기본구상정도를요구하는경우와특정프로그램과대지에대하여구체적인설계안을요구하는경우의두가지로대별한다면, 본공모는전자의범주에들어간다고볼수있다. 이경우판넬한장에담긴정보만으로도그작품을평가하기엔충분치않다. 이러한점을보완하고심사에보다공정을기하기위하여2차심사때에는모형을요구하였고, 3차심사에서는설계자가직접설계의도를설명하도록하였다. 이런과정을거치고도후시있을지도모르는심사자의오독을방지하기위하여설계자와심사자간의직접대화가가능한질의응답시간을가짐으로서모든심사자들이가능한노력을기울였다. 심사과정을통해느껴지는것은이번공모전주제인「도농상생」이갖는다소추상적이고광역적인개념때문인지, 응모작들의영역도넓고, 그접근방법도다양하여, 구체적프로그램을갖고하는공모전과달리일정한틀로서우열을계량하기에는무리가있을수있다는점이다. 응모작들을살펴보면그장소들이농촌, 어촌, 도심등광역적이었고, 제안된프로그램도농수산유통시설, 문화시설, 지역의커뮤니티시설, 관광시설, 주거시설등으로다양하였다. 결과물의형식도구체적인건축물, 광역적마스터플랜, 랜드스케이프와결합된건축물, 생태개념이도입된건축물등여러모습으로나타났다.

이렇게다양한개념과접근을통해나온작품들을같은레벨에올려놓고일정한심사틀에맞춰계량한다는것은적합지않다는것이심사위원들의공통된견해였다. 따라서, 위에말한바와같이설계자의의도를충분히이해할수있도록발표와질의응답의절차를통하여작품에대한정보를보다많이접하려했으며, 이를토대로, 아이디어의참신성, 프로그램설정의합리성및유용성, 프로세스의일관성, 표현의완성도등에주안점을두어평가하였다. 이렇게도출된평가결과에대해다시한번형평성과유연성을제고하기위하여, 최종적으로심사위원들간에형식없는자유토론을통하여의견을수렴해나갔다. 항상그렇지만, 모든응모작들은각자가심혈을기울인결과물로서소중하다. 따라서이를심사하는일은언제나조심스럽고어깨에무게가느껴진다. 입상여부를떠나응모자모두가치열한정신작업에의한출품을통해각자의건축적성장을이루는승리자가되길바라기에그무게는더하다. 끝으로, 건축사를지망하는후배들에게말해주고싶은것이있다. 건축에는답이없다. 따라서절대적인계량도할수없다. 건축의답을알고정확히계량할수있는존재가있다면그것은유일하게 '건축의신' 뿐일것이다. '건축의신' 은우리가도달하려는목표가아니고지향하는대상일뿐이다. 건축사는끝없는모색을통하여성장하여야한다. 여러분들도이번공모전을통하여그모색의길로접어들었고이길을통하여훌륭한건축사로성장해나갈것으로생각한다.

신호근 / 넥스트 건축사사무소

올해에도 보다 현실적이고 시사적인 주제인 WTO와 FTA의 국제시장 개방과 더불어 농어촌의 지역경제와 문화의 정체성 확보를 주제로 하는 공모를 제안했다. 물론 이같은 주제는 단순하게 건축적 접근이 아닌 보다 포괄적인 정신적, 문화적, 정서적 특징과 지역적 정체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해야 하는 입체적 과제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소 아쉬운 점은 이러한 과제는 사전에 건축사 외에 다양한 전문가 및 농어촌민들과 토론회를 개최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건축이 계획된다면, 공모 진행사에서 끝일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농어촌 지역경제에 건축의 역할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2006 한국 건축 문화 대상 2차 심사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표현 방법인 글자체의 크기부터 심사위원이나 차후 관람객에 대한 배려 없이 너무 작은 글씨를 사용하였고, 내용적으로 보면 건축적 표현 방법이나 조형성은 전년에 비해 보다 성숙해졌으나, 농어촌의 경제 및 지역 활성화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과정과 디자인 개념 전개 과정에 표현이 다소 미흡해 보인 것이 아쉽다.

다른 관점에서 언급하자면 일방적으로 건축가 입장에서만 판단하기에 앞서 과연 농어촌 주민들이 진정 원하는 시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는 흔히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건축사의 입장에서 이런 시설을 해 놓으면 그들이 잘 이용하고 고마워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입장이 되기 쉽다는 것이다. 사실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관이나 외부의 대규모 투자로 지어져 그들이 이익을 회수해 가는 그런 거창한 시설이 아니라, 진정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고사생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보다 소규모 건축을 원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성장과 개발에도 위계와 단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의 낙후된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가장 기본적인 시설부터 단계적인 접근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다.

몇몇 개인 작품을 보면 대상을 받은 'Mixed - Intersection'은 거문도의 기존 여객터미널과 인접해 있는 고기잡이 선착장을 연계해서 수산물 직거래 센터 등을 계획하여 지역 어민의 자생적 소득 향상이 일어나도록 유도한 점과 계획한 건축물을 이용하여 단절된 바다와 산의 자연 공간의 연계성이 돋보였다. 한편 선착장에 설치한 수산물 직거래 센터의 태풍 등 자연 재해에 대한 고려가 아쉽다.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한 Rural convention center 계획안 은 도시의 근교의 농산물 도매 및 컨벤션 센터를 통해서 · 농간의 교류의 장으로 계획하였는데 특히 동선 계획과 각 기능 분리에 따른 조닝이 뛰어났으며 건축적 조형성도 우수하였다. 반면에 계획 부지에 진입하는 자동차 동선 계획은 다시 재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생 - 잃어버린 광촌의 기억' 작품은 사라져 가는 탄광촌의 재화를 위해서 역사 주변의 자연 지형과 기존 폐가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계획한 점이 관심 있게 보였으며, 커뮤니티 센터 전면에는 가벽은 다소 과장한 것처럼 보여서 아쉽다. '관계성의 전환' 건물 골재 채취 후 남겨진 공간의 재활용안은 주제가 상당히 신선했고, 농어촌 주민 뿐만 아니라 주변 경관에도 일조하는 측면에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내용이었다. 더욱 건축 조형성도 독창적이며 개인적으로 여운이 남았다.

나머지 작품들도 1차 심사 이후 상당히 발전시켜 우수작 못지 않은 작품들도 있었으나 제한된 작품 선정으로 아쉬움이 남는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이번 결과보다 앞으로 자신의 건축 세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열정을 가지기 바란다.

심재호 / (주)범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초기 입선작 34 작품을 대상으로 추가 제출케 한 모형과 패널 등을 보고 제출자들이 정성을 다한 흔적을 볼 수 있었다. 작품의 독창성은 물론, 표현 기법 상에서도 수준급의 작품들이 눈에 띄었으나, 이러한 작품들이 뚜렷한 테마를 제시하지 못하여 중간에 탈락되는 것이 안타까웠다. 또한 특선 이상의 12개 작품에 대해서는 제출자가 직접 작품 설명을 하였던바, 발표 내용이 작가의 의도를 뚜렷하고 요령 있게 설명하는 제출자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부연하고 싶다.

이번 주제인 도농 상생을 건축 설계로서 구현하기에는 상당히 그 적용의 범위가 다소 넓었다는 생각이며, 그만큼 지침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주제 선정이 가능했었다고 보며, 제출자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작성 발전시켰기 때문에 작품의 최종 결과만을 놓고 심사하기에는 다른 작품들과 상대적인 평가를 하기 어려움 또한 적지 않았다.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하는 것이 어떠한 프로그램으로서 표현되어야 하며, 상생의 의미는 도시민과 농어민에게 어떻게 다르게 이해되어야 할까? 이러한 이슈가 건축 작품으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 이러한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 보고 나름대로의 심사 기준을 정해 보았다.

도농 상생의 의미를 정의할 때, 도시민에게는 단순히 놀이공원, 휴식터, 여가를 즐기는 공간, 그대가 농어민에게 소득을 공급하는 곳, 또 농어민에게는 삶의 터전, 정보 교환의 장, 도시민이 돈을 쓰는 곳... 이러한 시나리오보다는, 오히려 서로의 영역의 접선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들을 구현하여 서로에게 도움을 주며 서로의 삶의 장으로 답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쉽지 않은 주제를 놓고 많은 고민과 해법을 제시한 제출자 모두, 특히 당선자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

양해운 / 예전건축 건축사사무소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에 기대하는 바는 무언가 분명하다. 보다 창의적이고 진취적이며 미래 지향적일 것이라 한다. 기성세대의 모방이 아니길 바란다. 세대간의 차이가 다르듯 무언가 다르고 신선한 접근이길 바란다. 행동보다 사고가 앞서길 바란다. 목적하는 바를 끈기 있게 성취하길 바란다. 우리는 단지 심사를 하며 젊은 세대의 신선한 의식을 만끽하고 싶었다. 주어진 테마는 「도농 상생」으로 아직까지 이 문제를 제대로 품에 안고 문헌을 찾아볼 수 없고 이러한 문제가 주어진 것은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문제이며 신선한 해법을 기대했음이라 생각한다.

여기에서 농촌이란 도시를 제외한 어촌, 농촌, 탄광촌 등을 대표하는 대명사임을 말해둔다. 모두의 생각이 다르겠지만, 나는 각각의 identity를 갖고 있는 테마적 특성을 가지고 문제해결에 접근하길 바랐다. 그러기 위해서는 테마파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고 그곳을 찾는 주인공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흐뭇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먼저 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도농에는 주종관계가 성립되어 주는 도시만, ‘중은 농촌으로 공급과 수요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계의 소통이 원활히 될 때 도농상생 project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공모가 갖는 의미는 가시적인 해법을 실제에 활용될 수 있는 기회를 관계에게 제시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냥 한번의 공모전으로 끝난다면 하나의 이벤트에 불과한 무의미한 행사가 될 것이다. 과제의 표현 방법에서 심사자의 입장에 한번 정도는 서보기를 바란다. 먼저 제목만 보고도 큰 방향을 이해하게 되고 요약된 내용인 synopsis를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게 글씨 크기 등을 조절하여 표현하였으면 한다. 너무 많은 작은 글씨나 전적으로 영문으로만 표기한 표현 등은 심사자를 피곤하게 하며 좋은 결과의 기대가 어렵다. 다음으로 summary와 다음 표현의 해법으로 다양한 diagram, 자료, 도면 등이 필요하다. 자기의 생각이 심사자에게 얼마나 많이 정확하게 전달되는가를 생각해 주기 바라며, 이를 위한 보조 수단으로 모형과 기타 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시각적 판단에 너무 의존하여 말없이 있는 잔재주를 부리는 것은 피해야 한다. 충실한 콘텐츠를 가지고 간 강산사고로 문제에 접근하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질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환자를 치유하지 못하는 돌팔이의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건축사가 된다는 점을 되새겨 봐야 한다.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깊이 들어가서 해결해 보려는 긍정적인 노력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문제해결의 끝맺음이 부족함이 전체적으로 느껴졌다. 또한, 너무 고정관념에 얽매어 있는 느낌이 컸으며 사회 문제의 본질의 이해에 더 깊이 들어가서 해답을 찾았으면 한다.

유종옥 / (주)MC설계공단 건축사사무소

주제기도 농상생을 위한 농산어촌 지역의 정체성과 다양성 상실에 따른 도농간의 미래 지향적 community와 場을 제안하는 것으로서, 이는 궁극적으로 농산어촌 지역민이 주체가 되어 만남의 장을 통해 교류가 형성되고, 교류를 통한 결과로 직접 지역민에게 소득으로 전달되어 도농상생으로 발전되는 것이라고 볼 때, 작품 중의 ‘Mixed - Intersection’의 경우 거래 방식을 기존의 수 · 농협을 통한 간접 거래 방식을 배제하고, 직접 도시민과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배치, 평면에서 잘 배려되었다는 것이 평상시 도시민으로 살아가면서 포구에서 느끼고 싶었던 지역적 정서가 잘 표현되었다라는 점에서 주제에 근접한 계획안이란 생각이다.

또한, 많은 작품 중에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주제의 선택에 대한 배경 및 주제의 접근 방법 등에서 간접, 공간적 배려가 편중되어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건축사제에 대한 표현이 충분치 못하고, 모든 것을 모형에 의존하는 경향인데, 모형의 한계상 각 부단면을 충분히 보여줄 수 없고, 보여진 다하더라도 작은 스케일에서 느낌이 확실치 않음에 따라 내 · 외부 공간의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기법은 Skech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학생 작품에서 참다운 표현 방법이라닌가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겹쳐진 영역 내 체험 생활 가로 조성’은 표현 기법에서 친근감을 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아쉬운 작품 중 하나인 ‘구포5일재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농산어촌과 도시의 공존 방안에서는 장날과 비장날을 구분하여 인구가 변화되는 것을 정량화하여 표현한 것까지의 과정은 참신하고 좋았으나 그것을 4개 Block으로 나누는 과정에서의 블록별 건축매스를 형성 하되 규모와 조건의 전개 과정에서 매스의 특성 및 건축 디자인 요소를 모형에 일치하게 패널 상에 명기하였더라면 좀 더 확실한 의미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다. 아무튼 참여했던 모든 학생들의 작품에서 건축학도로서의 열정과 순수함을 느껴 보는 몇 일간의 심사 과정에서 건축인으로서의 작은 행복을 느낀다.

이관직 / 비온드스페이스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번 건축문화대상 계획 부문 공모전의 도농상생 주제는 점점 더 쇠락해 지는 농촌 문제에 대하여 우리 사회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시점에서 건축계의 관심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참가작의 많은 작품은 그러한 주제의식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었지만 일부의 작품은 높은 건축적 완성도에도 불구하고 공모전 주제 내용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였다. 대부분의 참가작들이 지나친 개념적인 유희나 건축적 조형에만 급급하지 않고 폭넓은 조사와 리서치를 통해 이론적인 연구를 제시하고 그 토대 위에 건축적 제안을 하는 작업의 방식은 바람직한 경향이라고 생각한다.

몇 년 동안 건축문화대상은 주제와 당선작 선정에서 실무 건축을 하는 건축사라는 전문 집단인 건축사 협회에서 주관하는 건축 계획 공모전으로서에 비건축작가를 발굴하는 이 기회에 급속히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주제를 다루는 방향으로 노력해 왔다.

개별 작품에 있어서 몇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

‘농촌 활성화를 위한 Rural Ccovention’ 계획안은 대상지 분석과 설계 전개가 훌륭하였지만 지나친 형태 본질이 아쉬웠고 건축의 궁극적 관심의 하나인 공간이나 공간의 느낌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보여 주었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난 오늘 나부터 걸너다 - 역사적 절충지의 흔적을 이용한 점점 공간 계획안의 경우 대지와 대지 주변의 형태적 잠재력을 찾아서 건축하는 아이디어는 좋았으나 천 자체의 자원 활용과 수리적 문제점을 놓친 것이 안타깝다. ‘Context In Transition’ 작품은 생업 때문에 파괴된 바닷가를 새로운 생산, 관광 시스템으로 바꾸고 활성화 하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강한 조형으로 건축화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다만 개별의 관광하는 숙박 시설로 보이는 시설물이 아이디어에 비해 형태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었다. ‘Restoration - Lost Memory of the Coal Town’은 대지에 대한 많은 리서치를 통하여 건축적인 이 제안을 한 흥미로운 작품이었다. 특별한 건축적 기능이 없는 랜드스케이프 파사드 벽체나 긴 기숙사의 전망과 향에 대한 고려가 좀 더 숙고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겹쳐진 영역 내 생활 체험 가로 조성’ 작품은 다른 작품들과 달리 마스터 플랜의 비중을 높게 다룬 작품이다. 1차 산업의 생산 환경과 공공장을 관련하여 고려하고 방문자의 관광 환경과 연관시킴으로써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수준 높은 제안이 되었다. 건축인 조형이 과장되지 않고 도 작품이 가능하

다는것을보여준게될것이다. ‘Mixed Intersection’ 작품은섬과바다를연결하는건축적인형태를레벨과입체감, 구성적아름다움을적절하게 성취한수작이다. 더불어산의내부로연결되는산책로등의길까지고려하였다면금상첨화였을것이다. 입선에머문몇개의작품은충분한리서치와작업의밀도에도불구하고특선권에들지못한작품도있어보인다. 제한된입상작품수때문에아쉬운결과가생긴것같다. 입상권작품뿐아니라 모두열심히작업한모두에게격려를보낸다.

이종훈 / (주)천일건축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都農相生(和의네트워크)은농산어촌을살리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서작되었고모든사람이그필요성을깨닫고있는주제이다. 그노력은도시의 문화정체성회복및발전을위한시도와항상연결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농산어촌은소외되거나도시가주체가되어일방적인개발로이루어졌음을알고있다. 그러나우리의그어떤미래의젊은건축사들이농산어촌의시간과공간속에담겨져있는고유의문화를충분히이해하고도시라는그림에바탕, 배경으로서농산어촌을생각하는도시문화위주의사고방식에서완전히자유롭다할수있을것인가. 그주제에대한난해함을호소하는 일부제출예정자들의질의로시작된이공모전에어떠한작품이제출될것인가하는기대감속에는결과에대한불안한마음을떨쳐버릴수없었다. 하지만심사장의흰색의벽면을배경으로어렵게1차심사를통과한작품페널들과모형이농산어촌의아름다운정경을그려내고동승동에충회관 전시실에부는듯한농산어촌의자연의정취를담은신선한바람은그러한걱정을사라지게하였다.

심사방식은점수와다표방식을병행하고질의응답시간도가진다소복잡한절차였음에도불구하고심사위원들의의견은相生의주제에어울리게순조롭게일치되었다. 심사의주안점은물론건축디자인능력이기본이되었지만대상을골라내기위한수순으로갈수록주제에대한충분한이해및창의성있는제안이우선되었다.

제출안들은도시, 도시와농산어촌의접경지역그리고농산어촌지역에서和의네트워크를제안하였는데주요작품들의계획안특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구포5일재래시장의활성화를위한농산어촌과도시의공존방안 과’ 場을통한지역정체성의회복 은작년의「재래시장」의주제로시행된작품들과유사한경향을보여주었고 Rural+urban=ru-bß 농촌관광활성화를위한Rural convention center 계획안 은좋은디자인을보여주었으나농산어민의주체가된和의네트워크를세우기위해서는보다적극적인주제에대한접근이필요하였다고생각한다. 그중에서도비오통등의생태연못을제안한작품은친환경적계획에대한스터디가보완되어져야하며테크워의직거래장터의계획안은물류체계의하부구조서비스동선등에도많은고민을한노력의흔적이보였으면하는아쉬움이있었다.

‘반응하는대지의생태적문화인프라구축 은도시적인텍스트와농촌의텍스트를Eco stream으로연결하였으나그완성도높은디자인에도불구하고생태관련연구소및전시문화센터로써和의네트워크를구축하기에는어려움이있었다고본다.‘ 어촌을살리는和의되먹임그리계획안 은바닷가중가장정취있는랜드스케이프를인공구조물로채워버렸으며’ 인공적지형의형성을통한도농간매개체 는도시의공원에서농촌의기억을불러일으키고농촌사람들의홍보의장이되길시도하였으나그것의특징적인디자인에도불구하고도시사람들을위한그린네트워크가아닌가? 하는의구심을들게하였다.‘ 난오늘나루터를건너다 는적극적인복개천의사용을통해새로운도시와농촌의교류의방법을제시하였으나나루터와디자인어휘의근거가충분히계획안에담기지못한아쉬움이있었다.‘ 겹쳐진영역내체험생활가로조성 은농촌+어촌이겹쳐지는대부도에서도농상생을제시한많지않은마스터플랜으로회소성의잇점을얻었으나포도밭과함께어촌의활성화가단지갯벌체험과낙조의감상으로머물러아쉬움이있었다.‘ 재생- 잃어버린광촌의기억 은디자인은우수하였지만지역주민이주체가되어삶이영위될수있는보다적극적인기능의제시가필요하였다.

서해안어시장및공판장그리고주민복지문화시설을계획한 관계성의전환 은모래채취장에항구를발달시키고그지역의회복을통해지역경제문화를활성화시킬수 있다는 점에서 디자인 능력뿐만 아니라 주제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처음부터 본인의 시선을 끌어왔던 ‘Mixed - Intersection’ 바다와산의경계에여객터미널을리모델링하고직거래센터및지역커뮤니티시설을계획하여지역과도시민의교감이어루어지도록하였으며문도지역의장소성과역사성을단아하고세련된디자인을통해잘표현한계획안이였다.

뜨거운건축에대한열정과노력이공모전을통해그들의능력에대한우열로평가받은듯하다. 그러나제출된작품들은전반적으로많은가능성을보여주었으나 ‘갯벌생태체험계획안’, ‘망상(網商)의공간’, ‘Future is wonderful’, ‘테라팜시티 와’ 회복(Express way) ’등의작품들이안타깝게탈락은본상에오르지못한이유는대부분디자인은우수하였으나주제에대한설득력이부족하였거나한정된크기의판넬에자신의깊은생각을표현하는데다소어려움이있었기때문이라고생각한다.

앞으로나아가야할많은시간동안지금과같은건축에대한깊은사랑과열정을잃지않고보다검허한자세로걸치레와형식에치우지않은내실있는디자인능력을배양하여건축문화및건축사의위상을높이는데초석이되어주길기원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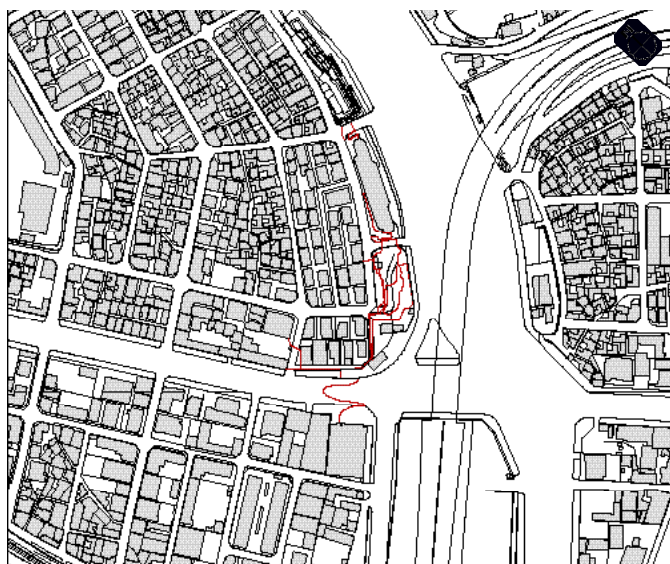
청계천 문화관

Cheonggyecheon Culture Center

설계자 (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김정철
 시공자 현대건설(주)
 건축주 서울특별시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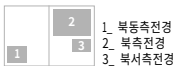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527-4, 527-15번지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대지면적 2,483.5㎡
 건축면적 1,470.04㎡
 연 면 적 5,717.4㎡
 규 모 지하 2층, 지상 4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내부마감 THK3(화강석 고운다움, 비닐타일, 수성페인트)
 외부마감 THK2(투명복층유리(sand blast), THK30마천석 혼드, 노출콘크리트)
 설계기간 2004. 02. 10 ~ 2004. 10. 30
 공사기간 2004. 05. ~ 2005. 05.



Location 527-4, 527-15, Majang-dong, Seongdong-gu, Seoul, Korea
 Site area 2,483.50㎡
 Bldg area 1,470.04㎡
 Gross floor area 5,717.47㎡
 Structure S.R.C
 Bldg. Scale B2, F4
 Design period 2004. 2. 10 ~ 2004. 10. 30
 Construction period 2004. 5 ~ 2005. 5





청계천이다 서울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그곳은 물과 바람과 꽃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서울강북의 중심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며 그 아름다운 여정을 마치는 끝자락에 청계천 복원의 정신을 담고 누구나 쉽게 찾아와 흥미로운 건축 공간, 체험과 문화 활동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청계천 문화관이 들어섬으로써 긴 여정의 마침표와 섬표가 될 것이다.

청계천의 가장 중요한 이미지는 물의 흐름이다. 이 문화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람, 즉 관람객의 움직임이다. 따라서 관람객의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공간과 동선은 청계천의 역사와 문화를 전시하는 문화관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전시를 관람하는 동선을 물 흐르듯 구성하고 그 동선 자체를 전시 공간화하며 그 공간을 건축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본 프로젝트의 목적이다.

또한 본 문화관은 박물관처럼 정적이거나 소위 우아한 분위기보다는 동적이고 다분히 대중적 성격의 전시 공간으로 해석된다.

그래서 경사로를 이용한 흐르는 전시 공간이 더 적절할 것이다.

청계천 위에 떠 흘러가는 듯한 매스와 외부 전시벽을 보며 접근한 관람객은 펄프로 물을 끌어올리듯 단숨에 옥외 에스컬레이터와 함께 전망대까지 올라간다. 그곳은 콘크리트 건물만 볼 수 있던 과거가 도로 레벨이지만 이제는 푸른 하늘과 맑은 물 그리고 저 멀리 남산을 볼 수 있다.

건물 내부로 들어오면 상설 전시가 시작된다. 좁고 긴 전시 공간에 필요하게 되는 경사로를 적극적으로 전시에도 도입하여 구성된 이곳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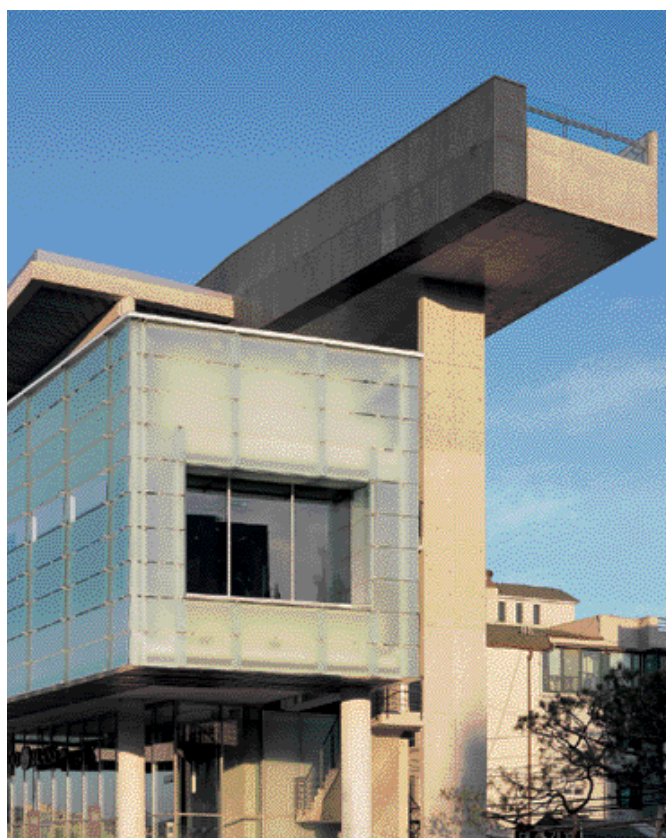


청계천의 역사와 미래를 읽으며 흘러 내려간다. 그 속엔 세미나실과 강당의 가변성 및 창을 통해 보이는 또 다른 전시물인 현재 청계천 풍경 등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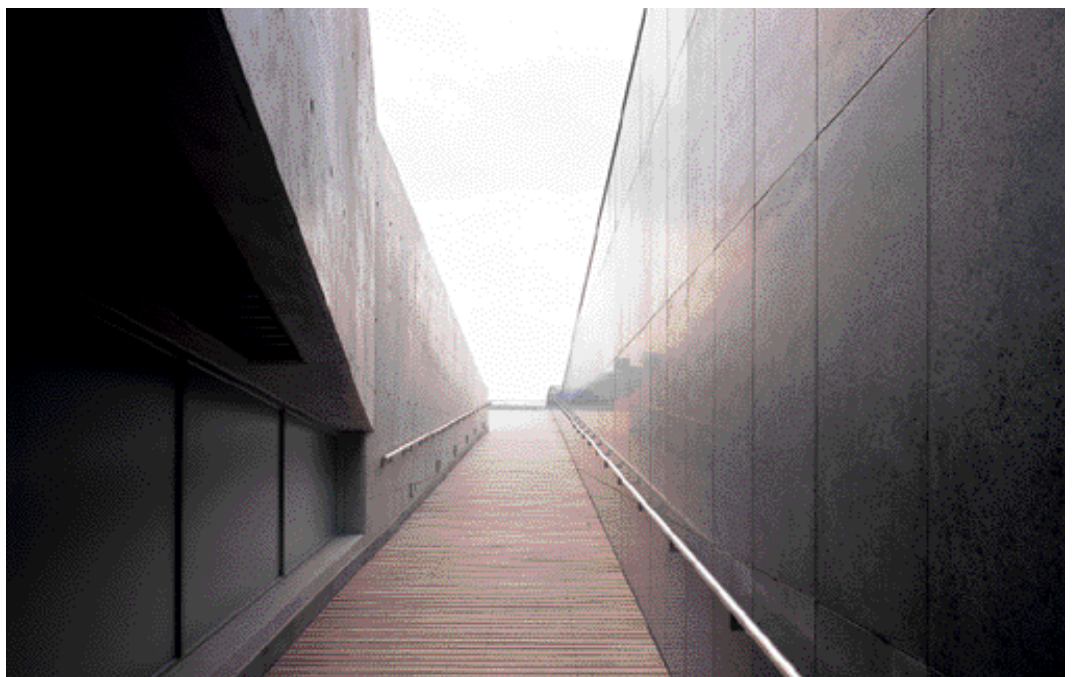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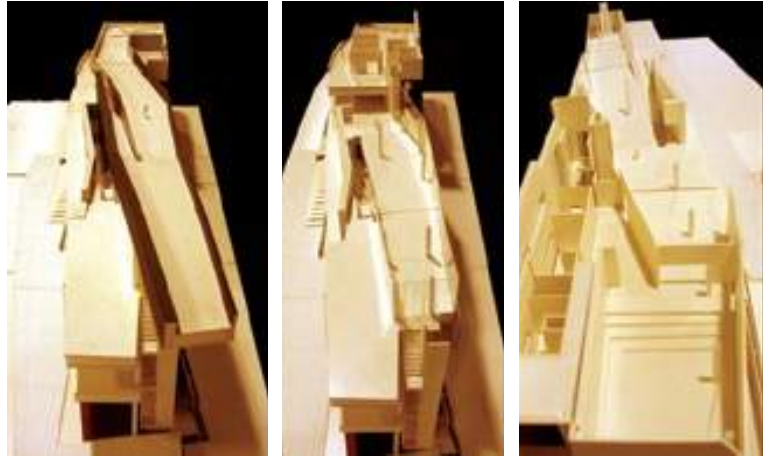
지상층에서 경사진 슬래브를 밟고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포함한 오브제는 공간을 구획하거나 전시벽이 되기도 하며 내부 공간 속의 외부 공간이 되어 상설 전시실과 상호 작용하는 요소가 된다.

흐르는 물과 같은 형태와 공간 구성, 공간을 가로지르는 또 다른 공간, 자연을 만나 외부로 확장되는 공간 그리고 비목적성과 속도...

이곳을 스쳐 지나든 올라가서 한 바퀴 돌아 내려오든 기대 이상의 경험이 될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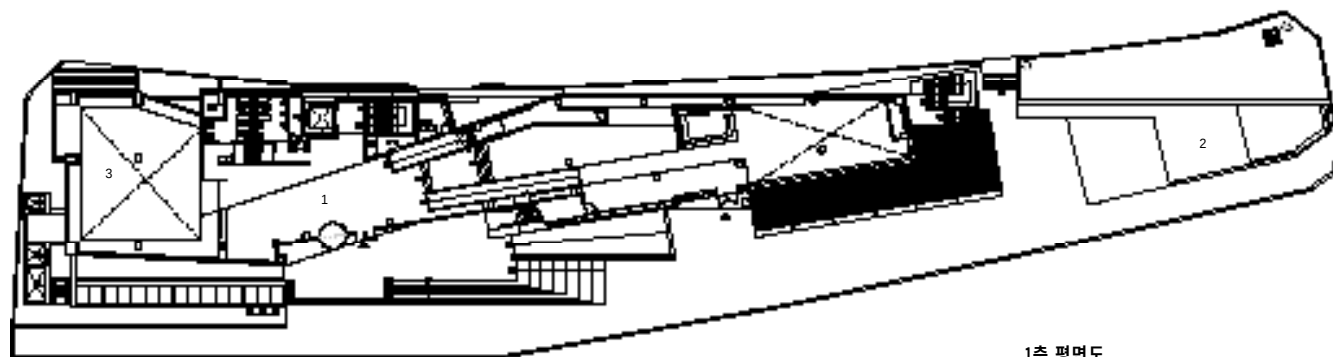


- | | |
|---|---|
| 1 | 4 |
| 2 | 5 |
| 3 | 6 |
1. 주출입구진입부전경
 2. 동측전망대
 3. 복층외부커튼월및천정
 4. 스타디움형1, 2, 3
 5. 옥상옥재테크
 6. 옥상진입부 Ram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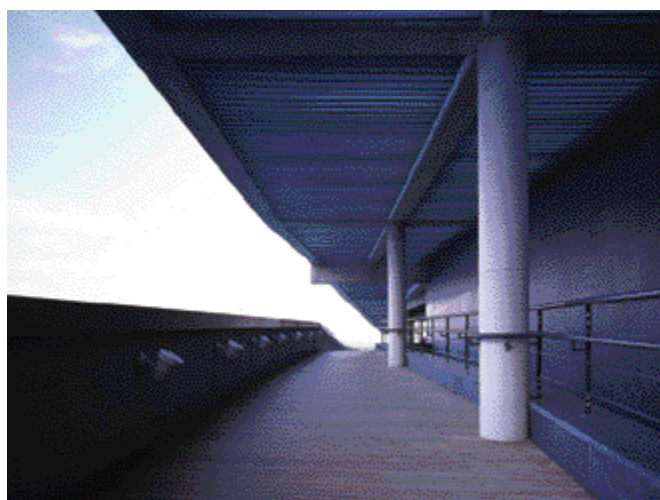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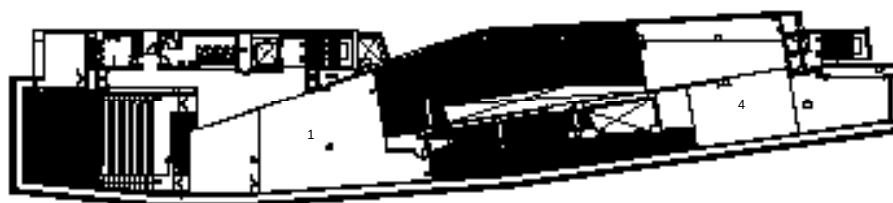
1층 평면도



- 01. 홀
- 02. 야외전시장
- 03. 전시기획실
- 04. 상설전시장
- 05. 관장실
- 06. 관리실
- 07. 옥외데크



4층 평면도



3층 평면도

1	2	4	6
3	5	7	

- 1. 북쪽더블스킨내부경관조명
- 2. 4층사무실진입부 Ramp
- 3. 옥상전망대옥외데크
- 4. 1~2층Ramp 및 Hall
- 5. 3층상설전시실 (청계천의살과문화)
- 6. 1~2층 Ramp
- 7. 2~3층Ramp 상설전시실



해송원(海松苑)

Dae Yang Shipping Training Center

(건축사자2006년 02월호게재)

설계자 (주)이래종합건축사사무소이인호
시공자 주식회사청하건설
건축주 대양상선(주)

●배치도

●건축개요



0 2 5 10 20m

대지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566-1
지역/지구 관리지역, 일부 주거개발 진흥지구
대지면적 5,768.0㎡
건축면적 1,039.1㎡
연 면 적 1,557.0㎡
건 폐 율 18.02%
용 적 륜 27.00%
규 모 지상 3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내부마감 노출콘크리트, 대리석, 패브릭, 카펫타일
외부마감 티타늄아연판(라인징크), 적삼목사이딩, 노출콘크리트
자연석
설 계 담 당 정민희, 정신애, 김민기
감 리 김형일
구조설계 두에건축구조
설비설계 (주)북성설계
전기설계 (주)대화기술사
인테리어 (주)이래종합건축사사무소, (주)중앙디자인
설 계 기간 2004. 02 ~ 2004. 10
공 사 기간 2004. 10 ~ 2005. 12



Location 566-1, Songjeong-ri, Mijo-myeon, Namhae-gun,
Gyeongsangnam-do,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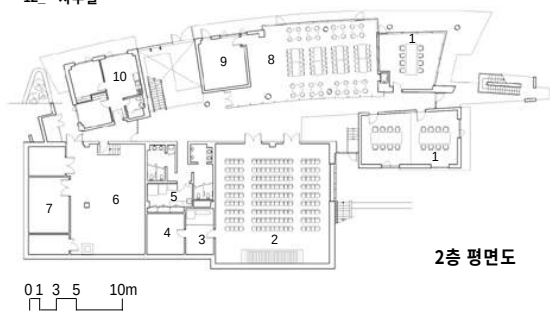
Site area 5,768.00㎡
Bldg. area 1,039.19㎡
Gross floor area 1,557.07㎡
Bldg. coverage ratio 18.02%
Gross floor ratio 27.00%
Structure R.C
Bldg. Scale F3
Design period 2004. 02 ~ 2004. 10
Construction period 2004. 10 ~ 2005. 12



1. 전경
2. 테크
3. 4.
5.



- 01 세미나실
- 02 강당
- 03 음향실
- 04 창고
- 05 세탁실
- 06 기계실
- 07 전기실
- 08 식당
- 09 주방
- 10 관리인숙소
- 11 한실
- 12 사무실



솔빛 머금은 남쪽마을...

Nohyung Tranchae

설계자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정영균
 시공자 케이티건설(주)
 건축주 대한주택공사

●배치도

●건축개요



대지위치 제주도 노형동 노형 택지개발지구내 2블럭
 지역지구 공동주택지역
 대지면적 77,757㎡
 건축면적 3,259.03㎡
 건설호수 1,068호(공공분양)
 연 면 적 132,079㎡
 용 적 률 149.62%
 규 모 지하 1층, 지상 15층
 구 조 RC
 설계담당 이종수, 박규용, 진옥주, 박명완, 강현덕



Location Nohyeong-dong, Jeju-si, Jeju-do, Korea
 Site area 77,757㎡
 Bldg area 3,259.03㎡
 Bldg coverage ratio 149.62%
 Structure RC
 Bldg. Scale B1, F15

1. 단지전경
 2. 서측근린공원에서 바라본전경



제주노형 트란채 아파트는 제주시노형동 노형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의 공공분양 아파트 단지로서, 제주시가 가지는 이국적이고 풍요로운 자연환경과 독특한 지역적 특성 및 생활환경을 고스란히 단지에 담고자 2002년 2월 현상공모를 통하여 단지 및 건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6년 1월에 준공되어 4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었다.

대지면적 23,522평, 연면적 39,952평, 세대수는 1,068호로 제주도에서는 대단위 공동주택 주거단지에 해당되는 제주노형 트란채는 제주시내 남서쪽으로 5km 지점에 입지하여 도시 중심부로의 접근이 용이하고, 대지 주변의 바다와 한라산을 잇는 수려한 경관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단지 주변으로 학교부지와 연계된 대규모의 근린공원이 단지를 가로질러 서북측 근린공원과 녹지축을 형성하는데, 이는 지구 내 노거수, 곰솔군락 및 어린이공원 등의 풍부한 보존녹지와 어우러져 단지의 부공간이 하나의 훌륭한 생태공원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는 입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평형배분은 전용면적 75㎡와 84㎡의 비율을 35:65 비율로 배분하고, 다양한 거주인들의 라이프스타일과 지역적 특성화를 고려한 다양한 평면을 구성하였으며 주변의 중저층의 기존 주거지 및 자연경관에 의해 15층 이하, 평균 12층의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으로 변화한 단지를 구성하였다.

제주노형 트란채 아파트는 생태환경적인 입지적 특성과 더불어 제

주도의 지역적 특성과 전통적인 풍습, 그리고 수려한 제주경관을 담을 수 있는 “자연과 전통이 함께 살아 숨쉬는 환경친화 도시마을”이라는 테마로 하여 단지를 구상하였으며, 친환경적이면서 토착적인 제주문화가 단지 곳곳에 배어져 나온다. 또한, 대단위 공동주택 단지의 임을 감안하여 기존의 도시기능 및 주민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주민 커뮤니티 중심의 단지, 미래의 정보통신에 대응하는 한편 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한 미래지향적이면서 환경과 적절히 조화되는 공동주택의 모델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단지 구성 및 건축계획 하나하나에 세심한 계획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환경친화 도시마을”의 구현을 위한 환경친화적 장치로서 단지 내 보호수림과 연계하여 근린공원을 연결하는 녹지 및 생태체계 등에 순응하는 그린 네트워크에 따른 보행공간을 마련하고, 원지형 보존을 위하여 단지 내 경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주동과 연결된 포켓식 주차공간을 마련하여 부지 내의 절, 성토의 균형을 최대한 유지하여 시공성과 경비절감의 효과 극대화하였다.

기존의 자연수림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 자연지반을 높이고 마두천(습지)과 근린공원의 자연녹지축을 생태적으로 연결하는 단지 내 보행산책로를 조성하였다. 단지 내에서는 실개천을 계획하여 주민들이 어울려 생활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 실개천은 자연생태적인 자연습지인 마두천과 연계하여 자연생태적인 실개천을 계획하여 인근 학교 학생들의 생태학습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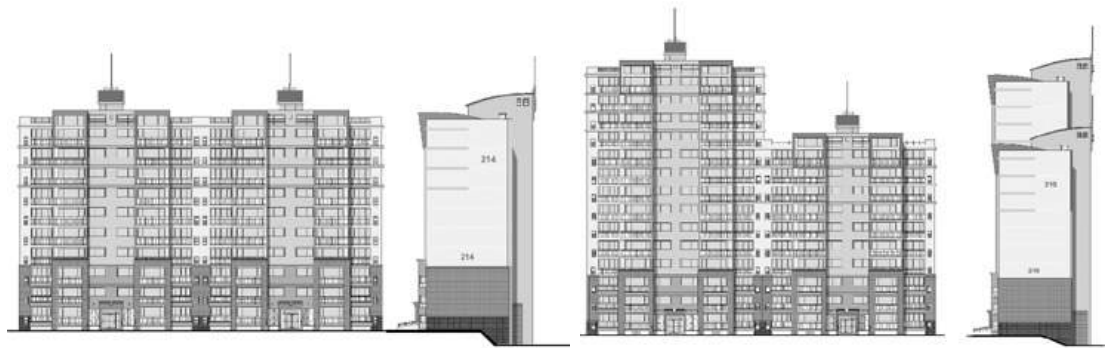
실개천은 환경친화적이면서 설치비용 및 유지관리상 에너지 절감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여러 전문가들이 계획과정에서부터 참여하였으며, 생활하수를 이용한 실개천으로 계획하였다. 이는 상류부근의 일부 주거동에서 수집된 생활하수를 수거하여 저수조와 연결하여 필요시 실개천으로 방류하는 시스템으로 실개천 사용수의 처리는 기존의 우수라인을 이용함으로써 설비비용을 절감하고 유지관리비의 절감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친화장치와 동시에 에너지 절감장치들이 단지 곳곳에 담겨져 있는데, 단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단지 내 가로등과 복지관, 상가 및 경비실 등이다. 이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태양열 발전, 태양열 급탕 및 집열판 등인데, 단지 내 가로등에 집열판을 설치하여 낮에 태양열을 축적해 놓고 밤에 조명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복지관의 지붕 또한 집열판을 설치하여 공용시설의 급탕 및 여러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 주민들의 불만족 1순위인 층간 소음의 방지대책으로서 기존의 경량기포콘크리트 층과 시멘트 몰탈로만 이루어진 바닥 마감층을 개선하여 경량기포 콘크리트 층에 방진 고무, 무기섬유류 및 발포 폴리스틸렌류 등의 차음재를 이용하여 차음층을 두어 시공하였다.

이 이외에도 기존 도시기능 및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지역특성화 단지구현을 위한 지역친화적 장치로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지는 단지의 특성에 맞게 최대한 조망을 고려하여 단지를 구성하였고, 제주의 토착적인 지역특성에 부합하도록 전통적인 제주 마을의 주거동 남측 진입형의 코어를 개발하여 1층 세대의 경우 접지성이 강한 단독주택형의 평면을 계획하였다. 이는 제주도의 주거 진입이 전통적으로 남측으로 진입하게 되어 있으며 이는 오늘날까지 제주도의 특성으로 자리잡아 있어서 보편화된 북측 진입형의 주거동을 적용하는 대신 제주도의 주거문화 또는 지역적 특성에 맞추고자 적극적으로 코어 및 평면개발을 한 흔적이 엿보인다. 또한 건축자재뿐 아니라 단지 외부 공간의 조경수를 포함한 포장석까지도 제주 지역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는 자연석 및 조경수를 적용하고 건축외장재에도 점토 벽돌 및 송이 벽돌 등 자연친화적인 자재를 적극 활용하였다. 또한, 단지 외부 공간의 보행로를 “하르방장가가는 날”이라는 테마로 하여 외부 공간별 제주도의 결혼풍속을 담은 테마보행산책로를 계획하여 조형물 하나하나에도 테마에 부합되는 디자인을 적용하여 단지 내에 제주 전통의 결혼이야기가 있는 흥미로운 산책로를 구성하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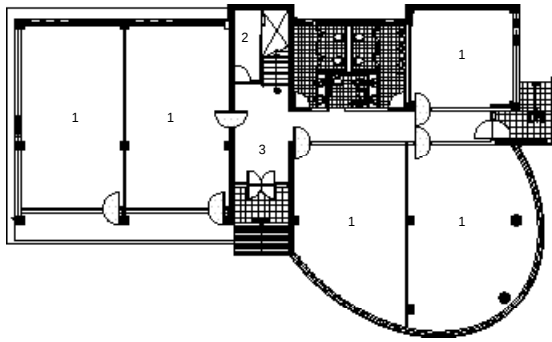
- | | |
|---|---|
| 1 | 2 |
| 3 | |
- 1. 북측전경부분
 - 2. 중앙광장(올레마당)
 - 3. 단지내부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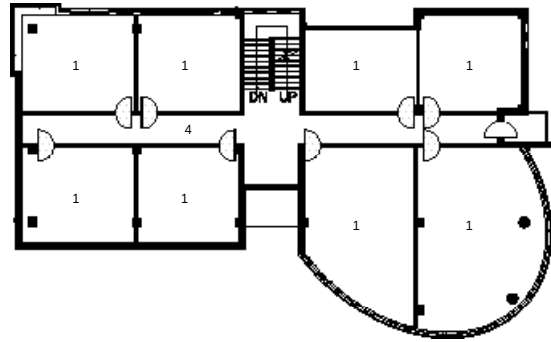
입면 Rad zone

입면 Green z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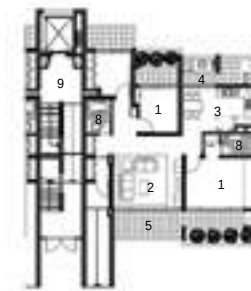
근린생활시설 1층평면도



근린생활시설 2층평면도

- | | |
|---|---|
| 1 | 2 |
|---|---|
1. 자연생태형설내전
2. 복지관전경

- 01_ 근린생활시설
02_ 창고
03_ 홀
04_ 복도



74㎡형 접지층 평면도





오름 : 묵방리 주택

Ascend : Mookbangri Residence

(건축사자2006년 06월호게재)

설계자 건축사사무소O.C.A 임재용
시공자 우성희
건축주 우성희

●배치도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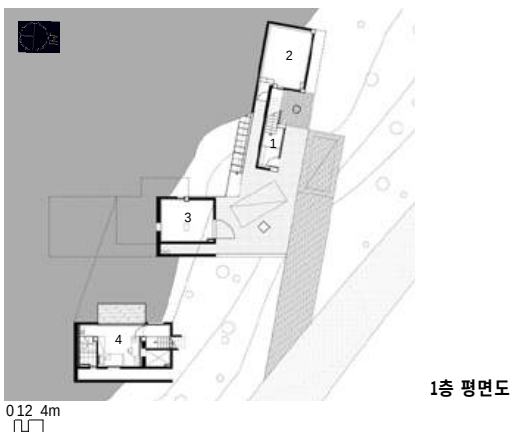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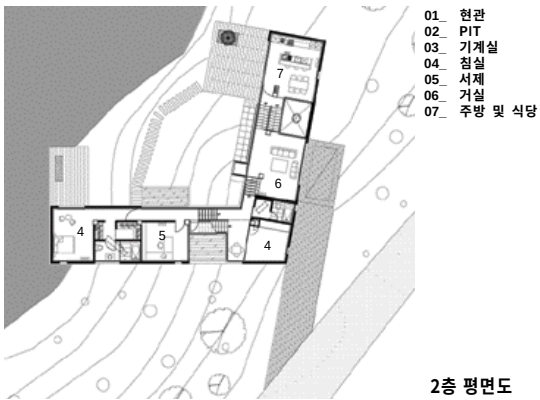


대지위치	충청북도 청원군 묵방리 284-4, 산21-10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주요용도	단독주택
대지면적	1,586㎡
건축면적	194.09㎡
연 면 적	251.1㎡
건 폐 율	12.24%
용 적 율	13.6%
규 모	지하 1층, 지상 2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내부마감	석고보드위 수성페인트, 자작나무 합판위 투명락카, 송판무늬 노출콘크리트
외부마감	송판무늬 노출콘크리트, T24 투명복층유리, 적삼목
설계담당	최혜진(project designer), 서형준
구조설계	중앙구조
설비설계	(주)나우설비기술
전기설계	(주)지성설계컨설팅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촬영 : 김종오)
설계기간	2004. 5~10
공사기간	2004. 11~2005. 7



Location	284-4, Mukbang-ri, Naesu-eup, Cheongwon-gun, Chungcheongbuk-do, Korea
Site area	1,586㎡
Bldg area	194.09㎡
Gross floor area	251.1㎡
Bldg. coverage ratio	12.24%
Gross floor ratio	15.90%
Structure	R.C
Bldg. Scale	B1, F2
Design period	2004. 5~10
Construction period	2004. 11~2005.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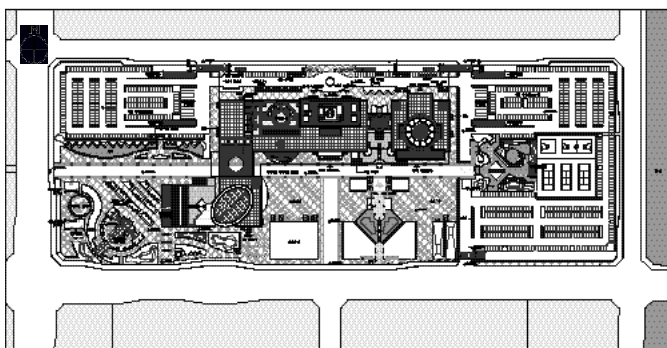
전라북도 도청 및 의회청사

Jeonbuk Provincial Office & Conference

설계자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우양근
 시공자 금호산업(주)
 건축주 전라북도

●배치도

●건축개요



대지위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부 신시가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공공의 청사부지
 대지면적 103,387.0㎡
 건축면적 14,884.55㎡
 연 면 적 85,316.97㎡
 건 폐 율 14.40%
 용 적 률 57.40%
 규 모 지하 2층, 지상 18층
 용 도 공공업무시설
 구 조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주차대수 1,224대
 외장재료 두께 2.2 칼라알루미늄 덤핑보드
 두께 30 포천석 물갈기, 버너구이
 내장재료 두께 24 황등석 물갈기
 설계기간 1997. 12. 29 ~ 2000. 12. 27
 시공기간 2001. 10 ~ 2005. 6



Location Wansan-gu, Jeonju-si, Jeollabuk-do, Korea
 Site area 103,387.0㎡
 Bldg area 14,884.55㎡
 Gross floor area 85,316.97㎡
 Bldg coverage ratio 14.40%
 Gross floor ratio 57.40%
 Structure SRC
 Bldg. Scale B2, F18
 Design period 1997. 12. 29 ~ 2000. 12. 27
 Bldg. Scale 2001. 10 ~ 2005. 6



1. 남측전경
 2. 남측에서 바라본 도청사동 및 의회동
 3. 남동쪽에서 바라본 도청사동 및 대강당동

민주화시대의 관공서 건물은 공무원의 업무효율을 위한 공간제시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열린 공간을 제공하여 모든 사람이 정부의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건물이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전북도청사 건물은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공간제시를 넘어 도민들이 민주적으로 도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열린 마당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국민참여시대의 청사로서 공공성과 개방성을 강조하는 한편 급격하게 변하는 행정업무를 담을 수 있기 위한 공간의 탄력성을 갖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배치의 초점은 도민들을 향해 열려있는 도민광장과 상징광장을 마련하였으며 도청사와도 의회 그리고 도민홀은 이 광장의 주변부에 배치하여 광장과 밀접한 연계를 갖도록 하였다. 건물의 평면은 통합적인 체계 내에서 기능별로 분리되어 있고 공간의 탄력성과 확장성이 보장되어 있다. 건물의 형태는 첨단 공공건물로서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는 한편 청사가 위치하는 전주의 전통적인 모티브를 적극적으로 차용하여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모습을 구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공간

구성요소 역시 백제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전통요소들을 형상화하여 형태요소와 통합된 이미지를 창조해 내기 위해 노력했다.



개념

전주는 옛전라감영터이며 전통생활문화도시로 성장해왔기에 옛 것이 베어있는 미래지향적인 건물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도민의 화합의장으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개방을 강조하였고, 의회와 도민홀, 도청사 각각 기능의 개별성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조형요소로 연결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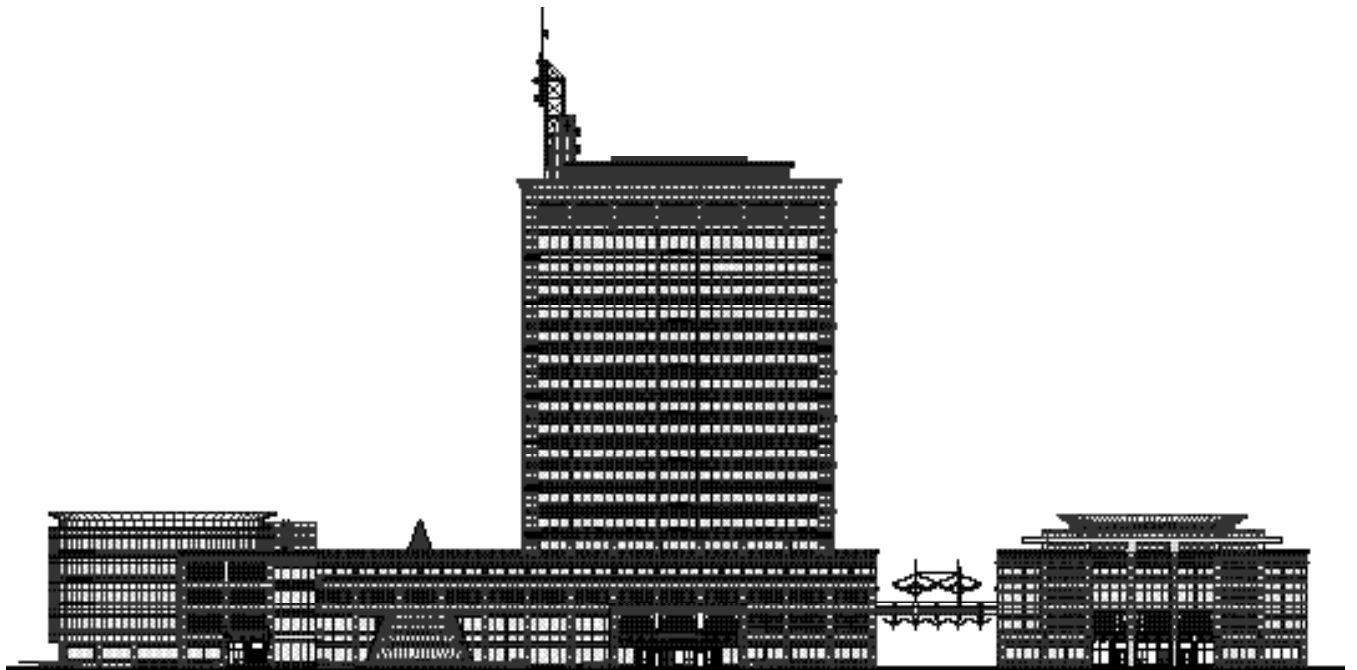
대지는 고저차가 거의 없는 장방형으로 4면이 도로로 구획되어 있어 전체 건물의 배치를 “ - ”자를 약간 변형시킨 “ㄱ”자 형태로 배치하여 열린 공간에 대한 토지이용의 극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건물을 전주 서부 신시가지의 남북의 중심축 및 도시축에 놓이게 배치하여 신시가지의 랜드마크가 되게 하였다. 또한 대지의 4면을 모두 개방하고 동서 축선상에 긴 보행로를 두어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여 폐쇄적인 느낌보다는

열린 청사로써의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건물조형

도민홀의 타원매스는 사각의 매스를 꺼안고 있고, 의회동의 사각의 매스는 상부에 강한 상징성의 원을 이고 있다. 청사동은 업무시설의 성격에 맞게 박스 형태로, 상부 HI-RISE 부분을 통하여 하부의 수평성이 강조되게 하여 단조로움을 피하고 청사로써의 상징성을 주고자 하였다. 그리고 각각 분절된 동들을 입체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대강당과 청사동 사이에 판형의 지붕을 두어 하나의 이미지로 통합하였다. 전체적으로 다른 세동의 건물을 동일한 재료의 사용과 창호 형태의 반복 사용, 유사하게 형태를 증식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통일감을 기하였고 창호면에 한국전통의 격자창살 문양을 형상화하여 전통적 이미지를 현대화 시켰으며, 각 동을 연결하는 연결통로로는 채워진 것보다 여백을 강조하여 입면의 조화를 부각시켰다. ■





- | | | |
|---|---|---|
| 1 | 2 | 3 |
|---|---|---|
1. 남서측에서 바라본 전경
 2. 의회동 주 출입구
 3. 도민광장에서 바라본 연결브릿지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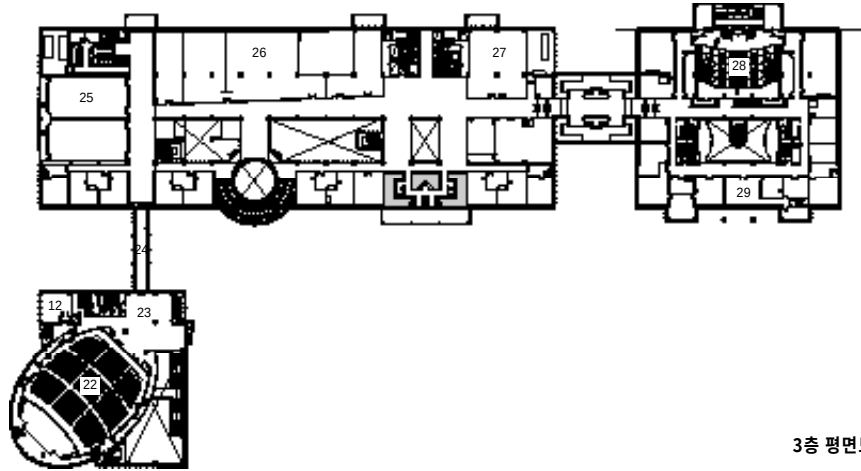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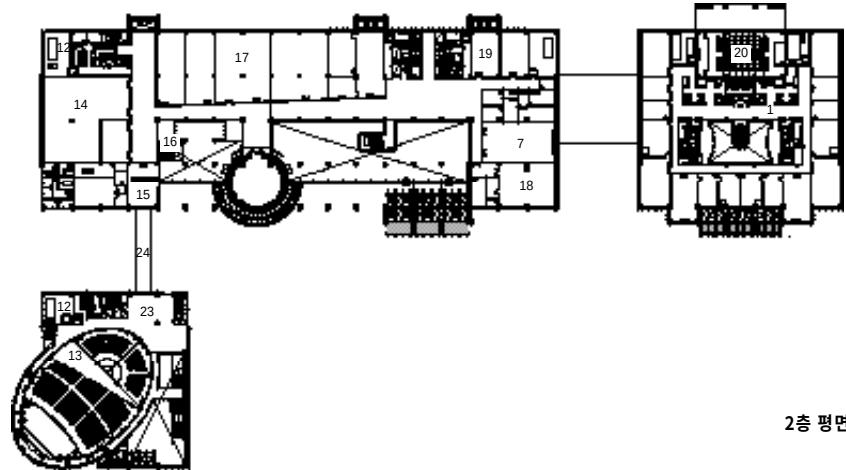


6~18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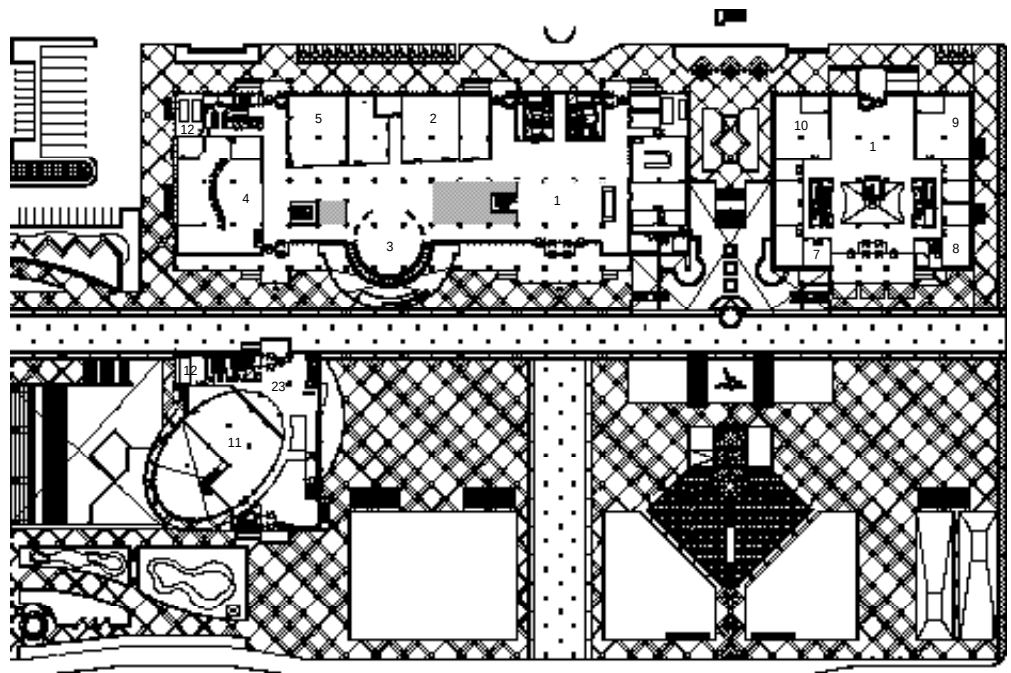
- 01. 로비
- 02. 기획전시실
- 03. 도정홍보전시관
- 04. 민원대기실
- 05. 농협
- 06. 여권발급실
- 07. 기자회견장
- 08. 열린도민의방
- 09. 의사담당관실
- 10. 총무담당관실
- 11. 연금매장
- 12. 공조실
- 13. 세미나실
- 14. 예비실
- 15. 고시계
- 16. 영상정보센터
- 17. 행정자료열람실
- 18. 정보사무실
- 19. 기자실
- 20. 의원총회의실
- 21. 위원회
- 22. 대강당
- 23. 홀
- 24. 연결통로
- 25. 회의실
- 26. 제정과
- 27. 기획관리실
- 28. 본회의장
- 29. 의정실
- 30. 사무실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1	4
2	5
3	

- 1. 도정사출전경관미술장식품
- 2. 대강당오름계단
- 3. 도의회본회의장
- 4. 2층에서바라본open 홀
- 5. 홀에서바라본천장및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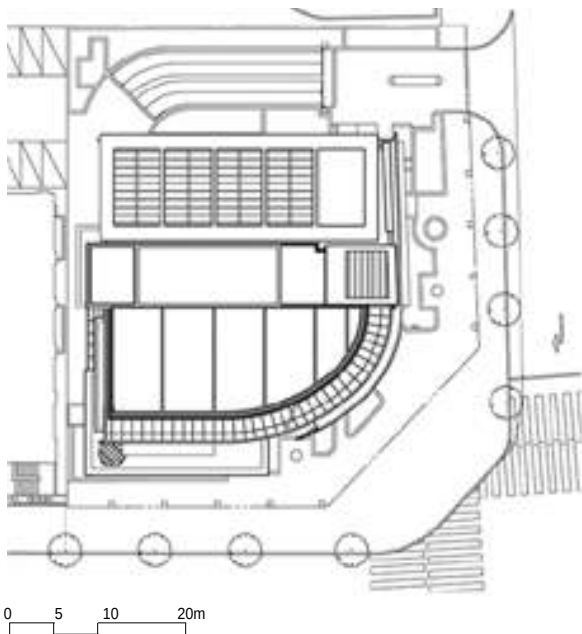
(주)하이마트 사옥

Hi-Mart Headquater Building

설계자 (주)엠앤디종합건축사사무소이관표
 시공자 지에스건설(주)
 건축주 (주)하이마트

●배치도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509번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주구중심)
 용도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대지면적 2,383.8㎡
 건축면적 1,180.60㎡
 연면적 15,188.54㎡
 건폐율 49.53%
 용적률 298.18%
 규모 지하 4층, 지상 8층
 외부마감 THK3 알루미늄쉬트, THK24 복층유리, THK12 강화유리
 주차대수 112대



Location 59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Site area 2,383.8㎡
 Bldg area 1,180.60㎡
 Gross floor area 15,188.54㎡
 Bldg coverage ratio 49.53%
 Gross floor ratio 298.18%
 Structure SRC
 Bldg. Scale B4, F8



1. 북측원경
 2. 북서측전경



전자제품의 양판으로 잘 알려진 하이마트사가 늘어난 사세의 수용과 기업 이미지 고양을 위해 대치동에서 새 사옥 부지를 마련하고 지명 현상설계를 통해 계획안을 공모하였다. 30명의 하이마트 임직원이 참여한 심사결과 우리의 계획안이 선택되었다.

계획안을 만들며 우리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사옥으로서의 상징성 표현이었고, 그것이 매스나 표피에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 공간에도 표출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우선 남부순환도로와 삼성로에 면해 있는 정방형 대지에 건물을 앉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변형된 센터 core 형식을 적

용하여 배치함으로서 북측 대치공원과 서측 가로변으로 전망이 트인 곳에 적절한 깊이의 사무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core 후면 남측면에 사옥의 상징 공간 역할을 할 수 있는 대공간(Atrium)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사옥의 상징 공간인 Atrium은 천정고가 28m에 달하는 큰 공간으로 건물 내 모든 사용자 움직임이 이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평면을 구성해 사용자와 분리되어 활력을 잃은 형식적인 대공간이 아닌 일상 생활 속에서 늘 접촉할 수 있는 생기 있고 건강한 공간이 되어 사용자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곳에서 송년 모임 같



- | | | | | |
|---|---|---|---|---|
| 1 | 2 | 3 | 4 | 5 |
|---|---|---|---|---|
- 1. 북서측아경
 - 2. 남서측전경
 - 3. 남측전경
 - 4. 아트리움 내부아경
 - 5. 아트리움



은전사원을위한집회공간이되는것을기대하였고 Atrium을관통하는전망엘리베이터는
이용자들에게 지하선큰, 휴게실, Atrium, 옥상정원을 순차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변
화감있는시각적즐거움을제공하도록하였다.

도시에서광장이나공원같은비워진곳이건조하고단조로운도시생활에활력소가되듯이
개개의 건축물 내부에서도 비워지고 용도가 지정되지 않아 사용자의 다양한 활동을 담을 수
있는여분의공간이필요하다. 이 건물에는Atrium 상부 Mass를들어내고, 비워2개층규모
의옥상정원을만들어서원들이햇살과바람을느끼거나소규모의모임등을할수있는곳이
되도록하였다. 그리고이곳이외관상으로도시각적깊이와공간감을어낼수있도록캐노
피, 전망대등의입면장치를끼워넣어서외관의공간비례조절요소로사용하였다.

외관에서의 사옥의 상징성은수직을 강조한 커튼월면과 수평을 강조한 커튼월면이2개의
켜를이루도록서로감싸안은듯교차시켜기업과소비자모두의이익추구라는하이마트사의
기업가치관이나타나도록표현하였다. 건물의 Skin은 전자제품유통전문으로하는기업이
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현대적인 느낌이 나는 맑은 유리를 주재료로 하는 커튼월을 사용하였
다. 그림으로써건물내외부간의시야교환이이루어지는투명성을확보할수있었다.

삼성로에면한서측 사무공간에는오후의 낮은 일사를 차단하고자 커튼월외부에 알루미늄
판칭메탈수직루버를설치하였는데일사차단뿐만아니라햇빛의각도에따라변화하는수직루
버의반짝임과음영의깊이로인해건물의형상이더욱풍부해지는효과도얻을수있었다. 圖

- 01. 상업시설
- 02. 홍보전시실
- 03. 전시장
- 04. 직원식당
- 05. 휴게실
- 06. 사무실
- 07. 임원실
- 08. 회의실



3~6층 평면도



8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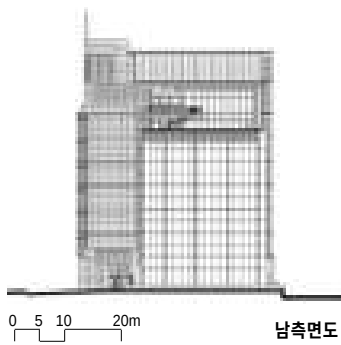
0 5 10 20m

1층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 | | | |
|---|---|---|
| 1 | 2 | 4 |
| | 3 | 5 |
| | | 6 |
1. 옥상정원누드엘리베이터
 2. 옥상정원
 3. 지하선큰
 4. 오피스복도에서의조망
 5. 옥상정원에서조망
 6. 지하직원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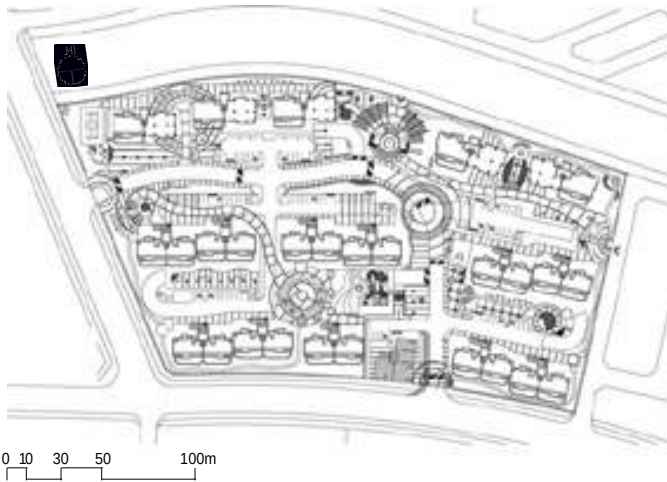
노은 리슈빌Ⅱ

Noeun Richeville II

설계자 (주)종합건축사사무소창건축이의구
 시공자 계룡건설산업(주)
 건축주 계룡건설산업(주)

●배치도

●건축개요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978
 지역지구 택지개발지구
 대지면적 38,158.30㎡
 건축면적 6,489.262㎡
 연 면 적 123,222.312㎡
 건 폐 율 17.00%
 용 적 률 219.69%
 규 모 지하 2층, 지상 12~25층, 561세대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설계기간 2002. 04 ~ 09
 공사기간 2002. 09 ~ 2005. 11



Location 978, Jijok-dong, Yuseong-gu, Daejeon-si, Korea
 Site area 38,158.30㎡
 Bldg area 6,489.262㎡
 Gross floor area 123,222.312㎡
 Bldg coverage ratio 17.00%
 Gross floor ratio 219.69%
 Structure SRC
 Bldg. Scale B2, F12~25
 Design period 2002. 04 ~ 09
 Bldg. Scale 2002. 09 ~ 2005. 11





대전서부권에위치한본사업지는노은택지개발지구중심에위치하여주거단지로서훌륭한잠재력과자연적입지조건을가지고있다.

처음사업지 조사를시작하면서부터부지에 인접한천혜의자연인반석천을 어떠한 방법으로 단지내로 끌어들어서 융화시키고 더불어입주민들이자연환경과같이호흡할수있게만들수있느냐것이입주민의삶의질을결정하는가장중요한키포인트라고생각하였다.

우선적으로 천변 뿐만아니라 단지의 많은 곳에서 물과 쉽게 접하면서 또한 수변을 바라보고 느끼게 하기 위해 천변에 탑상형 주동을 배치하고 1층은 필로티 마당으로 만들어 개방된 경관을 제공하였으며 하천과 연계한 바닥분수, 테마형 놀이마당 등 다양한 환경친화적인외부공간들이단지를순환하는건강산책로등으로유기적으로연결될수있는보행네트워크를구성하였다.

다음으로중요하게고려한건축개념은주변의입지적맥락에대응하여건축물들이어떻게조화롭게어우러질수있느냐는것이였다.

우선동서방향으로긴대지의기본통경축과중앙의동선축을설정하고커뮤니티광장을중심으로대지의자연곡선형을따라리듬있게 흘러가는단지를구성하였으며일조와전망이최대한확보되는주동배치와각동의분절과스카인라인변화를통하여여름철과겨울철의계절풍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바람길이 형성되도록 함으로서 지역 사회로의개방성과도심내조형적상징성이확보되도록하였다.

부대시설또한보행자의접근성과이용성을높이기위해커뮤니티광장중앙에배치하였으며하천을배경으로펼쳐지는방사형태로디자인하여 단지내의 다양한 조형물들과 더불어 입주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한주거공간으로서귀속감을느낄수있도록하였다. ■



- 1. 부출입구
- 2. 전경
- 3. 야경

- 4. Rainbow Plaza
- 5. 후경
- 6. 광장센터
- 7. 필로더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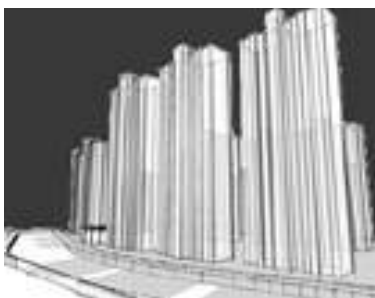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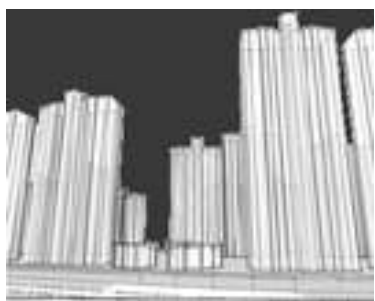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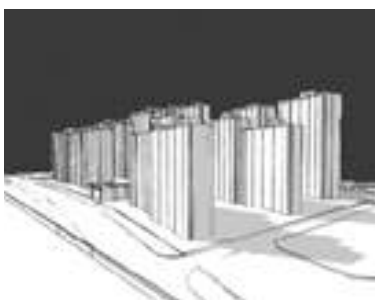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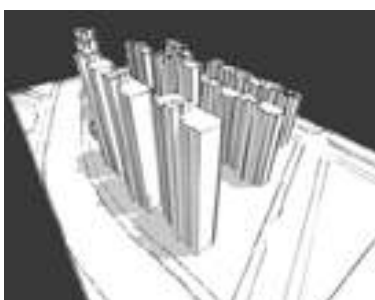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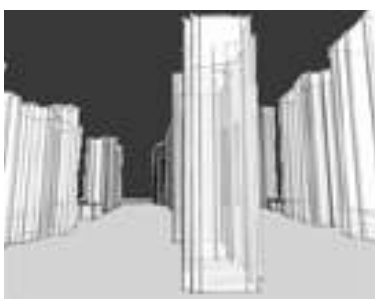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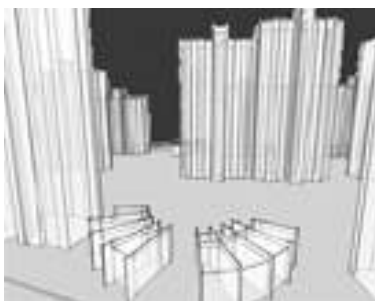






- 1. Community Plaza
- 2. 1층 전용데크
- 3. Breeze Plaza
- 4. 두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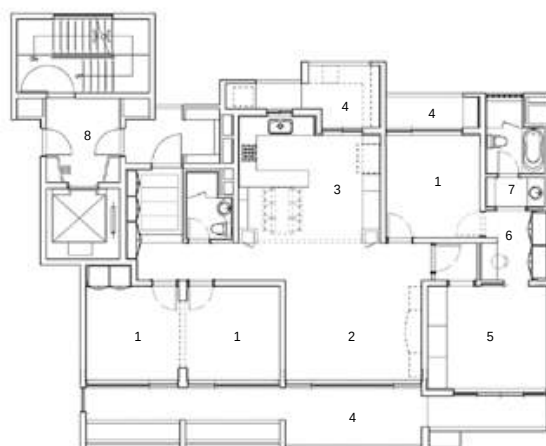




- 01 침실
- 02 거실
- 03 부엌
- 04 발코니
- 05 주인침실
- 06 드레스룸
- 07 욕실
- 08 엘리베이터



39평형 평면도



49평형 평면도



57평형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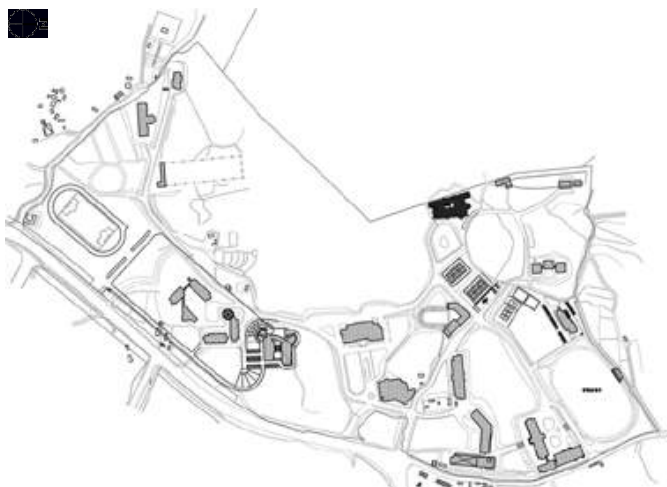
0 1 3 5 10m

동신대학교 기숙사

Dormitory of Dong-Shin University

설계자 (주)포유건축사사무소박홍근
 시공자 송촌종합건설(주)
 건축주 학교법인해인학원

●배치도



●건축개요

대지위치 전라남도 나주시 대호동 25번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학교시설지구
 대지면적 543,004.00㎡
 건축면적 2,778.90㎡
 연 면 적 12,884.77㎡
 건 폐 율 5.57%
 용 적 률 19.07%
 규 모 지상 10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
 내부마감 데코타일, 비닐타일, 본타일페인트, 벽지
 외부마감 고령토벽돌치장쌓기- (주)삼한C1, 노출콘크리트
 THK16명복층유리, 외단열시스템
 설계기간 2002. 12 ~ 2003. 08
 공사기간 2003. 09 ~ 2004. 12



Location Dongshin Univ, Daeho-dong, Naju-si, Jeollanam-do, Korea
 Site area 543,004.00㎡
 Bldg area 2,778.90㎡
 Gross floor area 12,884.77㎡
 Bldg coverage ratio 5.57%
 Gross floor ratio 19.07%
 Structure SRC
 Bldg. Scale F10
 Design period 2002. 12 ~ 2003. 08
 Bldg. Scale 2003. 09 ~ 2004. 12



1. 기숙사복측에서본전경
 2. 연꽃진입로에서본전경



동신대학교는 나주 금성산 동남쪽 자락에 넓게 자리잡고 있으며, 기숙사가 놓여지게 되는 장소는 캠퍼스 깊숙한 곳의 아주 포근함을 간직한 터다. 전면인 동쪽만 확 트이고, 그 밖의 방위들은 낮은 산으로 둘러싸여있다.

부지보다 4.2m 낮은 전면은 연못주변으로 캠퍼스에서 가장 산책하기 좋은 장소이기도 하다. 물, 나무, 꽃, 새들이 노닐고 있고, 가끔 사람들이 동참하여 즐기기를 위해 거닐기도 하는 곳이었다.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날로 늘어나야 하지만, 그러나 모든 여건에는 한계가 있다. 수용인원 800명, 남녀학생비율에 따른 사생실의 가변적 활용, 연면적 및 예산의 한계, 넓은 캠퍼스지만 후면의 도시계획시설한계선과 훼손하기 싫은 좌우산능선, 전후면의 좁은 폭, 전면의 4.2m 단차이와 그대로 남겨야 하는 매력적인 연못 주변 산책로, 등등....

건축한계선과 좌우 자연지형의 경계를 사이에 두고, 정사각형의 덩어리를 길게, 짧게 분절하고 일부 덩어리의 각도를 약간 휘게 하면서 큰 틀의 배치했다. 단차이가 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휴으로 묻히는 공용시설(식당, 휴게실, 세탁실, 운동실, 사무실, 컴퓨터실, 설비제실 등)들을 썬크인 있는 면에 배치하고, 연못 주변에 식당과 휴게공간을 설치하여 산책로에 가까이 하도록 했다. 이런 공간들은 상부 기숙사동의 기반 역할을 하도록 했다.

남여동의 구분은 자리배치에 있어서 “男左女右”의 전통사상에 준했다(일부반대의견도 있음). 금성산을 등지고 부지에서 연못을 가로질러 캠퍼스를 바라볼때 오른쪽에는 여자 기숙사동, 왼쪽에는 남자

기숙사동을 배치하면서 연못과 캠퍼스를 끼안은 배치 및 건물 형국이 되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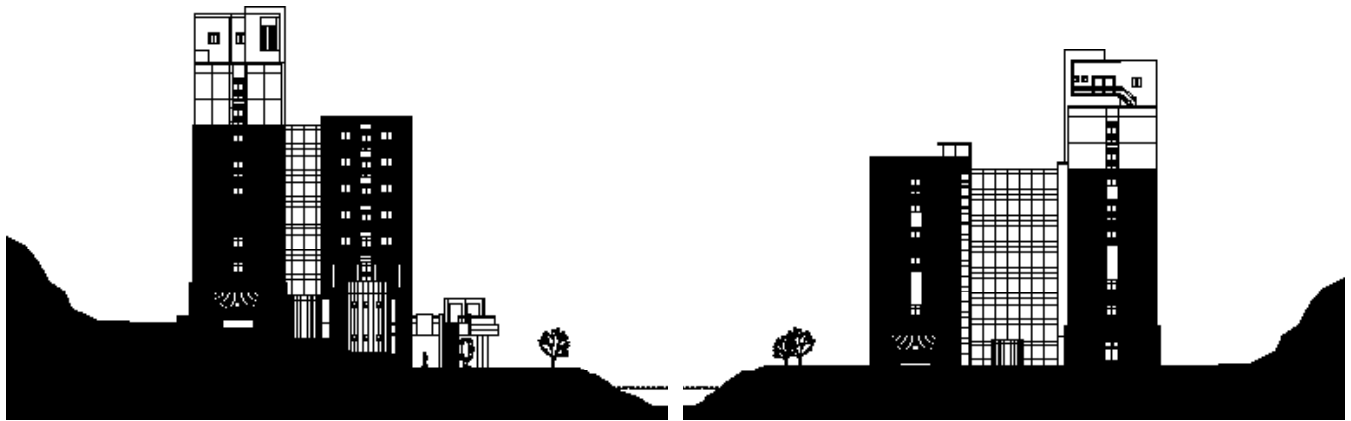
공용시설 상부의 2층 광장은 뒷산과 연결되는 필로티와 계단식화단으로 만들어진 난간은 통해 자연과 건물이 일체화되면서 시각적인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곳에서 출입구를 각각 달리 하여 남녀학생들의 동선은 완전히 구분된다. 그러나 항상 마주하기도 한다. (천하대장군지하여장군 처럼...)

한정된 장소와 경제적인 예산에 부응하면서 요구된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서 중복도형의 실배치가 불가피 했다. 이런 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숨구멍인 오픈공간을 많이 두어 환기나 빛의 유입량을 극대화했고, 쾌적한 공간이 되도록 시도했다.

남여학생수의 변화에 따른 수용인원의 융통성 확보를 위해서 지상부의 4개 층을 연결하고, 학생구성비에 따라 내부에서 구획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러 조건 때문에 10층 규모가 되어 교내에서 기숙사를 바라 볼때 한편 크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매스의 분절, 공간의 트임과 막힘, 폭의 길고 짧음, 층고의 높고 낮음, 디테일, 포인트 칼라, 수목의 적절한 배치 등을 통해, 24시간 생활하는 학생들이 이 장소와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끼면서도 다양한 공간 체험이 가능하였으면 한다.

한정된 장소와 공간이지만 조물주가 만든 물, 나무, 꽃, 새들이 노닐고 있는 곳에, 인간이 끼어 넣은 구조물이 학생들의 삶을 통해 어림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좌측면도

우측면도



- | | | |
|---|---|---|
| 1 | 2 | 5 |
| 3 | 4 | |
1. 오부계단과남자기숙사동
 2. 기숙사남측에서본전경
 3. 남학생기숙사동과신관
 4. 필로터와계단식화단
 5. 중앙마당에서본여자기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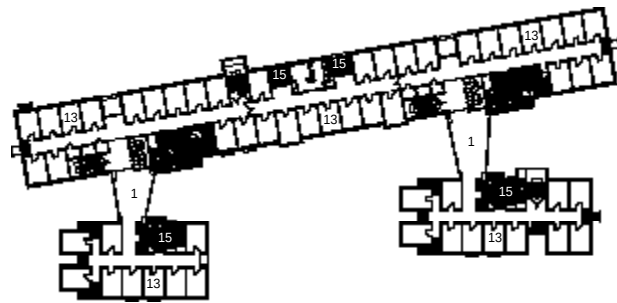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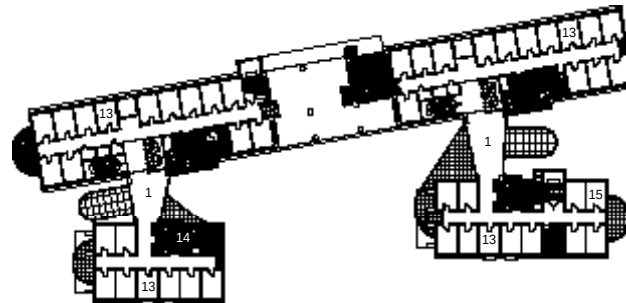


- | | |
|---|-----------------|
| 1 | 중복도형실배치의채광시스템 |
| 2 | 선근과중앙마당으로올라가는계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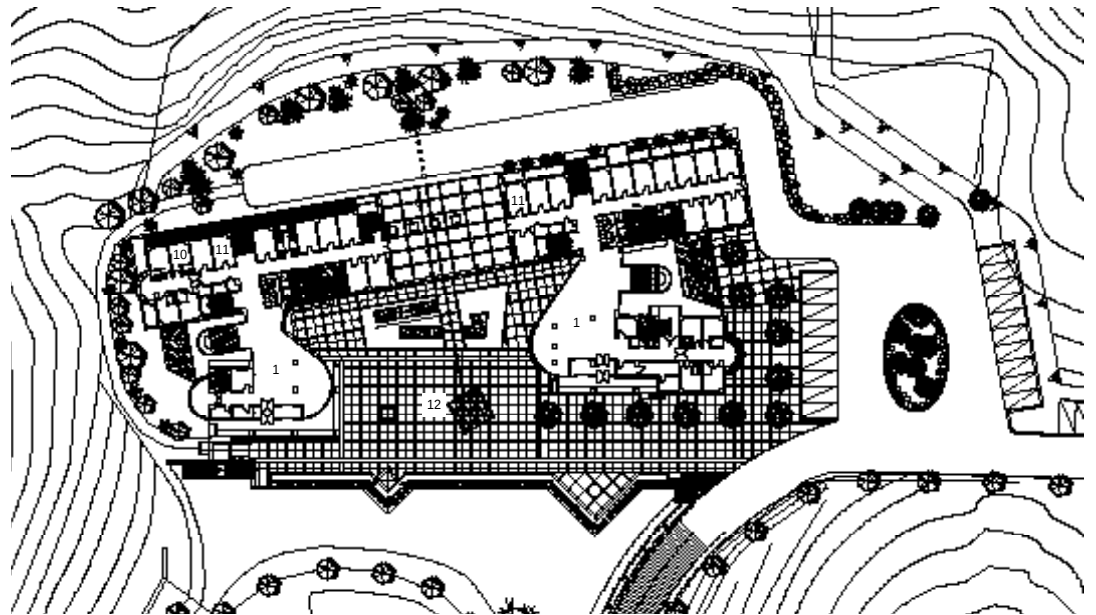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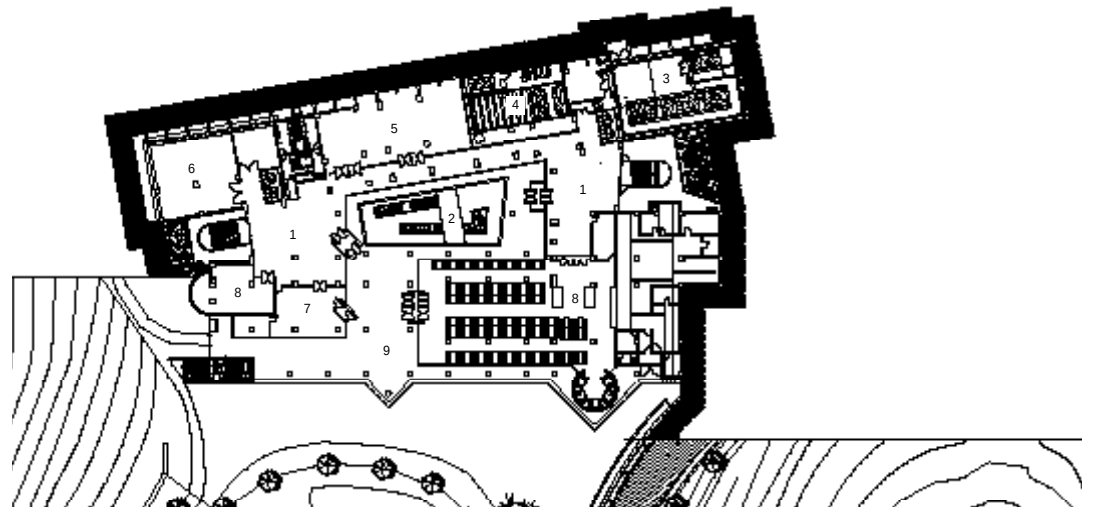
- 01. 홀 및 복도
- 02. 선큰
- 03. 전기실
- 04. 기계실
- 05. 체력단련실
- 06. 세탁실
- 07. 행정실
- 08. 식당
- 09. 진입광장
- 10. 1인실
- 11. 자치실
- 12. 중앙마당
- 13. 2인실
- 14. 화장실
- 15. 발코니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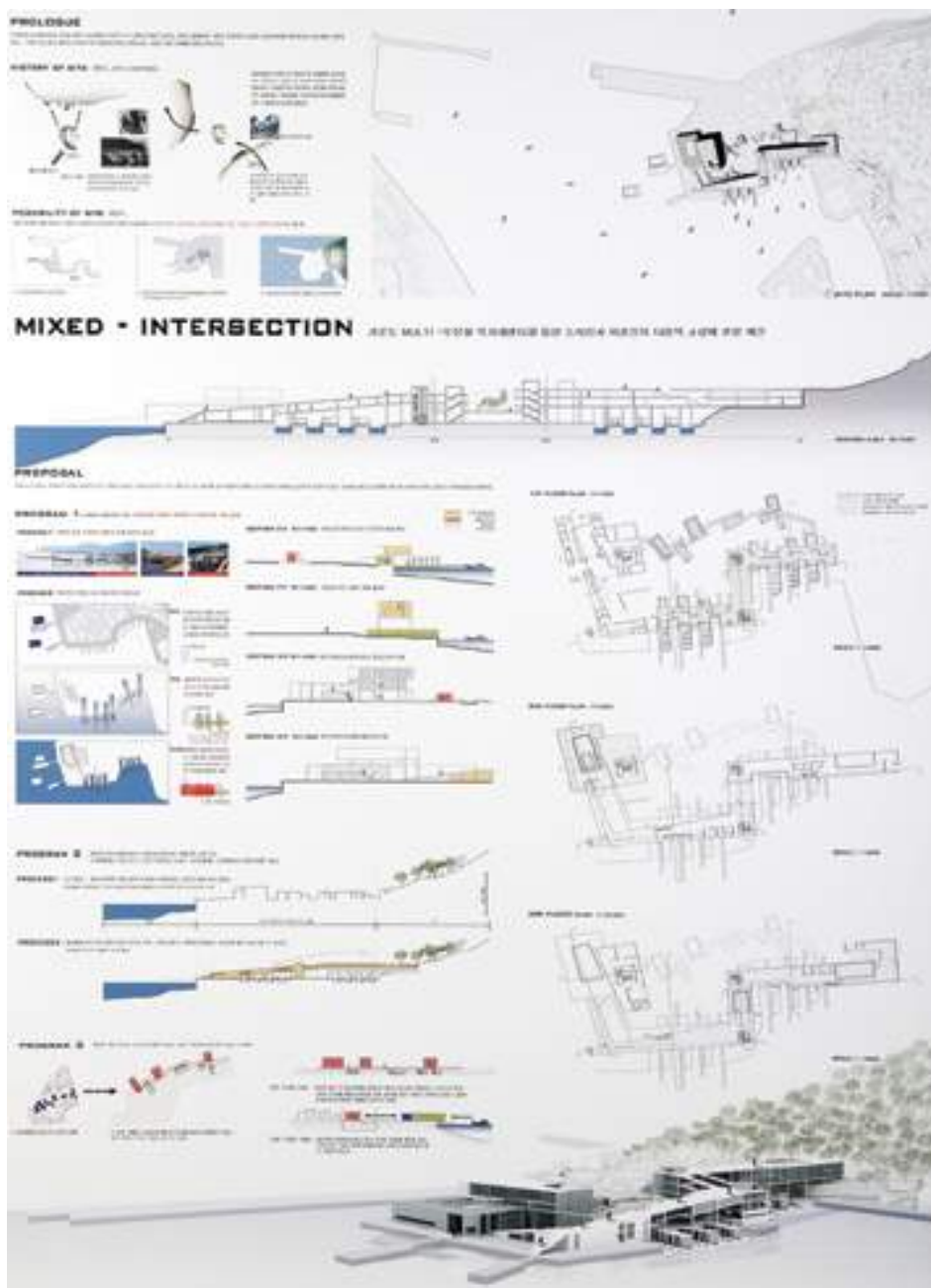


1층 평면도



Mixed - Intersection

서윤승/홍익대일반대학원건축학과
최미경/부경대건축학부



도시민과 농산어촌민의 교류를 위한 도농상생의 건축적 프로그램의 탄생은 물리적, 심리적, 생태적인 측면의 복합적인 교감과 소통이 발생할 때 비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가능성을 대지가 간직한 작은 실마리로부터 풀어나가는 과정을 이번 설계에 담아보고자한다. 거문도가가지는 지리학적인 위치, 환경적 조건, 역사적 사건을 각각의 건축적 프로그램으로 코드화하여 동시 다발적 발생을 유도하여 도시민과 농촌민의 복합적 소통을 가능케 하여 도농상생의 네트워크가 서로간의 교감으로 실현되기를 희망한다.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Rural convention center 계획안

오수희, 김영인부경대건축학과

부산 엄궁 농산물 도매시장은 Marke의기능을통한도농의 1차적교류가일어나는장소이다. 경제 논리에 의해 농민은 판매자의 입장에서, 도시민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매매를 통한 물질적 교류는 대지에 두 인자가 모여드는 이유를 제공하는물리적 Field로서 기능한다. 시장거래이후머무르게되는각인자들은동일대지내에서의 교류 그리고 더 나아가 도농간 직접적 교류를 위한 상호 정보 교환을 제공하는 장으로서의확장가능성을가진다.





인공적 지형의 형성을 통한 도농간 매개체

최지호/목원대건축학전공
김현술, 문영묵/원광대건축학전공



지금의 농촌의 모습은 노령화와 인구의 유동으로 인해 자급형 농업으로 바뀌어가고 그에 대한 잉여분을 농촌체험이나 주말 농장 등의 모습으로 3차 산업의 형태로 도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지금의 이러한 긍정적 프로그램의 형태를 농촌에서만 국한된 장소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도시내에서 networkign 될 수 있는 프로그램과의 접속을 통해 농촌에 대한중계기의역할을할수있도록한다.

재생 - 잃어버린 광촌의 기억

서지명, 박선상, 임유빈/
건국대건축전문대학원건축설계학과

역사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연계시키고 지역의 특성인 석탄이라는 소재를 통해 도시인들에게 가상과 실제적 경험을 제공하는 전시관을 계획하며, 하천변 오래된 이색적인 건물들로 이루어진 공간을 지역의 역사를 담은 전시관으로 재 활용하여 두 가지의 체험을 통해 도시인들과 지역주민 간에 화합을 도모한다. 그리고 이러한 두 Zone에 지역 특산물을 재배하는 Planation을 두어 자연적 요소를 삽입하여 계획한다.





관계성의 전환

안영창, 유경재, 최승호 고려대학교건축공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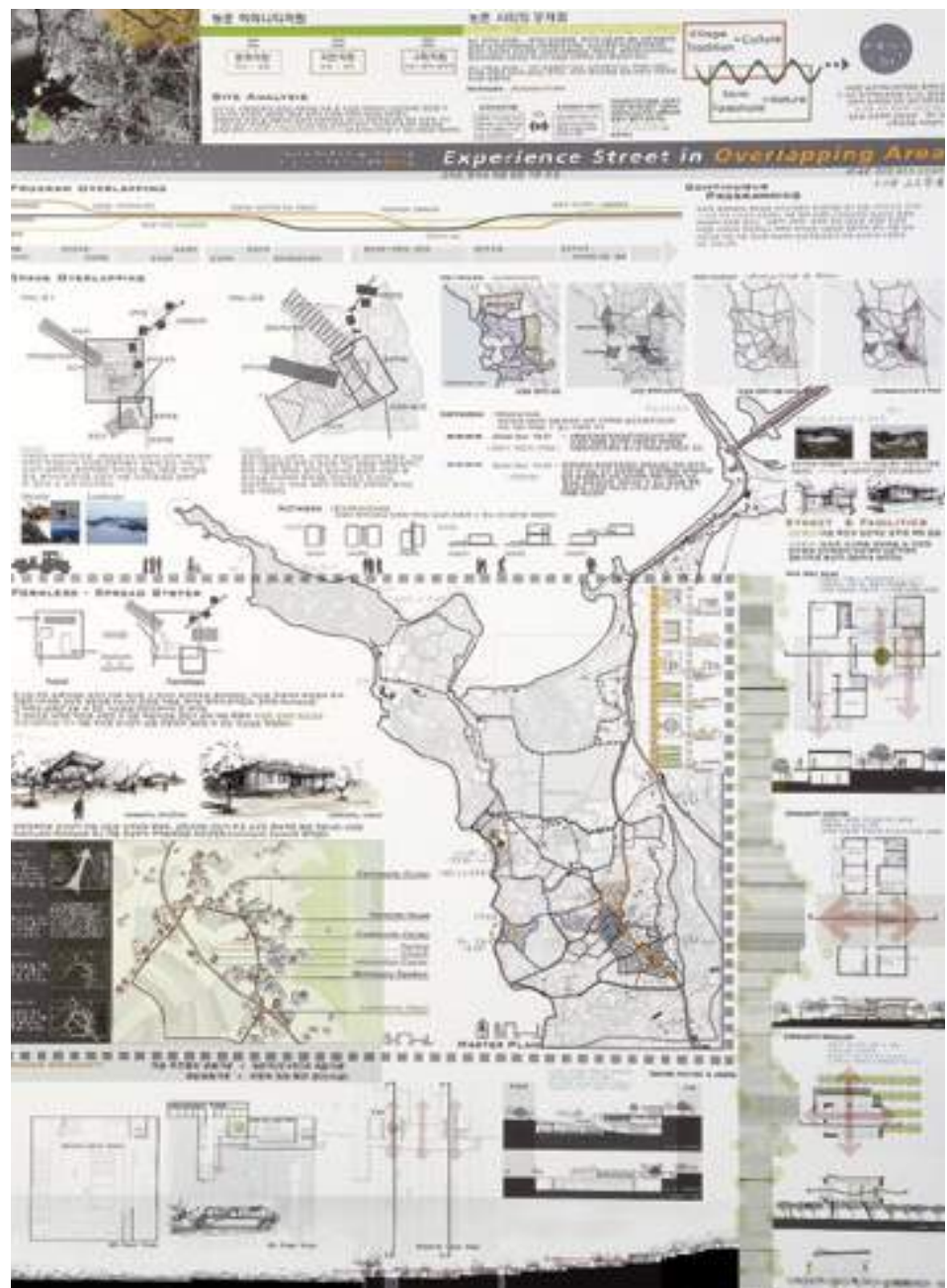


농촌의 문화정체성과 지역공동체의 재화를 위한 노력은 새로운 관계성의 정립에서부터 출발한다. 도시와 농촌의 양방향의 관계는 농촌의 문화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시작되어야 하며, 산업활동의 주체로서 지역 공동체의 재생이 전제되어야 한다. 양방향으로의 새로운 관계의 전환으로 도시와 농촌의 다양한 교류와 상호 발전적인 가능성을 가지며 변화될 것이다.

겹쳐진 영역내 체험 생활가로 조성

이희정/경기대건축학부
최재혁, 강동호/아주대건축학부

농촌지역의 물리적, 사회적 분석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가질수있는프로그램을특화시키고 도시민들이 이를 직업 체험하며 농촌마을 주민과 농촌마을의 삶에 좀더 깊이 스며들도록 하는 건축적 대안으로 생활가로(Experience street)를 계획한다. 생활가로(Experience street)는 우선, 이전에 존재하는 땅의 성격을 이해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영역을 구분하고, 각각의 특색있는 성격을 가진 영역들의 교차, 겹쳐지는 부분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수있는 시설을 배치하고 이들을 연계하는 가로를 만들어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어촌을 살리는 和의 되먹임 고리 계획안

황경진, 유보미, 최혜림 북대건축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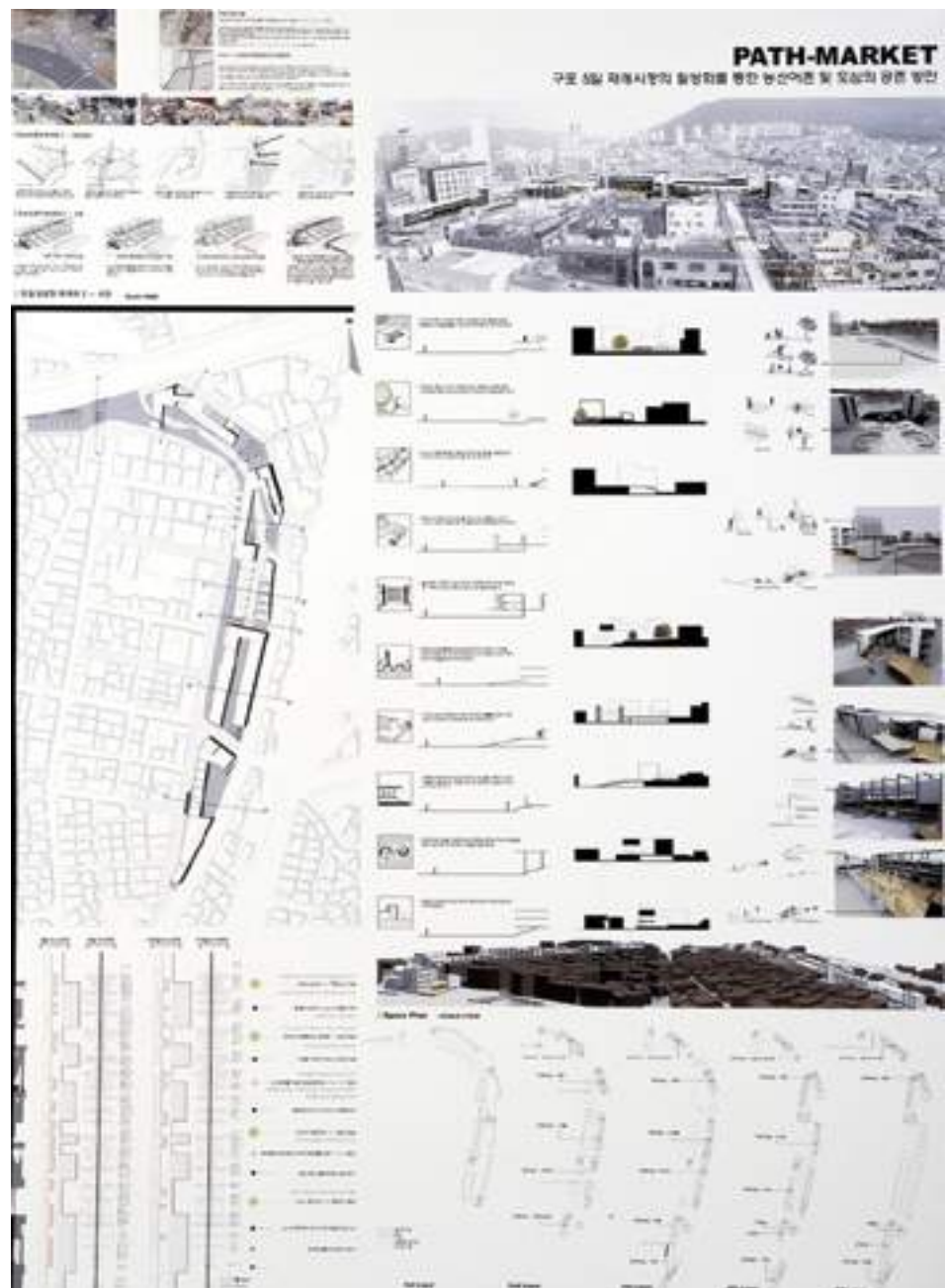
하나를 떠날 곳을 찾는 유목민 (nomad), 다른 하나는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정주민 (sedentary) 이 삶을 이루고 있다. 서로가 서로를 마음속으로 그리워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두 개의 장소. 어쩌다 서로를 향해 떠나면 positive-negative affect node를 거쳐 쉽게 negative feedback을 만들게 된다. 나무 아래 그늘이 생긴다고 모든 나무 밑이 장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나무 밑이 특별히 되풀이되어 인식될 때 그 나무 밑은 비로소 장소가 되어 형상이 놓이게 된다.

구포 5일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농산어촌과 도시의 공존방안



이현경, 홍순필, 심소연 **부경대건축학과**

현대사회에서 도시와 농촌의 부정적 이미지란, 도시의 바쁜 일상과 농촌의 구시대적 삶일 것이다. 이러한 두 문화 간의 간격을 좁히기 위한 ‘和의 네트워크’를 실현하려면 바쁜 일상속에서도 자연속 휴식과 이벤트의 즐길 거리가 있는 공간 그리고 농산어촌의 경제력을 지원할 수 있는 자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구포시장은 장날에만 장사를 하며 인근 5일장을 돌아다니는 봇짐장수의 드나들이 잦고 날짜별 인구가 동이크다. 이러한 장소적 특징이 도와 농이 화합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작용할 수 있다.





반응하는 대지의 생태적 문화인프라 구축

남시백, 김건우 **국민대건축학과**

농산어촌 지역이 가지는 도시의 여백적 지형의 특성에 반응하여 도시 문화적 흐름과 지역 생태적 흐름과의 상호 관계하여 새로운 지형적 필드를 구축함으로써 도농교류의 새로운 생태 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함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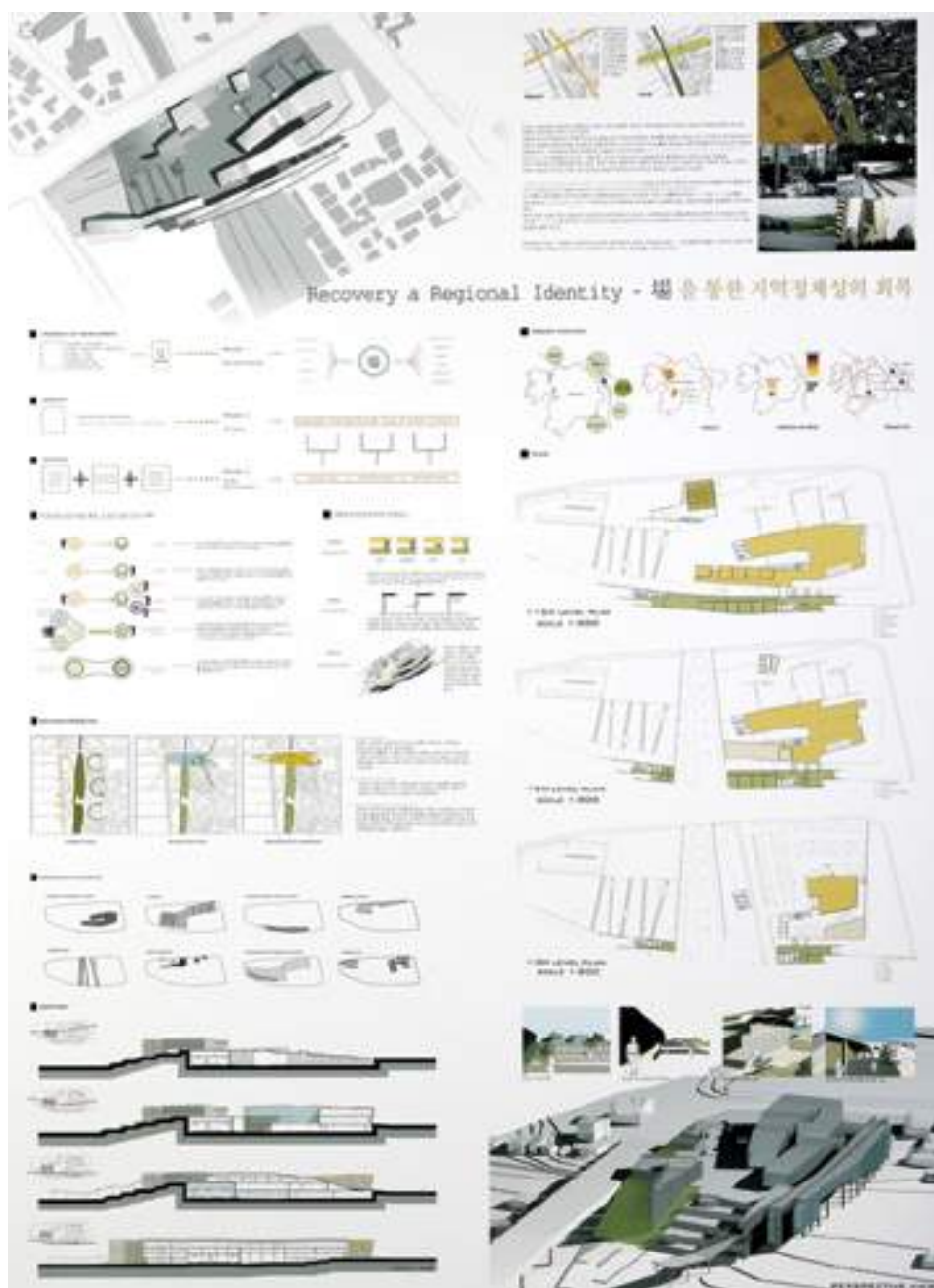


場을 통한 지역정체성의 회복



박정규, 최혜영, 김연홍 주대건축학과

시장은 지역의 경제적, 문화적 자원의 소산이며 집결지이다. 시장을 거점으로 지역이 가진 잠재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지역 거점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커뮤니티 발상전환이 우선 필수적이다. 이계획은장을통해도시와교류를활성화하고과거시장의1대1 거재를탈피하여상품화와 재교육을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소규모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농가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 도시민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의 공급을 장을 통해 이루려고 한다. 또한 지역정체성을 회복하고 심리적인 유대감을 증대시켜 도시와 농촌의 상처를 치유하고 도시와 농촌의 상징적인 통로로서의 역할을 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Rural + urban
= ru - ban

박준휘, 정의문, 김종만부경대건축학과



시장이 도시와 적극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대지에 도시 블록의 축과 시장의 축을 동시에 확장하여 동선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중심으로 대지를 나누어 보이드와 매스를 반복한 반내부공간을 만든다. 그리고 자연스럽고 긴 동선을 만드는 램프로 대지를 연결하여 중간적 공간을 통한 중성적 프로그램으로 유도하여 자연스런 교류를 촉진시킨다. 시장이 도시에 적극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대지에도 도시 블록의 축과 시장의 축을 동시에 확장하여 부드럽게 동선을 받아들이고 축에 의한 중성적 매스로 프로그램 섞어 프로그램의 흐름을 만든다. 그리고 축의 노드점부근을 비워 원형 광장으로 만들어써서너지효과를 기대한다.

난 오늘 나루터를 건너다...



이남현, 기대영, 김지산 원대건축공학과

다양한 흐름의 교차, 도시와 농촌의 공존, 근대와 현대의 불분명한 만남 등의 모습은 어수선한 모습이 아니라 도농상생의 네트워크가 공존하고 있는 거라 생각한다. 과거에는 속도의 느낌으로 인해서 제한된 공간을 움직였다. 그래서 전체적인 네트워크에 많은 점점공간이 형성되었으며 이곳은 상업공간으로 사용되었으며 또한 다른 지역과의 교류의 장으로써 성장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점점공간에 과거의 네트워크의 흔적을 이용하여 점점을 새로이 활성화시켜 도농상생의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한다.



설계경기 Competition

고양시환경에너지시설신기술대체건설사업(터커)

New technology for Environment & Energy

고양시가 중장기 지역발전 계획에 따라 운영 중인 기존 소각시설의 내구연수 도래에 따른 시설 노후화 대책의 일환으로 자연과인간, 인간과기술그리고기술과 자연의 사랑이 하나 되는 친환경 건축을 실현하고,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설치 계획 및 종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변 환경오염 예방과 주민들의 보건 위생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시설로 건설하여, 환경에너지시설을 시민과 함께 하는 장소로 제공함에 있다.

당선작/ (주)정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병조) + (주)조인엔지니어링
+ 포스코건설

환경에너지시설동

대지위치 고양시일산동구백석동 123번지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주요용도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대지면적 32,597.30m
연 면 적 16,892.55m
건축면적 6,049.05m
건 폐 율 18.56%
용 적 률 34.01%
규 모 지하2층, 지상5층

• 주민편익시설

대지위치 고양시일산동구백석동 1235-번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주요용도 수역장, 문화및체육시설
대지면적 7,582.80m
연 면 적 6,935.33m
건축면적 997.36m
건 폐 율 13.15%
용 적 률 44.42%
규 모 지하2층, 지상4층
설계담당 박진화, 권오성, 정순권, 황현철
이영철, 박미숙, 장용구

폐기물처리시설이라는 주민들의 부정적 이미지 재고와 더불어 소각장의 청정 이미지와 지역성반영을 고려하였다.

특히 현부지에 가동 중인 소각장을 연중 무휴 조건으로 운행하면서 여유부지에 신규 소각장을 신축하고 신규 소각장을 가동하면서 기존 소각장을 철거하고, 그 부지의 지하에는 재활용센터 지상에는 체육공원을 조성 해야 하는 기본적인 명제에 부지이용 및 동선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부지 이용계획은 예각부지를 활용한 부지 효율성의 극대화로 진출입의 위험성 방지 및 폐기물차량 대기공간 확보를 위한 교통광장을 설치하였으며, 양호한 조망 및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물의 남향배치 및 대지전체를 하나의 공원으로 계획하여 백석공원, 노고산, 도촌천 등 주변환경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였으며, 구름다리를 설치하여 백석공원을 매개로 한 환경에너지시설과 주민편익시설의 연계성을 확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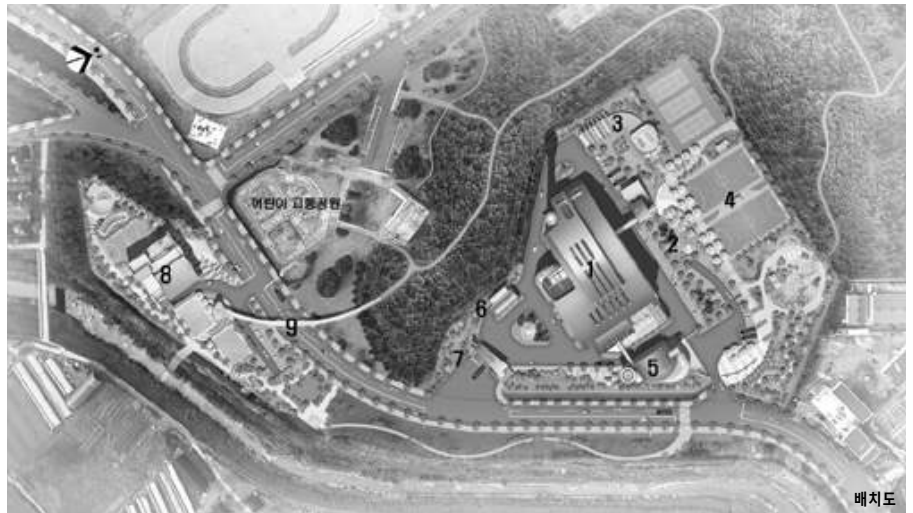
상징성은 고양시의 특성을 고려한 입면 계획으로 고양시의 시화인 장미를 형상



화 하여 환경에너지시설동과 주민편익시설 동 건물 외관에 접목시켜 이미지화 하였으며, 다른 부지에 위치하고 있는 두 시설물을 꽃과 꽃사이를 넘나드는 나비모양으로 형상화한구름다리로연결하였다.

관리동에는 시민홍보관, 전시실, 옥상정원, 휴게실 등이 마련되고 환경에너지시설에 직접 연결되는 연결통로가 설치되어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였고 주민편익시설은 소각장 폐열을 이용 할 수 있는 시설위주로 계획하고있으며, 여기에는수영장, 사우나, 헬스장, 에어로빅장, 문화활동교실 등 지하 2층, 지상4층의규모로조성된다.

또한 지상의 생태테마공원은 폐기물 처리과정을 보여주는 환경교육장, 생태연못, 축구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등다양한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님비현상으로 주민들이 기피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보다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선진기술을사용해폐열로운영되는수영장및주민편익시설과지역난방등으로주민 생활에도움을줄수있는환경에너지시설의 새 모델을 제시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에 기여코져하였다.



배치도



환경에너지시설동입면도



주민편익시설투시도



주민편익시설입면도



1층평면도



환경에너지시설동투시도야경

수직의 욕망

구영민 / 인하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by Koo Young-min

서론

오늘날 서울과 같은 메트로폴리스는 영속성¹⁾보다는 일시성의 연속으로 이해되는편이 많다. 우선 시각적 컨텍스트가 연속적인 전체가 아닌 다양한 조각으로 이루어진 콜라주로 읽혀지기 때문이고, 그 속에서 시간을 기억하는 공간들이 근대주의의 '오래된 미래'로부터 온 파편들에 의해 점거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칼비노의 소설, 「보이지 않는 도시들(Le città invisibili)」은 현대 도시로 급부상한 서울을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마르코 폴로가 쿠빌라이 칸에게 자신의 여행지를 묘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시작도 끝도 없이 되풀이되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도시들, 또는 초시공간적인 도시들이 만들어내는 중층(中層)적 구조를 내포한다.

마르코의 얘기를 따라가다 보면 독자들도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가 이전에 말했던 모든 도시가 베니스 한 곳이었음을 고백하는 대목에서 이야기는 반전되고 만다. 칼비노는 이러한 반전을 통해 도시가 가지는 복합적 이미지와 함께 그 속에 내포된 공시성과 통시성의 다중적 시제의 파악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즉, 도시(베니스)란 유일한(singular) 것인 동시에 복합적인(multiple/general) 것이며, 현재라는 시제 속에 포함된 과거인 동시에 미래라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도시 이미지를 해독하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기획 연재의 마지막 표제인 '단편적 도시경관'은 칼비노적 도시 이해를 토대로 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급성장한 서울을 '보이지 않는 도시들'에서 묘사된 베니스의 다양한 모습에 견주는 표현이다. 즉, 일시성, 불연속성 그리고 무시제(無時制)성으로 파악되는 현대 도시를 '고고학'적 입장에서 재조명하려는 것이다. 80년대 이후, 전체성을 함축하는 관료적 도시 모델과 자본주의적 실용성의 이념은 기존의 구조를 지속적으로 파괴해왔으며, 그 결과 무작위적으로 생성된 비이성적이고 파편화된 도시경관을 방관해왔다. 이러한 현실은 현대 서울의 기원을 외연(外延)하는 두 가지 극단적 상황으로 치달는다. 즉, 도시의 시간과 장소 사이에 조성되는 지속적인 '틈'과 그 틈 속에서 벌어지는 '도시의' 무정형을 향한 끝없는 의지(will to formlessness)로의 치환이다. 결국 오늘날 서울을 구성하는 도시

요소들은 영속적으로 임의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극단적으로 자율화돼 버린 상태로 머물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88년 서울 국제올림픽은 한국의 도시 지형을 일시에 뒤바꾸는 계기를 제공했다. 개방과 세계화의 지상과제를 통해 모든 이상을 통일시키고, 개발도상국이라는 진행형의 국가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질주했던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70년대 중동진출로부터 얻어낸 건설기술의 선진화와 맞물려 건축적 가치를 '기술과 생산'에 의거한 정치적 전상품 정도로 전락시켰다. 그 결과 건축의 문화적 가치가 제거된 서울의 도시경관은 이성으로 통제할 수 없을 만큼 '혼돈의 도가니(Chaotic pot)'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새로운 도시 건설의 의지와 (기술적으로) 대단한 건물을 짓겠다는 욕망은 늘 '통일된 전체'에 대한 망상을 좇음으로써 파괴의 현실과 밀접해 있었고, 개발지상주의로 인한 폐허가 곳곳에 남겨지게 되었다.

결국 88올림픽은 문화적 지평(持平) 대신에 서구 문명의 이기를 손쉽게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으며, 동아시아에 한국이라는 또 다른 잠재적 건축시장이 있음을 세계만방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88올림픽을 통해 국제적 도시로 급부상한 서울의 자존심은 방구석에 외제 양탄자와 가구를 들여 놓는 줄부의 근성으로 왜곡, 표출되기 시작했다. 소위 맨해튼 신드롬에 입각한 '수직의 욕망'이 타오르기 시작했던 것이다.

여의도 63빌딩을 시작으로 80년대부터 미국의 기업형 설계업체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상륙하기 시작했고, 한국의 도시들은 그들의 못다 이룬 근대 기획의 꿈을 실현(實演)하는 실험실이 되기 시작했다. '근대성'조차 도자생적이지 못했던 우리의 도시는 하부구조들의 급속한 변화와 건조환경의 무분별한 확장을 통해 또 다시 타율적 현대 도시를 형성하는 시기를 겪게 된 것이다.



1. 맨해튼 고층 건물 공사 현장

1) 영속성과 연속성은 뚜렷이 구별되는 개념이다. 영속성은 과거에 세워졌던 오브제가 중간에 수많은 변화를 거쳐 현재의 도시인공물로써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고찰되는 것이고, 영속성(permanence)은 과거의 도시가 현재에도 변함없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식 이론의 관점으로 부터 과거와 미래 사이의 차이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과거가 부분적으로 경험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이것은 영속성이 존재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것들은 도시의 경우 과거가 현재에 살아 있다는 의미이다. Aldo Rossi, The Architecture of the City, The MIT Press, p59

오래된미래; 근대기획의몰락

1960년대 이후, 서구에서는 근대주의 건축을 추앙하던 세대들이 동요되기 시작했다. 근대건축의 의미가 점차 기업형 총본부의 기호로서대변돼 갔으며, 1950년대이후부터 사회적프로그램이벗겨지면서근대건축은반복적인양식으로상업지역을채우는정도의건물들로전락했기때문이다.²⁾ 이러한경향에대해미국건축가들은그리심각해 하지 않았을는지도 모른다. 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도시 풍경은 세계적으로 관심거리가 되기 시작했고, 50년대 아메리카니즘이해게모니를잡게되면서 20세기중반건축계의한 획을긋는전기가마련됐기때문이다. 소위메트로폴리탄의양식(style)이미국으로부터세계로퍼져나가기시작한것이다.

아메리카니즘의 패권 획득에 중대한 기여를 한 건축사로서 미국 이민을택한미스(Mies)를들수있는데, 그의대표작인뉴욕의시그램 빌딩은 미국에서 ‘수직의 욕망’을 표출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당시 미국 건축계의 흥행사로 행사하던 필립존슨(Philip Johnson)과의협약은미스를미국으로이민온유럽건축사중가장창조적인 디자이너로서 인정받게 하였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테크놀로지는더이상바우하우스의프로그램이지향했던낭만적인표어가아니었다. 이제그것은실행돼야하는도구였으며, 그래서불가피한진리가돼버렸던것이다.

“적은것이오히려 더많다<Less is more>”든지“진리는디테일 속에...<God is in detail>”와 같은 미스의 금언은 인간의 상상력을 무시한채, 비용절감의건물세계를 위한싸구려 공사의실제적인 프로그램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소위 국제주의(internationalism)의이름으로전세계로번지기시작한이양식아닌양식은차제에산업화와 근대화를 겪게 되는 아시아로 뒤늦게 전파되어 오늘날 초고층빌딩건설에불꽃튀는경쟁을벌리게하였다.

오늘날 아시아 지역에서 경제가 흥성하기 시작한 나라들이 앞을다퓰 초고층 건물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은 미국식 자본주의를 답습한결과라고볼수 있다. 말레이시아칼라룸푸르에세워진 페트로나스타워는 공식적으로현재 세계에서가장높은 건물로서그 높이가 452미터에 이른다. 층수로는 세계 2위인 시카고의 시어스

(Sears)타워보다8층이나낮으면서도높이가10미터나높은이유는 꼭대기에세워진점탑때문이다. 페트로나스타워가세계1위를제치는데중국상하이에지어진 ‘진마오타워’는테러에의해폭파된월드트레이드센터를4미터차이로제치고3위로올라섰다. 또다시칼라룸푸르의플라자라키얏타워는마천루의상징이었던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을겨우1미터차이로추월하였다. 이러한현상은결국초고층건물을짓는근본적인이유인실용성과경제성이외에, 동시대의 다른 국가들에게 자국의 경제적 풍요와 성장을 과시하려는 상징성이강하게작용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특히 90년대 이후, 아시아의경제성장은이지역을중심으로지어지는세계최고(最高)의 건물들에 의해 평가되기 시작했다. 앞으로도 10년 동안은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이 수직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벌일것으로보인다. 여기에 우리나라도빠지지 않는다. 1985년완공된63 빌딩은세워질당시아시아최고의높이를 자랑했었다. 이후, 강남지역으로전개된수직의도시는오늘날송도경제자유구역에145층짜리초고층기획으로연결되고있는것이다.

맨해튼신드롬

60, 70년대부터 불기 시작한 도시 개발은 도심 아파트 공급과 대규모주거단지조성으로부터진행되었다. 이중여의도는 1970년대 초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시가지로 개발되어 30여년이 지난 오늘날 입법, 금융, 방송등국가주요기관들이밀집하고있는부도심의위치를 확고히하고있다. 모래섬이었던여의도가 오늘날과같은 현대식 부도심으로자리잡게된것은 1966년한강홍수복구사업을 계기로 68년부터 70년 까지 길이 7.6km의 윤중제를 축조하면서부터이다. 이때서울특별시는한강개발계획을수립하였고, 당시김현옥시장의 독특한개발방법인버려진땅에도로등의사회기반시설을건설하여 땅값을 올려놓고, 이를매각하여 생긴대금으로 다음건설에 사용하는방법으로개발이진행되었다. 제방축조를통해무려 87만 600여평의나대지를 건진서울시는 1969년부터여의도일대의토지를 다량으로 매입하였고, 곧 ‘여의도 및 한강연안 개발계획’을 수립하였



2_ 시어스타워 - Chicago 3_ 세계무역센터-맨해튼 4_ 페트로나스타워-말레이시아 5_ 진 마오타워 6_ 맨해튼 중심부

2) 폴린로우가지적하였듯이, 유럽으로부터미국으로전래온근대주의건축은그진정한이데올로기적구성인자를빼먹고있었다. 더욱이1960년대까지유럽의근대건축사들역시그들의사회적인사를충분히반영하지못하고있었고, 사회개혁과함께다가온모멸감은건축전문직에대한회의로나타나게되었다.

다. 당시 ‘한강의 기적’을 국기(國基)로 삼고 있던 정부로서는 홍수 방지와 ‘기적’을 마무리한다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리게 된 것이다. 단계전조의 ‘도쿄계획 1960’을 밑그림으로 한선형의 도시, 커뮤니케이션의 도시, 시스템의 도시를 지향한 기본계획이 세워지고, 마포대교, 원효대교가 연결되면서 여의도는 바야흐로 인천과 서울을 연계하는 거점 도시로서의 입지를 굳혀가기 시작했다.

이 신도시는 남북방향으로 12개 대로(大路)와 동서방향으로 156개로 분할되는 2,028개의 블록으로 이루어졌다. 각 가로는 기능에 따라 위계가 정해지고, 격자형의 도시 패턴을 만들고 있었다. 이때부터 여의도는 ‘한국의 맨해튼’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이는 격자 패턴으로부터 고층 건물로 연결되는 도시 경관을 예상한 것이었다.

대한생명 63빌딩은 여의도 실루엣의 고층 행렬에 첫 테이프를 끊은 주자였다. 1985년 5월 30일 자 조선일보 10면에 ‘동양最高「수직都市」 오늘 준공’이라는 꼭지의 기사가 실렸다. 착공한지 5년 3개월 만의 일이다. “남산보다 1m 낮은 2백 64m, 하루 3만 명의 생활터전이 된다”는 내용이 머리글이었다. 이 기사를 보면, 건축이 가져다주는 미학적, 도시적 의미보다는 주로 그 규모에서 건물의 가치를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꼬르부제가 기획했던 인구 300만을 위한 「수직도시」의 백분의 일에 지나지 않은 규모였지만, 공중권(空中權) 사용을 통해 수직의 욕망을 재현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더욱이 이 건물 주목하게 되는 것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한 다양한 계층의 방문객들의 유도라는 건축의 소비적 가치를 평가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단일한 기능을 통해 정의되는 오피스 건물의 기능적 골격을 벗어나, 황금색 파막뒤에 감추어둔 ‘n층 의 비밀’을 광고의 매체로 사용하는 전략이 건축적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S.O.M.(Skidmore, Owings & Merrill - 이후 SOM이라고 기재)과 박춘명이 공동 설계한 이 황금색 유리 덩어리는 기존의 맨해튼 양식을 벗어난 특이한 형태의 고층 건물로 구축되었다. 매스의 높이에서 오는 중압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꼭대기로 갈수록 ‘테이퍼’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 이러한 대책은 당시 ‘포스트(post-)’ 논란에서 비난의 대상이었던 ‘국제주의식 유리상자 틀 변형’ 시킨 예로 보아도 될 듯 싶다.

여의도의 또 다른 랜드마크로 도시에 등록된 럭키금성 트윈타워 역시 SOM에 의해 설계되었다. 34층의 두 개 건물로 이뤄진 LG 트



7_ 여의도 대한생명 63빌딩 8_ 럭키금성 트윈타워

윈타워는 9.11 사태로 허물어진 맨해튼의 무역센터의 쌍둥이 매스 구성을 재연한 것이다. 63빌딩과는 달리 이 건물은 퇴창(Baywindow)의 정교한 디테일로 구성된 화강암 패넬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입체적인 파사드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서도 건물들의 상부 모서리를 의도적으로 깎아냄으로써 박스의 고정적 형태를 탈피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63빌딩은 황금빛 2중 열반사유리로 입혀진 형태적 왜곡에 의한 고층 유리 건물로서, 럭키금성 트윈타워는 ‘육중하지만 얇은 표피, 견실한 입체’로서 보이지만 얇은 화강암 패넬로 덧붙여진 ‘소위 도시적 포스트모던 건축’의 형상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점수하기 시작했다. 사실 미국의 건축적 패권주의가 정착한 한강변에서부터 오늘날에 이어지는 많은 고층 건물들의 유형이 결정됐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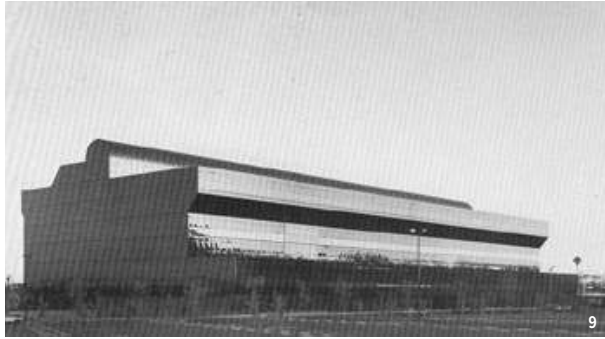
한국의 ‘맨해튼’ 본뜨기에서 SOM의 상륙은 숙명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70년대 초부터 포스트모던 논란 속에서 입지를 잃게 된 국제주의 양식의 선구자들에게 미국 밖, 특히 아시아와 같은 근대화의 후발주자 국가들은 개발의 대상이며, 자신들이 쌓아온 지식에 기초하여 내재적인 진화를 이룰 수 있는 실험실과 같은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80년대 한국의 사회·정치적 환경은 프로파간다(propaganda)가 될 만한 충격적 진술을 필요로 했고, 혼돈에 빠진 대중에게 자본의 위력을 과시할 만한 볼거리(spectacle)를 제공해주는 구실이 필요했으므로 초고층 건물이야말로 이 두 가지 요구를 동시에 충족할 만한 도시 건축적 인자였다. 더욱이 부(富)와 기술의 상징으로 대입한 ‘맨해튼’의 이미지는 고층 건물 건설을 부채질하였고, 기술력이 부족한 한국 건축계로서는 외국, 특히 미국 건축사들의 디자인을 여과없이 수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커튼월을 상용화하여 벽 두께를 줄이고 대신 임대면적을 늘려가는 전형적인 오피스 설계의 교안을 구축한 S.O.M의 진출은 아메리카니즘이 한국에 접목되는 교두보가 된 셈이었다.

그렇다면 실제로 맨해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냉전의 건축

80년대는 미국 건축의 공황기였다. 197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뉴잉글랜드 및 뉴멕시코 등으로 번지기 시작한 신포도주의(Neo-Vernacular) 운동 부연안에서 형성된 신역사주의 회색파와 추상주의 백색파 등에 의해 재현되고 있었다. 이러한 지역주의 건축적 특징은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소규모적인 교외의 단독 주택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었다. 물론 시각적으로 눈에 띄거나 공공 건물을 설계한 경우도 있지만 고층 건물이나 공공성을 띤 건물을 설계한 건축사가 새로운 건축을 시도한 예는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건축적인 변화는 그것이 담론과 감정(Connoisseur)의 경계선을 벗어난 이후에나 비로소 공공에게 알려지는 법이기 때문이다. 즉, 새로운 형태라는 것이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지고 읽혀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80년대 초반부, 논쟁의 극치에 다달았던 건축적 포스트모더니즘



9_ 태평양디자인센터-시저펠리 10_ 엠바카데로센터- 포트만

이 공공에게 알려지기 위해서는 그것이 국제주의의 원형적 양식과 다른 독특함이 부각되어야만 했다. 그러나 포스트모던 건축의 양식이라는 것은 반복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건축을 해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 때문에, 벤추리의 ‘복합성과 대립성’의 출현 이후, 학교나 갤러리 바깥에서 벤추리의 이론을 바탕으로 건축을 시도한다거나 찰스 무어, 조셉 에셔릭(Joseph Esherick), 타이거만(Stanley Tigerman)의 스타일을 흉내 내거나 재현하고자 하는 건축사는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의 논란 이후, 무엇인가는 일어나야만 했고 대규모 건축설계회사나 법인 건축사 또는 개발업자는 이러한 변환기를 맞아 새로운 양식의 건축을 시도해야 했다.

당시 건축적 수정주의자들은 한사코 ‘유리 상자’의 사멸을 추구하고 있었고, 근대건축의 계승자들은 ‘유리 상자’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다. 국제주의 양식의 원형이었던 ‘유리 상자’를 변형시켜 김으로써 새로운 양식을 시도하고자 했던 첫 번째 대규모 건축물로서 시저펠리의 태평양 디자인 센터(Pacific Design Center)³⁾를 들 수 있다. 애틀랜타(Atlanta) 소재의 건축회사이며 개발업자인 포트만(John Portman & Associate)도 이 시기에 적절한 공헌을 하고 있다. 애틀랜타 하얏트 레젠시 호텔은 직방형이 아닌 유리벽과 가짜 자연물 등으로 장식된 기념비적인 아트리움을 가진 호텔 양식으로 발전했으며, 1974년도 지어진 샌프란시스코의 엠바카데로 센터(Embarcadero Center)도 이 항목에 끼여 든다. 또 한 필립 존슨(Philip Johnson & Burgee)이 텍사스 휴스턴 조성 사업에 적용시킨 펜조일 센터(Penzoil Place) 등도 유리상자를 뒤를 거나

잘라내는 방식을 통해 ‘국제주의’ 양식으로부터 탈출을 시도한 예이다.

이후, 미국식 초고층 건물의 형태는 전통적인 포스트모던 건축 양식을 도입한 대규모 건물로 전개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마이클 그레이브스의 ‘포틀랜드 시청사(1979)’이다. 시대를 알 수 없는 역사적 장식물과 표피의 언어적 재현을 통해 지역적 특성을 자아내게 했던 이 건물은 차제에 그레이브스 스타일을 연계시키는 촉진제가 되기도 했다. 1982년 세워진 루이스빌(Louisville)의 휴마나 주식회사(Humana Corp.)를 통해 계승된 그레이브스 스타일은 1980년대 미국 오피스 건물 성수기를 맞아 새로운 양식의 도입을 선언하고 있었다. 이후 각종 인쇄물 등의 미디어를 통해 새로운 모습의 건축이 실리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추세에 맞춰 사람들은 새로운 건축의 시대를 접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에서 63빌딩의 신화가 장안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을 무렵, 1984년도 존슨 앤 버기(Johnson & Burgee)가 설계한 ‘AT&T’ 건물이 맨해튼에 세워졌다. 할아버지 괴종시계를 연상시키는 이 터무니 없는 매스는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는데, 당시 「타임」지 표지에는 건축사 필립 존슨이 커다란 모델을 품에 안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할 정도로 건축계에서는 폭력적인(?) 충격으로 기록되고 있다. 같은 해, 영국의 환경보수론자들 편에 선 찰스 황태자까지 나서서 건축계에도 전장을 던졌다. 그는 도시의 모던 건축을 ‘유리로 된 그루터기들, 괴물 같은 석류석’으로 비하하고, 근대 건축은 계승의 여지마저 없는 건축 역사 속의 미야로 전락시켜 버렸다.

이때부터 소위 도시적 포스트모던 건축의 공통된 특징들이 드러나



11_ 펜조일센터-필립존슨 12_ 포틀랜드시청사-마이클그레이브스 13_ 휴마나주식회사-마이클그레이브스 14_ 1979년판 타임지 표지에 등장한 필립존슨과 AT&T 15_ AT&T 빌딩과 맨해튼경

3) 하인리히 클루트의 평론을 빌어 말하자면, 이는 ‘LA의 도심 어딘가에서 있는(또는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반 기념비적인 거대한 파편 덩어리’로 인지된다.



16_ 일리노이연방청사
- 헬무트안
17_ 일리노이연방청사
(내부)- 헬무트 안
18_ Liberty Place
- 헬무트안
19_ Worldwide Center
- SOM; 맨해튼공사
현장

기시작했다. 예컨대육중하지만얇은표피, 건설한입체로서보이지만얇은화강암패널로덧붙여진, 페인트로그려지거나출처를알수없는전통적디테일을홍내넉풍부한장식성등이었다. 즉, 디자이너들은 도시의 과거성을 환기시키는 형식과 함께 과거에 대한 현실적 재현의 불가능성을 고의적으로 대립시킴으로써 일종의 ‘소외(estrangement)를 창조하는기법’을 사용하고있었다.

반면에서카고의헬무트안(Helmut Jahn)과같은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건물들을계획적으로미완성의상태로남겨둔다거나, 아예출처도 알수 없는 파편덩어리들로남겨두는 방법을채택하고 있다. 특히 헬무트 안의 고층건물이나 공공건물은 이러한 포스트 모던적 기질을잘보여주고있는데, 예를들어잘려져나간거대한원추형과편의모습을가지고도시의 한부분을장악하고 있는일리노이 연방청사(Illinois State Center, 1983)라든가, 1930년대설계된윌리엄 반알렌(William Van Allen)의크라이슬러건물을암시한필라델피아의리버티건물(Liberty Place) 등에서찾아볼수있다.

1980년대 S.O.M. 역시 이러한 추세에 편승할 수밖에 없었다. 아드리안 스미스(Adrian Smith)가 이끌고 있던 시카고 S.O.M과 데이비드 차일드(David Child)가 이끄는 뉴욕 S.O.M은 역사주의적 접근을통해포스트모던도시건축을제안하고있었다. 1980년대미국의 포스트모더니즘 논란은 부동산 개발과 건축사업 등의 번성과함께또다른양식으로발전하고있음을볼수있다. 사회적분위기의 변화와함께새로운건축주의등장에편승한양식적인예로볼수있는것이다.

1980년대중반으로넘어가면서미국적포스트모더니즘은당시의

자본주의적 생산과 소비의 새로운 국면과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건축의 형태를만들어 내야하는강박에 부딪히고있었다. 사실상 조화를 이룬다기보다는 두 가지 접근 방식으로부터 오는 혼돈이라고 봐야울것인데, 그첫번째는그동안건축계를주도하였으나약해지기 시작한모더니즘에대한 반대적디자인 접근과새로운디자인 개념에의한방법론적인측면을들수있고, 두번째로는건축사들이새로운아이디어를실현하기위하여의존해야할당시의실무적상황과건축사들이 규제할수 없는사회적 영향등이었다. 아무튼 서구에서 1980년대의 건축은 양식에 대한 전쟁(Battle of Styles)이 있었던 1920년대나 1850년대, 또는 고대가 모던과 승강이를 벌였던 1670년대를연상시킬정도로정치화되어있었다.

소유와과시

사실대한생명 63빌딩준공직전인 1983년도에세종로어귀에지상 22층 규모의 또다른 보험사 건물이 들어섰다. 시저 펠리와 엄이 건축이 공동 설계한 대한교육보험 사옥이었다. 시저 펠리가 설계한 주일본 미국대사관저를 거의그대로 옮겨 놓은것으로서주변의 맥락으로보거나건물자체의형태미학적인측면으로볼때, 공감이가 지 않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최초로 직수입된 디자인이라고 봐도 좋을것이다. 이생동맞게생긴매스가종로의끝부분을마무리하면서세종로네거리는불필요한랜드마크의장소로변해버렸다. 연면적이 92,400㎡나되는거대한매스는광화문으로부터시청으로연결되는세종로에대한정면성에충실하고있는반면에, 사실상종로쪽에대해서는 폐쇄된측면을 보이고있는 불성실한태도를취하고있었다. 또한건물의높이나너비가입면에대해비례가전혀맞지않아서울중심부에 세워진 고층 랜드마크로서 그리 환영받지 못했다. 건물의주구조부를 노출하고 구조적 격자를 패널로 채운 ‘교보’ 건물이 전국적으로 세워지게 되면서, 이 건물은 맥도널드처럼 기업 ‘이미지’로서의기능을담당하는2차원적의미로도시공간에참여한사레가 되었다.



20_ 대한교육보험사옥-시저펠리 21_ 주일본대사관-시저펠리

70년대구도심의고층행렬이조선호텔, 롯데호텔, 신라호텔등주로일본과의협업으로이루어진호텔건축인데반해, 80년대의대규모 건물들은 주로 미국의 디자인 펌과의 합작으로 설계된 보험사를

4) 구영민, 「관계와소외」, C3-건축과환경

포함하는대기업의사옥이라는점에주목해볼수있다. 바야흐로대기업들의 부동산 소유가 수직의 욕망을 통해 과시되는 전형적인 자본주의의 관습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소유와 과시욕을 채우고, 기업 이미지 홍보와 부와 기술을 상징하기 위한 본격적인 초고층 시대로 진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시점에서 88올림픽은 강남권 신도시 개발을 부추기는 도화선이 되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국제올림픽을 치른다는 것은 한 지역을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하는 가장 좋은 기회로 받아들여진다. 도심 어딘가에 엄청난 규모의 보이드가 들어서게 되고 이를 중심으로 도시하부구조가 형성되면서 주변으로 다양한 도시 프로그램이 들어차게 된다. 우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더욱이 70년대 말부터 기승을 부리던 강남개발이 호기를 맞게 되는 시점이 되었다. 지하철 2호선 개통과 소위 ‘88 올림픽대로’가 건설되면서 강남권으로의 접근이 빠르고 용이하게 되었다. 한남대교로 진입하던 신사동 어귀로부터 잠실 지역에 이르는 대단위 생활권이 하루아침에 완성된 것이 나뉘지 않았다. 강남권 신도시 건설은 구도심 팽창을 받아주는 예정된 개발 시나리오였고, 88 국제올림픽은 이에 당위성을 부과해준 것이 된 셈이다.

초창기 강남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건물로는 뉴욕제과나 뱅뱅 사거리 사옥 정도였다. 그리고 테헤란로를 따라 소규모의 오피스 건물들이 드문드문 들어서고, 르네상스 호텔 및 그 주변으로는 주택가가 조성돼 있었다. 그러나 테헤란로의 역할이 가중되면서 테헤란 노변으로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마치 바둑알을 놓듯이,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기업들이 부동산을 매입하기 시작했고, 올림픽 시기에 맞춰 현 삼성역 부근에 무역센터 건물과 전시장 등이 완공되었다. 거의 10여년에 걸친 설계 및 시공을 통해 1989년도 개관하게 된 지상 55층의 고층 타워는 정립과 원도시 그리고 일본 니켈 세계의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국내 최초의 고층 복합 콤플렉스로서 주변으로도심공항, 인터컨티넨탈 호텔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90년대에 아셈컨벤션센터 및 기타 부대 시설들이 첨가되면서 도시의 한 블록을 차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콤플렉스로 자리 잡게 되었다.



22_ 삼성동 무역센터 23_ 무역센터 및 삼성역 선로 광장



이 대목에서도 역시 ‘맨해튼 신드롬’을 읽을 수 있다. 뉴욕 무역센터(이후 WTC로 기재)의 쌍둥이 건물을 표방한 두 개의 글라스 타워가 계단식으로 테이퍼되면서 매스의 중량감을 감소시키고 있으나 건물의 형태 미학적으로 볼 때, 호감을 주는 건물은 아니다. 오히려 타워를 두 개로 나눈 것이 어색하게 강요된 것 같은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위치성 및 진입 그리고 주변 동선이 불확실하여 기념비성은 있으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건물이다. 주변으로는 오픈 스페이스와 선로 광장이 조성되어 지하 2층 부로 된 전시관으로 연계되는 대형 지하몰을 형성하고 있는데, 사실 건물 자체보다는 이 선로 광장의 기능이 더 우수하게 평가된다. 지하 공간의 유기적 연결 체계 뿐만 아니라, 도심의 허브 공간으로서 도시 활동을 극명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지하철 역과 호텔, 그리고 전시관 및 무역센터를 연결하는 지하 몰(mall)은 사실상 뉴욕 WTC의 구역의 공간 구조를 답습하고 있는데, 케빈 린치(Kevin Lynch)가 요약하는 도시 공간의 요소들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임의 법칙

70년대 후반 신사동 어귀와 강남역 네거리를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발전해 오던 ‘강남 지역’은 테헤란로를 거쳐 곧장 올림픽 스타디움으로 연결되는 중심 교통 네트워크를 갖게 되었다. 이는 다시 지하철 2호선의 연장과 함께 구도심과 강남권을 순환하는 기초 하부구조를 형성하였고, 구도심의 팽창을 자연스럽게 받아주는 전환점이 되었다. 이러한 강남 지역의 도시 하부구조의 발달은 강남 부동산 투기를 가열화하였다. 여의도 개발 이후, 강남권에는 15층 이상 되는 고층 아파트들이 주요 지역을 점거하기 시작했고, 반포로부터 서초, 도곡동에 이르는 주거 광역 지구를 조성하게 하였다. 오늘날 8학군의 효시가 된 도곡동 지역은 이미 1980년 초반부터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한 지역이었다.

또한 올림픽을 전후하여 잠실 지역에는 선수들의 숙소 명목으로 지어져 후에 민간에게 분양되는 아시아 선수촌,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등의 고층 아파트 단지들이 강남권의 수직화를 승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들 선수촌 아파트들은 공개 공모전을 통해 발주된 케이스로서 이때부터 미국 유학파 1세대들의 국내인들이 가표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올림픽 게임 이후로 강남 부동산 가치를 바탕으로 아파트를 고층화하고,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여 단시간에 최대 이득을 올리는 게임의 법칙이 정립되기 시작했다. 바야흐로 강남 아파트 열풍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시점인 것이다.

강남은 구도심의 폐쇄된 공간으로부터 무한정 확대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유일한 통로였다. 주요 기업들은 앞 다퉈 사옥을 짓



24_역삼동 LG사옥-SOM 25_현대개발사옥-케빈로쉬 26_동부사옥-KPF 27_현대산업개발사옥(다니엘리베스킨트)와무역센터의스카이라인

고, 주요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그리고 문화시설들이 빠르게 강남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부동산 투기로 올라선 신흥부자들이 득세하고, 이에 따라 건축주의 취향과 압박의 양상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졸부의 취향과 저급 문화의 확대로 강남은 압구정, 청담동 등을 중심으로 신문화의 발상지로 자리잡게 되었다.

서울은 오래된 것과 익숙한 것들이 유적(遺跡)처럼 발견되는 역설적인 도시로 둔갑하기 시작했다. ‘힐끗 힐끗 던지는 우리의 시선을 한참이나 녹아웃 시켜버리는 육중한 파편 덩어리’ (Vincent Scully) 나고 밀화된 도시 속에 갇혀 버린 고궁과 고옥들이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아이러니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아직도 유토피아의 ‘오래된 미래’를 꿈꾸고 있을 것 같은 근대 건축의 잔재와 ‘새롭게 받아들여지는 과거’가 공존하는 공간 속에서 서울은 정신 착란 증을 겪고 있는 듯했다.

몇 가지 단상

사실 고층 건물(Skyscraper)을 순수한 의미의 건축이라고 보긴 힘들다. 이태리의 여성 건축사인 아우렌티(Gae Aulenti)가 고층 건물, 특히 현대의 유리 타워는 건축적 사고의 주제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한 것은 결코 근거 없는 독설이 아니다. 이들은 건축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과학이며, 미를 추구하는 디자인적 관점에서 보다는 절충(negotiation)형 의사결정의 차원에서 먼저 이해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많은 학자들(1950년대나 1960년대)이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는 고층 건물들을 정의하고 나름대로 분류하느라 상당히 많은 노력과 시간을 소비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층 건물이 갖는 건축적 의미와 가치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한 예는 많지 않다.

도시의 육중한 침입자로서 해마다 높아져 가는 고층 건물의 배후에는 이론이나 철학보다 자본의 논리를 축조(築造)로 도구화하려는 건축주와 이에 순응하는 건축사들의 결탁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층 건물은 일단 주변의 건조 환경을 무시하고, 오로지 눈에 띄게 높이 세워지기만 하면 된다는 인식이 일반화 돼 버렸다. 다시 말해 소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고층의 오피스 빌딩들이 일단 관찰자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어야 제값을 한다는 것이다. 빈센트 스컬리

(Vincent Scully)가 지적하듯이, 고층 건물이란 짙막한 건축적 재담과 같은 것으로서 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힐끗힐끗 던지는 우리의 시선을 한참이나 녹아웃 시켜버리는 육중한 파편 덩어리와 같은 것이다. 건물의 형태나 높이로부터 받아들여지게 되는 시각적인 충격도 충격이지만, 공사비나 동원된 공사 인원 숫자 역시 사람을 놀라게 하는 데 일조를 한다.

최근 테헤란로 주변에 들어선 몇 개의 건물들 역시 소위 서구 자본주의에 익숙한 기업형 설계 회사에 의뢰된 것이기에 대해 ‘충격 주기 빼여넘어 없다. 언덕 배기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는 듯이 보이는 LG 사옥은 서울의 단골 건축사가 돼 버린 SOM(Skidmore, Owings, and Merrill)과의 공동 작업이며, 그야말로 충격적인 볼륨으로 원경을 압도하는 현대 개발 사옥도 케빈 로쉬(Kevin Roche)와의 공동 작업이다. 동부 금융 센터 역시 그 전신인 서초동의 동부 강남 타워를 설계한 미국의 Kohn, Pederson, Fox(KPF)사에 의해 설계 되어야 하므로 테헤란로의 스카이라인은 미국식 자본주의의 왕관들로 절정을 이루게 될 지경에 이르렀다. 바야흐로 ‘애브뉴 오브 아메리카’가 조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

김 석 환
터·울건축사사무소
by Kim Seok-hwan, KIRA

소나무 기행

An Account of Travel for Pine trees

feature

지난9월초 소나무를찾아다니는모임에 참가하여지리산등지로소나무기행을다녀왔다. 억지로집을 나서서목적지에당도하고나면정말오기잘했다고생각했던경험이많기에줄린걸음을재촉했다.

우리는이땅에살면서소나무를늘보아왔다. 그것은전국에걸쳐가장흔하게만날수있는수종이어서늘우리곁에있을것처럼여겨진다. 그런데작년소나무천적이라불리는재선충의확산으로장차소나무가위기를맞을거라는소식을듣고부터소나무의존재가더특별히의식되었다.

대다수사람들은소나무를민족적정서로대하기쉽다. 하지만건축을하는우리는그에관해전문적인식도갖고있다. 목재는고대이래로가장흔히쓰인건축재료중하나였으며특히동양에서는그에의한건축양식이대다수를차지했다. 그리고목재가운데서도소나무가가장많이쓰였다.

건축에쓰인소나무는건축적필요에의해베어진다. 그래서소나무입장에서는건축하는사람들과는애정을주고받을수없을것같다. 그러나큰목수들은큰재목의즐감을찾으며경외의눈길을보냈다. 그리고그것으로영원히썩지않는집을짓고자혼을불어넣었다.

소나무기행에서처음만난의암송

11시5분장수 IC로들어가서 19번국도로접어들었다. 그리고 20분쯤 후에 장수면사무소에 도착해서 그 영내에 있는 의암송을 보았다. 의암송은 논개가 의절한곳인 남강 의암(義岩)에서 따온 말이다. 그래서 ‘주논개 소나무’라고도 부른다. 의암송은 밑둥이 울퉁불퉁 용틀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었는데, 그것은 생명체로서 거친 풍상에견디며자신을꼭꼭이 지키는과정에서생긴모습인듯했다. 그리고 그모습에 정말논개의 의연한삶이 서린듯 보였다. 소나무 여행에서 첫 대면한 나무인 의암송의 느낌이 딱 좋았다. 이 모임의 답사 대상은 대개연륜이오래된큰소나무들이다. 그런소나무는 일반적인소나무수종과는다른특별한기운이느껴진다.

의암송을보고난 일행은장수면내에있는논개고을식당으로가서 12찬정식을먹었다. 반찬으로는그지역에서나오는맛있는나물반찬이많이나왔다. 1시 50분, 식당을나와천년송을보기위해지리산 안으로 들어갔다. 지리산국립공원 뱀사골관리소 앞주차장에 내려 뱀사골매표소를통해계곡옆길을따라걸어들어갔다. 길양옆의나무가우거져그늘을이룬 나지막히경사진숲길을걷는기분이 상쾌했다. 승용차를 타고온 사람들이거기서부터 천년송을오가며 일행을점차태워주기로했으나나는끝까지걸어가려고마음먹고있었다.

지리산와운재의천년송

산길을혼자걷다 보니평소유심히보지않았던구름의 흘러감이나 개울소리등 본래자연의 성품을보고 느낄수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차 안에서 들은 ‘와운재’라는 말이 풍기는 정경을 상상하며설레는마음으로길을걸어갔다. 그길로가면 ‘부운재’도있는데그것은흔한느낌이 드는데비해 와운재라는이름에서는 신선한언어적느낌이들었다. 뜻밖에만주친산중가게를지나다시한참을 걸어가니 길이좌측으로 연결되는다리가나왔다. 그다리가 걸쳐진 위로는뱀사골계곡이고, 와운골은다리를건너이어진길을계속따라가야한다. 오르막길에서와운골쪽산마루위로현구름이누운듯 머물러 있었다. 한적한 산길, 주변 산자락, 하늘이함께 그림처럼 어우러진모습이었다. 거기서 10분쯤더걸어들어가와운리에도착했다. 그마을에서사는듯한할아버지가, 아까부터한꺼번에몰려온낯선일행의분주한움직임을뒤쪽에서바라보고계셨다.

천년송은 산비탈 경사지에 서 있어서 그 주변이 평평하지는 않았지만, 위쪽의 ‘할아버지소나무’로갈수있게판자로 깔아놓은길까지넓게뻗은줄기가그늘을드리우고있었다. 그리고일행이그길에 앉아천년송을보고있었다. 그것은단지한그루의나무일뿐이었지만하늘로솟구쳐서주변에보이는지리산산세보다더큰기운을내뿜으며주변을다아우를듯서있었다.

우리는산에서 자란나무들을자연자체로인식하기 쉽다. 하지만 큰소나무가그렇게서있는것은그자신이생명체로서험한위기와



천년송



지리산산세를아우르는천년송

풍상을 견디어 내려는 의지의 소산일지도 모르며, 주변의 다른 나무들과의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것일수있다. 그래서 어느 세월 이상을 살아온 나무들은 하나의 생물 이상의 존재감을띠게되는것이고, 이곳저곳에 있는 소나무가 서로 다른 모습을띠는것은각기다른생의 터전과 생존과정에서 생겨난얼굴일것같았다.

4시 30분경 천년송을 뒤로



의암송



달밤의 가야금연주

하고산을내려왔다. 그날숙제는다한셈이다. 남은시간에기대할 것은맛있는 저녁식사와그 이후의시간이다. 거기서식당까지는 멀 지않아서 20분쯤후에식당에도착했으나너무이른시각이어서준 비가다되어있지않았다. 밖에서기다리는동안부산에서오신사진 가 장국현 선생님이 갖고 온 사과를 나누어 주었다. 일행은 그 사이 서로에게친근감을느낀듯반씩조개어엿사람에게건네주었다. 조금 후 식사가준비되었다고 하여안으로들어가니 상마다음식이 푸 짐하게차려져있었다.

6시 20분, 식사를마치고숙소로향했다. 덕산쪽으로가는길가의 가옥곳곳에서저녁밥짓는 연기가피어오르고 있었다. 그이후에는 방을 정한 다음 전영우 선생의 소나무 강의와 조연환 전산림청장의 강연, 이동희선생의가야금연주가예정되어있었다. 전영우선생님 은 몽골과 러시아를 다녀오시면서 그쪽 소나무를 답사한 내용으로 강의하셨다. 말미에는로마쪽 소나무도 곁들여보여주셨다. 강의를 들은후 일행은야외 캠프파이어장으로이동했다. 일행이그런 숙박 지에서내심기대하는것은저녁이후의, 예상하지못한낭만적인분 위기일것같았다.

나무만큼큰사랑을가진사람이있을까?

거기서먼저조연환 전산림청장의강연을들었다. 나무는자기 근 본자리를 옮기거나 버리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서 생을 마감한다면 서, 나무만큼큰사랑을가진사람이있는가? 라며, 나무야말로하나 님을가장 닮은피조물이라고 생각한다고했다. 그리고성현들은 여 러 모로 소나무를 닮은 것 같다는 말도 했다. 이어서 가야금 연주가 이동희선생이천년송을연주했다. 이번소나무 기행은소나무를 보 고, 소나무에대해시를읽고소나무에대해그림을그리고소나무에 대해강의하는, 소나무예찬의연속이었다. 연주를듣는사이한쪽에 서는장작불을피우고막걸리와 두부를상차림하고 있었다. 첫 곡이 끝나자일행이앵콜을합창했고청에못이겨연주가이어졌다. 일행 은청중이되어밤하늘아래서조용히숨을죽이며듣고있었다. 가야 금 특유의 가냘프고 예민한 선율이 밤공기를 가르며 각자의 마음에



마천면소나무

흘러들었다. 연주가 끝나자 모 두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일행은 장작불 쪽으로 이동 하여차려진음식을먹었다. 장 작이타서알불이쌓여질쫄은 박지에싼감자를넣어두었다. 넣은 감자가 구워지기까지 몇 분이 호출(?)되면서 이야기와 노래가 이어졌다. 소나무를 보 기 위해 각자 집을 떠나 왔지 만, 여행에참가한유대감에의 해 모두가 참여한 즐거운 시간 이 되었다. 그리고흐르는 시간만큼낭만적인 분위기되고조되어 갔 다. 그렇게한참시간이흐른후모닥불이사그라지듯, 사람들도서서 히흠얼질마음의채비를갖췄다. 그래도밤을하얗게새워도좋은만 큼열정이 가득해보이는 사람들은남아서 다음행로를생각하고 있 는 듯했다. 10시 30분쯤 하나둘씩 그곳을 떠나 각자 정해진 숙소로 내려갔다.



의암송스케치

스스로서자라온품을만들고있는마천면소나무

아침을 먹고 9시 40분경 숙소를 출발하여 마지막 남은 마천면의 소나무를보러갔다. 내려가는차창밖으로막시작된깨끗한가을날 씨가느껴졌다. 들녘에선얼마전고개를내민벼가연노란색으로변 해가는중이었다. 자연은거스를수없이운행되며사물을변화시킨 다. 시선을올려다보니멀리지리산정상부근의산자락이구름에쌓 여신령스런느낌을자아냈다.

10시 20분, 버스가 임천강을 건너는 긴 다리 입구에 도착해 일행 을내려주었다. 전영우선생이다리위에서소나무가있는곳을가리 키며 방향을알려주어, 그쪽을향해 난 길을걸어갔다. 앞서건다 보 니 뒤에오던 차가옆으로 지나쳐 갔다. 조금 가니갈림길이 나왔다.



마천면소나무 아래의일행

바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확신이 없어 뒤에 오는 사람을 기다렸다. 뒤에 오던 사람이 차로 간 사람에게 전화를 거니 곧바로 직진해서 오라고 했다. 그 말을 믿고 계속 갔으나 점차 목적지로부터 멀어지는 느낌이 들어 불안하였다. 가늠되는 곳은 바로 위인데 길은 빙빙 돌러가고 있었다. 간사가 앞사람과 연락을 하더니 그래도 그 길이 맞는다고 했다. 가는 길 주변 풍경은 영화서편제에서 주인공들이 걸어가던 풍경과 비슷한 인상이었다. 마을에서 기다리던 일행을 만났다. 순박한 정이 배인 마을 어귀를 지나 조금 높은 위치에서 다시 들녘 풍경이 펼쳐졌다. 그곳에 가기까지 길을 잘못 든 것은 아닌지 조바심을 내기도 했는데 느린 길과 평화로워 보이는 다랭이는 풍경에 기분이 맑아졌다. 산길을 제법 올라가니 마침내 아래쪽 우측으로 소나무의 무성한 윗부분이 보였다. 길가의 큰 바위에 올라가 그쪽을 내려다보니 한눈에 상상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졌다. 가까이 내려가니 먼저 도착한 몇 분이 편안한 얼굴로 그 분위기를 느끼고 계셨다.

소나무는 스스로 서서 자라온 품을 만들고 있었다. 너르게 펼쳐진 가지가 옆으로 멀리 퍼져 나가서 그늘을 만들며 그 소나무만의 공간을 만들어 내었다. 너른 지반이 있고 건물의 몸체 같은 줄기가 있고 사방으로 뻗은 가지와 솔잎이 지붕처럼 공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건축적인 느낌이 들었다. 흔히 이런 곳에는 선조들이 정자를 지어놓곤 한다. 하지만 여기는 소나무 주변의 넉넉히 담인 공터가 소나무를 더 빼어나 보이게 해서 정자보다 훨씬 더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앞쪽 절벽 밑으로 시야가 훤히 트여 있어서 우리가 걸어온 임천강과 그 뒤로 보이는 지리산 자락의 산세가 그림처럼 어우러져 보였다.

펼쳐진 나뭇가지 사이로 살랑바람이 트여나가고, 살아있는 솔내음이 풍겨났다. 일행은 밑동에 귀를 대며 소나무의 울림을 듣기도 하고 그늘에서 소나무의 정겨움을 느끼며 그 고상한 존재와 너른 시선을 음미하고 있었다. 가기까지는 덤덤하지만 막상 그곳에 당도하면 모두가 떠나고 싶지 않아서 인솔자가 몇 번이나 채근했다. 대상지에도 착해서는 좀 더 음미하려는 미련 때문에 발길이 쉽게 돌리지 않는 것이다. 11시 40분에 소나무를 떠나 내려가 기다리던 버스를 탔다.

우리가 예약한 식당은 함양 상림 숲 바로 앞에 있었다. 점심 메뉴는 생선구이 찜밥이었다. 서울에서 출발할 때 전영우 선생이 이번 여행 내내 좋은 먹거리가 풍성할 거라고 예고한 대로 푸짐한 식사였다.

신라때 인공조림한 함양 상림



함양 상림

점심 식사를 마치고 신라 때 고운 최치원 선생이 홍수 조절을 위해 인공으로 조림했다고 하는 상림 숲을 보러 갔다. 바로 앞이어서 각자 보기로 했다. 그런데 아까 소나무를 보러 갈 때와 달리 그냥 소풍 가는 듯한 걸음이었다. 소나무가 아닌 떡갈나무 숲이기 때문인 것 같았다. 숲가운데 공터에 잔디가 깔려 있는 공원 같은 분위기여서 인근 고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듯, 여기저기 가족들이 편하게 쉬고 있었다.

상림 숲을 본 다음 따로 온 몇몇 일행과 작별하고 2시 5분 함양을 출발, 고속도로를 따라 올라왔다. 차 안에서 답사에서 본 소나무들을 떠올려 보았다. 소나무는 우리 민족의 기상과 절개를 상징하는 나무로 교육받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그냥 소나무 전체에 관한 관념적인 것이고 이번엔 몇 그루의 큰 소나무를 보러 가는 것이었는데 소나무가 이루어내는 공간을 정서적으로 느낄 수 있는.... [출처]

이 용 환
(주)화영건축사사무소, 본협회회원협력위원회부위원장
by Lee Yong-hwan, KIRA

건축과 미술의 구름다리

- 2006 전국건축사 미술전을 마치고

Connection Bridge between Architecture
and Fine Art

-Afternote on 2006 Fine Art Exhibition by Architects

feature

대한건축사협회 주최로 지난 9월 13일부터 5일간 COEX에서 열린 ‘2006 건축산업대전’ 축제와 더불어 ‘2006 전국건축사 미술전’ 행사가 많은 건축인들의 성원과 일반인들의 관심 속에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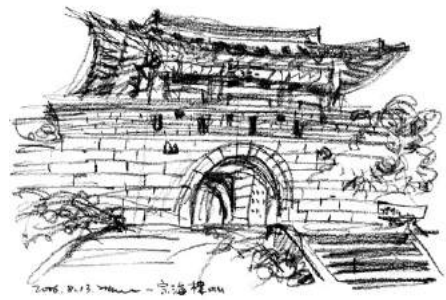
건축을 실현하면서 문화창달에 앞장서나아가는 우리 건축사들의 창작활동의 모체인 대한건축사협회가 출범한지도 반세기가 가까워져가고 8,000명 회원으로 성장한 협회로서 볼 때 미술부분의 행사로서는 늦은 감은 있으나 협회가 주최하는 전국 규모의 첫 번째 회원 미술전이라는 점과 더욱이 국내 최초의 건축 전문 전시회로서의 건축산업대전과 맥을 같이 하였다는 데 건축문화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본협회의 회원협력위원회에서는 3년 전부터 전국 건축사 미술전 개최를 추진하여 왔다. 그 취지는 건축사들의 예술정신을 고취하면서 전국적으로 흩어져 활동하는 회원 작가들의 작품을 한 데 모아 전시함으로써 내적으로는 교류의 장을 넓히고 외적으로는 건축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새롭게 함으로서 건축사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건축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었다. 현실적인 문제로 건축계의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하여 침체된 건축사들의 환경이라든가 협회 예산의 어려움도 있었으나 언젠가는 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여 거시적인 안목으로 준비하게 되었다.

건축사들의 미술활동이라면 그 폭이 넓어서 단순한 취미 활동으로부터 개인전을 했거나 프로 작가로 등단하여 왕성한 작업을 하는 분들까지 다양하고, 순수 미술이 아니더라도 응용 미술 부분의 디자인 관련 작업을 하는 분들과 숨은 작가들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헤아릴 수가 없을 것이다. 스포츠 동호회나 친목 행사와는 달리 미술 전 행사의 특징은 분야와 테마에 따라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2006년국건축사미술전개막식



스케치중에서-전등사입구

작가마다개성을중시하며전시회의테마에도민감하기때문에성격이 다른 작품들을한 장소에모아서펼치는 방법이수월하지는 않은 것이다. 따라서 미술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하면서 건축사 동호회라는 동질성과 작품의 다양한 가능성에 전시회의 초점을 맞추기로 하고 전시회의 규모와 구성요건, 장소와 시기, 특히예산과맞물리는가 변성있는문제들을협회측과꾸준히협의해가되, 우선각지역건축사회별로미술동호회현황파악으로부터시작하게되었고많은분들의노력으로결실을보게된것이다.

그간 각지역별 건축사미술동호회는이미 20여년전부터 최근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 문화단체와 연계하여 정기전시회를 하거나 지역 건축사들의 사생모임, 스튜디오 개방형식의 모임 등 다양하다. 전국적인 규모로는 건축계 전반의 작가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건축가 미술동호회(약칭 건미회)활동이 10여년 전부터 이어오고있으며널리알려져있다. 그간의출품내용들을살펴보면, 유화수채화등구상작품이외에도색다른매제를활용한비구상, 인체 크로키, 펜화, 건축의컨셉드로잉, 동판화, 조각, 설치작품, 서예, 사진등. 광범위하게기량을 선보이며일반인들과 예술계의큰 관심을 끌면서 건축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이번 전시회는건축사들의 이러한일상의미술작업과표현의 연장선에서 통합전시회로서의공식적인출발이라고할수있다.

출품작가 대상은 본협회 회원이면 누구라도 가능하며, 작품의 내용은 장르의 구분없이 회화(드로잉 포함), 조각, 설치미술, 사진까지 포함하여광범위한분야의출품이가능하도록일반적인기준을설정하였다. 작품 크기는제한이 없지만전시장의 규모를생각하여 평면 회화일 경우 가로 1.2~1.5m이내(20호 작품의 액자포함 최대치수)를기준으로하였다. 가장 어려운문제였던 전시회장소를 협회에서 제공하였고, 예산도협회로부터상당 부분을지원받는 데힘입어 전시도록 제작 인쇄 및 행사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족분에 대해서는출품작가들에게약간의출품료를책정함으로써해결할수있었다.

과거의 전시회 경험들이 있었기에 진행 과정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전시회 개최를 결정한 이후의 구체적인 준비기간이 짧았던 관계로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회원들의 최근의 현황 파악과 홍보의 어려움이 있었고, 지역동호회와 상호간의연대감 조성기회가 부족

했던 점그리고단체 출품약속을했지만지역별자체 정기전시회와 일정이 겹쳐부득이개별적으로출품할수 밖에없었던몇몇 대도시 건축사회라든지, 홍보가미치지못한분들, 출품에대한자신감에망설이는 분들로 인하여 기대하였던 것보다 출품작가의 수가 적은 점이조금아쉬웠다.

건축사들의자유분방한기량을선보이는미술전의출품작이일반적인평면회화들로채워진점이라든가행사본부에서 일괄적으로마련한부스설치용칸막이, 디스플레이용구, 조명설비등전문적인미술전시회로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좋은 의견들을 향후 전시회에반영하여더욱발전시킬수있다는확신을갖게되었다.

비록개성있고다양한미술작품들을좀더풍성하게 볼수없었지만많은관람객들의관심과호평속에, 특히학생층을비롯한젊은애호인들과 폭넓은 대화의 장을 나누면서 전국 건축사들의 순수한 작품들로구성된첫번째미술전시회를성공적으로마침으로서대중들속에건축사에대한인식을새로이부각시키고출품작가들과건축사들의보람과자부심을키워갈수있었다.

이번전시회를통해건축사의영역과미술이한울타리속에서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고, 앞으로는 강호의 숨은 작가들이 많이 참여하여 보다 광범위한 예술과의 교류를 모색하며 융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매년 정기적으로 미술전을개최하는데모두의뜻을모으는큰수확을거두었다.

이전시회를 성공적으로이룰수있도록해주신 이철호회장님을 비롯하여 준비와 실행과정에서 애써주신 강석후 이사님, 김규성 회원협력위원장님, 이원희 위원님 그리고 조언을 아끼지 않은 서울건축사회 강성익 회장님과 실무적으로 많이 노력하신 협회의 장영인 실장님께감사를드린다.

아울러서 건축사 미술전 출품에 대해서 망설이거나 특히 그림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기에 이분들께 다소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여그림에관한필자의평소생각을올려드린다.

- * - * - * - * - *

역사흐름의 통시적시각으로볼때건축과미술이 불가분의관계

가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고 건축을 종합예술이라고 하는 저류에는 일차적으로조형예술인미술정서와심상이그시대의거울로서건축에 새겨져 왔다. 그런 면에서 건축사들의 미술활동은 본연적으로 자연스러운 행위라 할 수 있겠고 그 시작과 궁극의 길은 모든 ‘드로잉’의 길과통한다고 생각한다. ‘Draw’는그린다는뜻이지만 ‘끄집어낸다’는 어원으로 관념과 이미지를 감성과 자기 개성으로 추출해서시각적으로표현하는원초적행위라고 본다.

이처럼 드로잉이 모든 그림의 궤도로 통하고 회화로서 통칭하는 그림이 전업화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건축사들의 드로잉은미술이다.”라고하는데무리가없을것이다. 금세기나 이전에도많은 건축전공자들이 세계적인화가로서명성을떨친예를 보아왔고, 화가못지않은회화적기량을갖춘건축가들이주옥같은작품으로감동을주는것을볼때, 건축사들이야말로미술과가장밀접한직업이라고도하겠다.

예컨대우리가일상적으로다루는건축주의이해를돕기위한 ‘개념 스케치 나 문득 영감이 떠오를 때 메모하는 ‘아이디어 낙서장’, 스탭들에게 설명자료로넘겨주는 ‘프리핸드스케치 나 최근의 디지털 기기를회화적으로 활용한’ 디지털드로잉’ 등등그 어떤것이라도 작가의 정신이 배어 있다면 충분히 하나의 완결된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본다. 모형작업이나 형태의 갖가지 시뮬레이션 작업을하는경우또는장식적디테일을디자인할경우, 건축을빛어가는 과정에 따라 화가, 조각가, 때로는 설치미술가, 공예가가 되기도 한다. 개념이나대상을접하는태도와행위그자체에동기와확신그리고열정이있다면직업이나스킬여부를떠나예술행위인것이다.

회화의 경우, 캔버스 그림이 평면회화이고 조각이 입체회화라면 건축은모든 것이회화적이라 해도과언이 아닐것이다. 자연이라는 캔버스에도시의경관, 빛을따라변화하는질감, 풍상의흔적과함께 세월의에피소드를담은무명의 건축물, 행위에 따라분위기가 변하는공간의 구석구석, 수많은 장식적디테일까지 회화적요소가 아닌 것이없다. 건축사가그림을 그리면서회화적인 대상을유추하여 건축의아이디어로반영한다거나건축의소재를드로잉을통해회화작품으로표현하는작업이야말로미술활동으로손색이없다고하겠다.

그럼에도불구하고많은분들이각자의드로잉을통해서잠재력을 발견하고 센스를 개발하려고 하기에 앞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을저르기 두려워하거나, 미술 전공여부에 집착하거나, 심지어는 전시회출품하려면특정환경에서유명한작가에게오랫동안사사해야만 한다거나 하는 등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스스로 “남들처럼 그럴듯하게 잘 그리지 못한다”는 의식이잠재해있는것이다. 그림을그린다는것은표현하고싶은대상을손을통해서 “마음으로그린다”는데있다. 따라서유치하게보이는듯한그림일수록 순수한그림이많고능숙하게 그려진그림보다도 솔직한심상의개성으로표현한그림의가치가더욱빛나는것이다.

그림을 시작할 때 좋아하는 작품의 모방습작을 통해 자기의 것을 만들어 갈 수 있다면 다행스런 일이겠지만 특정한 방법론에만 치우친다거나 기존의 어떠한 틀이나 화풍, 테크닉을 따라가려고만 한다면개성을상실할수가있다. 따라서다양한전시회를많이접하면서남의작품이나새로운경향을통해자기발견을하며미술에대한안목을키워갈필요가있다. 잘알려진작가의전시회보다무명신인작가들의 파격적인테마, 실험작 등을감상하면서 건축의새로운 경향의 흐름과비교해보는 것도흥미로운 일이다. 학생미술전이나 건축학도들의 미술동아리전시회도 신선한자극과 감동을불러온다. 그림을 그릴수록 자연스럽게 전시회와 접하는 기회가 많아지고 많은 작품을 감상하면서 알게 모르게 조형적인 자신감이 쌓여가고 이에 따라 건축작품의격조도 높아지게될것이다. 이러한내용들은 그림뿐만아니라건축의프로세스에속하는입체나설치작품의경우에도 해당된다고하겠다.

건축을한다는자체만으로도미술에대한자부심을갖기에충분하다. 오히려 제도권미술교육을 받지않은 건축사들의그림은 너무나자유롭고개성적이다. 이러한좋은여건에있으면서, 또한수많은전문직 중에서 미술과가장 가까운 분야가 건축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림에대하여종종이렇게푸념섞인얘기들을한다.

“우리는 아마추어 수준인 걸” “나는 손재주가 부족해서”, “배울 시간도없고그릴시간도없어서”, “도무지마음의여유가생기지않아서”, “그림그리는것이외도하는것같아서”...

이런분들께는다음과같이말씀드릴수있다.

“건축과그림을병행하는즐거움은 ‘아마추어리즘’의신선함이고우리들이누리는특권입니다.”

“내손재주가부족함이아니라남의손을쳐다보기때문입니다.”

“창너머벌딩풍경이나현장의움직임, 대화하는건축주의인물스케치라도할시간은있으시겠지요”

“건축의 행간마다 그림을 채워간다고 생각하면 마음의 여유가 저절로생깁니다.”

“건축과그림은백년해로하니까외도가아닙니다.”

덧붙여서꼭드리고싶은말씀이있다.

“남이 못 그리는 내 그림만이 나의 재산이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가장빠른시점입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관람객들로부터 많이 들은 이야기 몇 가지를 소개하면 “어쩌면!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림들을 잘 그리는 줄은미처몰랐어요.”, “건축도예술이네요.”, “화가들보다재주가다양하네요.”등등솔직한느낌들이다.

건축사님들이여! 이제부터라도 자유롭게 드로잉을 생활화하시고 미술전에많이참여하시기바란다. 

협회소식_kira news

이사회

■ 제9회이사회

2006년도 제9회 이사회가 지난 9월 12일 오후 2시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신축회관 2차공사변경사항및 협찬자재 결정의 건과 신축회관내 서울건축사회 사용면적 결정의 건, 신축회관 임대사업계획 결정의 건, 경기도건축사회 제명자 미납회비 결손처분(안) 승인의 건, 2007년도 예산편성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이 논의되었으며, 협의사항으로 건축물유지관리법 제정에 관한 건, 교육청발주 교육시설 설계 및 공사감리문제에 대한 대책의 건, 건설자재표준화연구를 위한 양해각서체결에관한건과기타사항이 논의되었다. 주요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의안건

- 제1회의안: 신축회관 2차공사변경사항및 협찬자재결정의건
 - 신축 회관건립에 따른 지표면 조정관련 공사와 냉난방 공사 계약금액을 일부 조정하고, 협찬자재의 품목을 정함.
- 제2회의안: 신축회관내 서울건축사회 사용면적결정의건
 - 서울건축사회에서 1개층(5층)을 사용하도록 함.
- 제3회의안: 신축회관임대사업계획결정의건
 - 회장에게 위임함.
- 제4회의안: 경기도건축사회 제명자 미납회비결손처분(안) 승인의건
 - 원안대로 승인함.
 - ▷결손처분대상자: 15명
 - ▷결손처분액: 7,824,000원
- 제5회의안: 2007년도 예산편성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건
 - 회장에게 위임함.

▲협의사항

- 제1호: 건축물유지관리법 제정에 관한 건
 - 건축물유지관리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임원모두가 적극 노력하기로 함.

- 제2호: 교육청발주 교육시설 설계 및 공사감리문제에 대한 대책의건
 - 본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하고 건축문화신문등을 통하여 공론화하기로 함.
- 제3호: 건설자재표준화연구를 위한 양해각서체결에 관한 건
 -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하되, 체결 당사자간의 직위문제와 회원의 연구참여 등을 협의하여 보완하기로 함.

▲기타사항

- 건축사등록기구 설립에 따른 임시총회 소집문제는 좀더 추이를 지켜본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함.

위원회회의

■ 제14회 건축문화신문편집위원회의

2006년도 제14회 건축문화신문 편집위원회 회의가 지난 9월 18일 오전 10시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건축문화신문 2호지면구성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건축문화신문 2호지면 구성에 관한 건
 - 2호지면구성에 대해 논의함.

■ 제15회 건축문화신문편집위원회의

2006년도 제15회 건축문화신문 편집위원회 회의가 지난 9월 21일 오후 4시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건축문화신문 2호지면구성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건축문화신문 2호지면 구성에 관한 건
 - 2호지면구성에 대해 논의함.

■ 제16회 건축문화신문편집위원회의

2006년도 제16회 건축문화신문 편집위원회 회의가 지난 9월 25일 오전 10시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건축문화신문 2, 3호 지면 구성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건축문화신문 2, 3호 지면 구성에 관한 건
- 2, 3호 지면 구성에 대해 논의함.

■ 제17회 건축문화신문편집위원회의

2006년도 제17회 건축문화신문 편집위원회 회의가 지난 9월 26일 오후 4시 CTS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건축문화신문 2호 지면 구성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건축문화신문 2호 지면 구성에 관한 건
- 2호 지면 구성 수정 사항에 대해 논의함.

■ 제18회 건축문화신문편집위원회의

2006년도 제18회 건축문화신문 편집위원회 회의가 지난 9월 29일 오전 10시 30분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건축문화신문 3, 4, 5, 6호 지면 구성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건축문화신문 3, 4, 5, 6호 지면 구성에 관한 건
- 3, 4, 5, 6호 지면 구성에 대해 논의함.

■ 제19회 건축문화신문편집위원회의

2006년도 제19회 건축문화신문 편집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 10일 오후 3시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건축문화신문 3, 4, 5, 6호 지면 구성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건축문화신문 3, 4, 5, 6호 지면 구성에 관한 건
- 3, 4, 5, 6호 지면 구성에 대해 논의함.

■ 제10회 법제위원회

2006년도 제10회 법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9월 27일 오후 2시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건축기본법 제정에 관한 건, 교육청의 설계·감리 발주용역에 관한 건과 기타 사항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건축기본법 제정에 관한 건
- 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있는 건축기본법의 초안을 각 위원들이 검토·정리하여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 제2호: 교육청의 설계·감리 발주용역에 관한 건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시·도 건축사회의 협조로 교육청 발주문제에 관심 있는 의원을 찾아 자료를 제출할 수도록 추진하기로 함.

▲ 기타사항

- 이진구 국회의원으로부터 의견조사가 요청되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를 검토한 결과
- 동규정은 발코니 변경 시대 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피난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신중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며,
- 법령개정 당시 기존에 검토된 우리협회의 의견을 확인하여 일관성 있게 의견을 제출하기로 함.

■ 제4회 회원협력위원회

2006년도 제4회 회원협력위원회 회의가 지난 9월 28일 오전 11시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06 전국 건축사미술전」 개최 결과에 관한 건, 「대한 건축사 등산연합회」 행사 개최에 관한 건, 「2007년도 위원회 사업계획」에 관한 건과 기타 사항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2006 전국 건축사미술전」 개최 결과에 관한 건
- 건축과 미술이라는 두 분야를 조화시킴으로써 문화적 성과를 이뤄 건축의 위상을 제고 시켰으며 회원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향후 전국적인 연합회 결성의 계기가 된 것으로 평함.
- 미술전 개최 시 소위원회 구성을 통한 탄력적인 준비로 원활한 행사가 되었으며 내년 행사에는 많은 인원이 출품할 것으로 예상함.
- 협회 지원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에 결산 보고하기로 함.
- 제2호: 「대한 건축사 등산연합회」 행사 개최에 관한 건
- 조병섭 위원으로부터 9월 2일 전국적으로 59명이 참석하여 계룡산에서 등산연합회가 발족한 것에 대해 보고를 받음.
- 전국 건축사 등산연합회 첫 행사로 오는 11월 11일 대둔산에서 첫 행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본 협회의 예산 지원을 요청함.
- 제3호: 「2007년도 위원회 사업계획」에 관한 건
- 각 문화체육 분야별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 기타사항

- 축구, 미술, 등산 등 각종 동호회 모임의 명칭 통일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음.
- <예: 전국 건축사 ○○연합회, 대한 건축사 ○○동호회 연합회>

■ 제1회 건축문화전당사업간담회

2006년도 제1회 건축문화전당사업 간담회 가 지난 10월 11일 오전 11시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건축문화의 전당사업 부지 선정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건축문화의 전당사업 부지 선정에 관한 건

- 「건축문화의전당」사업부지 선정을 위해 서울·인천·대전·경기건축사회 회장들이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장과 우선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하고, 구체적인 사업제안서는 협상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위원회에서 마련키로함.

■ 제1회예산편성위원회

2006년도 제1회 건축문화전당사업 간담회가 지난 10월 11일 오후 2시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위원회에서는 건축문화의전당사업부지 선정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2007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관한 건
 - 2007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관해 대체 토론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편성 기본 방침을 합의하고, 본협회 각 위원회와 시도건축사회 등에 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관련 의견을 예산편성위원장 명의로 요청, '06. 10. 27일까지 제출받기로함.
- 제2호 : 2007년도 예산편성 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선임의 건
 - 2007년도에 추진할 세부적인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의 편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함.
 - 예산편성소위원회구성
 - ▷위원장: 정명옥
 - ▷위원: 김규성, 전영철, 조성원, 한명수(가나다순)
- 제1회 예산편성 소위원회를 2006. 10. 25(수) 11시에 개최하기로함.

‘민주지산삼도봉등반행사’성료

전북건축사회가 주관하는 ‘삼도봉 등반대회’가 지난 10월 13일 개최됐다.

‘삼도봉 등반대회’는 인근지역 건축사회간의 친목도모와 우의증진을 위하여 매년 전북·경북·충북건축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서 올해 행사에는 건축사회 회원 및 직원

110여명이 참여하여 3개 건축사회별로 삼도봉 등반 및 건축사업개발전을 지원하는 산신제와 회원간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건축사협회, 인터넷증명발급시범운영

우리협회는 건축사 회원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인터넷 증명발급시스템을 구축해 10월부터 연말까지 시범운영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증명발급 대상은 건설기술자 경력(보유)증명서 [2종], 건축사업무실적 설계(감리)업무실적증명서 [2종], 건축사보경력증명서 [1종]이며, 건설기술자 연회비(개인, 사무소용) 확인 및 납부도 전자결제를 통해 처리된다.

증명서출력을 위해서는 협회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 사용자 아이디와 공인인증기관 및 등록대행기관에서 발행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2006 제주특별자치도건축문화대상 작품공모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와 대한건축학회 제주지회, 한국건축가협회 제주지회 등 제주건축 3단체에서 실시하는 2006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문화대상의 응모요강이 발표되었다.

• 준공건축물부문

- 응모작품 : 제주특별자치도내 2006년 10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준공) 완료된 건축물(※제주도내 4개시·군 건축상수상작 제외)
- 응모자격: 출품건축물의 대표설계자
- 원서교부 및 작품접수 : 2006년 10월 4일 ~ 11월 7일 17:00시까지(※우편접수일 경우 마감일도 착분예한함)

• 계획건축물부문

- 응모작품: 주제의 제한은 없으나 계획 대상지가 제주특별자치도내 인창작작품
- 응모자격: 국내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재학생(2인1팀가능)
- 원서교부 및 작품접수 : 2006년 10월 4일 ~ 11월 7일 17:00시까지(※우편접수일 경우 마감일도 착분예한함)

• 작품접수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사무국

• 수상발표 및 시상·전시

- 수상작발표: 2006년 11월 11일
- 시상식: 2006년 11월 15일
- 수상작전시 : 2006년 11월 15일 ~ 11월 18일

- 문의: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사무국
064-752-3248,
<http://jira.kira.or.kr>

회관신축공사진행경과

(2000년 9월 30일 현재)

공사진행현황

06. 9월중 진행된 우리협회 회관신축공사의 건축공정은 커튼월 창호공사, 주출입로비석공사, 엘리베이터설치공사, 복도칸막이(S.G.P)설치공사, 화장실 타일붙이기, 옥상층바닥마감공사등의주요마감공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전기및소방공정은 PIT내케이블 트레이 설치공사와 전등설치 공사, 냉난방 배관공사등이진행되었다.

설계변경사항으로는 외부 동측옹벽공사에 대해 인접대지경계선을 고려하여 당초 기존 옹벽상부에 설치기로 한 신설옹벽을 기존옹벽 내측으로 변경기로 하였고, 회관 옥탑층 상부에 설치된 철골구조물에 대해 회관으로서의 상징성을 고려하여 철골구조물 색상을 원색계열로 변경기로 하였다. 그리고 당초 후면 노출 피난계단에 설계된 알

미늄그릴바에대해향후강우및폭설등에 대비한 사용상의 안전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커튼월창호로변경기로하였다.

신축회관 다목적 강당 및 국제회의실 인테리어 공사는 조속한 공사진행을 위해 회관건립위원으로부터추천된공사업체중에 정공사비내의우수한설계안과적정한공사비를 제안한 (주)우슬재디자인과 06.10.2 일인테리어공사계약을체결하였다.

따라서, 회관신축공사의 공정진행은 06.9월말 현재 83%(계획 85.26%)의 공정율을보이고있다.

회관건립위원회회의현황

06. 9.11일개최된제16회위원회에서는 시공자로부터청구된기성금(4회분)에대해

협회 기성금 지급기준에 따라 감리자 검토 금액의 95%를지급기로하였다.

회관인테리어공사발주에대해서는설계경기심사결과공사업체를선정하지못함에 따라, 지연된 인테리어 공사를 조속히 발주하기위해회관건립위원으로부터지명추천된인테리어공사업체로부터각각설계안을 제안받아 예정공사비내의 적정업체와 수의 계약으로공사를진행기로하였다.

06. 9.25일 개최된 제17회 위원회에서 는 회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회관건립위원으로부터 지명추천된 공사업체로부터 제출된 다목적강당 및 국제회의실에 대한 설계안 및 공사비 등을 최종 검토하여 공사업체를 결정하고, 세부 계약협의를 진행기로 하였다.



엘리베이터설치공사



옥상층바닥마감공사



사무실복도칸막이SGP 공사



공사전경



투시도

‘박수근미술관’ 10월의 건축환경문화로 선정



대통령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위원장: 김진애)는 강원도 양구 농촌마을의 ‘박수근미술관’을 10월의 건축환경문화로 선정하였다.

강원도 양구군 박수근 화백의 생가 터에 주민과군청공무원등이함께협력사업으로건립한미술관은 2002년 10월에개관하여박수근유족이 기증한미공개스케치및 수채화, 판화, 엽서모음, 스크랩북등의작품과생전에 사용하던 안경, 연적, 편지·도서 등의 유품, 생전에 박수근 화백과 가까웠던 화가들이 기증한 작품 등 270여점이 전시 되어 작가의 예술론과 인생관을 기리는 동시에 양구군의 지역문화 산실로 다시 태어나 후세들에게 문화·예술과 환경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건축환경문화특별위원회위원인박경립교수(강원대학교 건축학부)는 낙후된 산골오지에 있는 화백의 생가를 지역 문화예술공간으로 승화시킨 점 등을 높이 평가하고, 지역에 연고를 둔 우리나라 대표 화가를 지역발전의

단초로 삼아 지역이 갖고 있던 낙후성의 이미지를바꿔지역을한층더격상시켰다는점, 이러한역사·문화적유산을지속가능한원동력으로 발전시킨 주민, 군(郡)관계자, 건축사의 새로운 시각과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의미 있는 점이 이달의 건축환경문화로 선정한사유라고밝혔다.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는 앞으로도 건축환경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자연과 조화되는 예술적이고 건강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역주민, 시민단체 및 관련 기관 등에서 건축환경문화 발굴을 위한지속적인관심을당부한다 고 밝혔다.

• 작품개요

- 소재지: 강원도양구군정림리 131-1, 130, 304번지외2필지
- 용도: 전시시설(미술관)
- 지역지구: 준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 규모: 대지면적(19,823㎡), 건축면적(639㎡), 연면적(684㎡), 지상2층
- 구조: 철근콘크리트라멘조
- 사업기간: (설계, 시공) 2000년 2월 ~ 2002년 9월
- 설계자: 이종호(스튜디오메타)
- 시공자: (주)진양
- 건축주: 양구군
- 외부마감: 자연석쌓기, 판석쌓기(화강석깨어쌓기)
- 내부마감: 석고보드위수성페인트
- 문의: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기획단 031-436-8900~1

제2회건축의날행사개최

건축인의 화합과 미래 건축 비전 제시를 위해 지난해 제정된 ‘건축의 날’ 행사가 지난 9월 25일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개최됐다.

건축사및건축관련대학교수,건설업체등



4백여 명이 참가한이번행사에는 이원환경건축, 조경대상등시상식과함께특별강연, 주요 건설회사와설계사무소의Best Practice 작품패널전시, 뉴타운·판교지구, 은평지구, 송도지구 당선작 전시 등 작품전시회도 함께 이뤄졌다.

한일주택건축세미나및한일주거건축전시회개최



일본 건축사협회(JIA)가 주최하고 대한건축사협회가 후원하는 한국과 일본 문화 교류 전인 ‘한·일주택건축세미나’가 오는 11월 8일일본오사카중앙홀에서개최된다.

‘역사가숨쉬는현대건축’이란주제로한국과일본의주거공간의비교, 토론이 일본 히로카 키무라 건축사의 사회로 진행되는데, 한국에서는민규암, 김효만, 김현건축사가참가하고야수시노리베건축사등여러일본건축사가함께참가할예정이다.

또 이날부터 16일까지 9일간 일본 오사카도지마 아반자홀에서는 민규암, 김효만, 김현, 임재용, 권문성건축사와27인의일본 JIA 건축사가 참가하는 ‘한·일주거건축전시회’가함께개최될예정이다. 이번세미나와 전시회는 최근 일본내 한류바람을 타고 두 국가간에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서로에 대한 관심과교류라는측면에서서로의건축주거문화를바라보는참신한기획이될것으로기대된다.

• 문의: 민규암건축사 02-782-0553

‘ 도시가만든건축, 건축이만든도시 ’

민족건축인협의회(민건협,의장 양상현)의 가을강좌 ‘ 도시가 만든 건축, 건축이 만든 도시 ’가 13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8개주제 별로진행된다.

지난 13일 첫 번째 ‘ 도시의 산소탱크: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 (이영범 경기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이진행된바있다.

- 10/20 독일속의세계: 포츠담광장 - 양승우서울시립대학교도시공학과
- 10/27 커뮤니티의 발견 : 센다이 미디어테크
 - 정현화(주)구간건축
- 11/3 숲속의 테크노폴리아 : 소피아 앙띠폴리스
 - 신동호한남대학교도시부동산학과
- 11/10 매혹의불꽃: 알리안츠아레나
 - 박선우한국예술종합학교건축과
- 11/17 오아시스발전소: 두바이프로젝트
 - 정현아 DIA건축연구소
- 11/24 빛을 담은 페니실린 : 독일연방정부청사
 - 이명주명지대학교건축학과
- 12/1 시스템이 만든 문화수도 : 구마모 토아트폴리스
 - 강봉준서울대학교공학연구소.
- 문의: <http://mingunhyup.or.kr>

한밭대학교건축디자인포럼개최

한밭대학교 건축학 전공설계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진행해온여섯번째건축디자인 포럼이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에 4회에 걸쳐진행된다.

이번 건축디자인 포럼은 건축 실무분야에 역량있는 인사들의 초청강연, 학생 작품전시회및 공개크리틱으로진행된다.

- 1회
 - 2006.10.10(화) /오후3시 /한밭대학교 4동 DH101(강의실)
 - Collective Formation /김영준 ((주)김영준도시건축연구소)
- 2회

- 2006.11.02(목) /오후3시 /한밭대학교 4동 DH101(강의실)
- 21세기 도시주거상업 건축의 흐름 / 윤세한 ((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 3회
 - 2006.11.14(화) /오후3시 /한밭대학교 4동 DH101(강의실)
 - 건축설계 시장의 변화와 취업전략 / 안순철(대림산업(주))
- 4회
 - 2006.11.17(목) /오후3시 /한밭대학교 4동 DH101(강의실)
 - 건축설계 및 기획부분에서의 CEO의 역할 /은동신 ((주)이가종합 건축사사무소) ㉠

전국시도건축사회및건축상담실안내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 ~ 8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강동구건축사회/477-9494 강북구건축사회/903-4666 강서구건축사회/2661-6999 관악구건축사회/888-2490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노원구건축사회/937-1100 도봉구건축사회/3494-3221동대문구건축사회/9927-0503동작구건축사회/814-8843마포구건축사회/338-5556 서대문구건축사회/324-3810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성동구건축사회/2292-5855 성북구건축사회/927-3236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양천구건축사회/2644-6688 영등포구건축사회/2634-3102 용산구건축사회/719-5685 은평구건축사회/357-6833 종로구건축사회/725-3914 중구건축사회/2266-4904 중랑구건축사회/496-3900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 ~ 3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 ~ 4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 ~ 6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 ~ 7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0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광명건축사회/(02)2684-5845 동부지역건축사회/(031)563-2337 부천지역건축사회/(032)327-9554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원주지역건축사회/(031)246-8046 7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안산건축사회/(031)480-9130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8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의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파주지역건축사회/(031)945-1402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오산 · 화성지역건축사회/(031)234-8872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3-9680삼척지역건축사회/(033)533-6651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7-662 평평정태지역건축사회/(033)374-6472원주지역건축사회/(033)745-2900춘천지역건축사회/(033)251-2443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 ~ 6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충청지역건축사회/(043)732-5752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7-6633 충주지역건축사회/(043)851-1588음성지역건축사회/(043)873-0160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4-0070충주지역건축사회/(041)858-5110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2-8890 아산지역건축사회/(041)549-5001서산지역건축사회/(041)662-3388논산지역건축사회/(041)662-3388금산지역건축사회/(041)751-1333 연기지역건축사회/(041)866-2270배미지역건축사회/(041)835-2217 서천지역건축사회/(041)952-2356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예산지역건축사회/(041)335-1333태안지역건축사회/(041)674-3733진천지역건축사회/(041)356-0017 계룡지역회장/(042)841-5722황양지역회장/(041)942-5922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6171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1515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해남지역건축사회/(061)726-6877 여수지역건축사회/(061)686-7023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9944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 ~ 2
 경산지역건축사회/(053)801-0380영주지역건축사회/(054)772-4710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 ~ 8원주지역건축사회/(054)436-2651문경지역건축사회/(054)552-1412상주지역건축사회/(054)536-8855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4455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1-4560영천지역건축사회/(054)337-0085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3-12195포항지역건축사회/(054)278-6129연수,의성지역건축사회/(054)383-8608영도지역건축사회/(054)373-2332고령,성주지역건축사회/(054)931-3577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6-6870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 김해지역건축사회/(055)334-6644 마창지역건축사회/(055)245-3737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사천지역건축사회/(055)832-9005양산시건축사회/(055)384-3050진주시지역건축사회/(055)741-6403 진해지역건축사회/(055)544-6666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2-4530 하동지역건축사회/(055)864-7400함안지역건축사회/(055)585-8587창녕지역건축사회/(055)533-2473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63-1010

네덜란드의건축가, 네덜란드의주거

이 책은 얼마 전 출간된 1권(네덜란드의 도시 네덜란드의 주거)에 이어 출간되는 책자로서 주로 현대 주거에 대한 건축사 나름대로의작품세계를 관찰하였으며, 건축사들의 작품유형을 편의상 개념주의, 지역주의, 미니멀리즘, 주형주의 등 네 그룹으로 나누어 소개했다.
특히, 이 책에서는 네덜란드의 숨은 주택건축 전문가의 작품과 디자인을 소개한 점이 큰의미를 갖는다.

한국건축사수험연구

이책은한국건축사를올바르게이해하고핵심을 파악하여 각종 수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국건축 개요와시대별 구성 요해, 건축별 구성 요해, 요소별 구성 요해, 기법별 구성요해등 다섯부분으로구분하고 바로실전문제를다루었다.
특히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문화재청 제2006-190호)을 위한, 단시간 내 실전에 임할수있는필독서이다.

영조법식

영조법식은 북송(北宋) 철종(哲宗) 때 즉, 11세기말에서12세기초에이제에의하여저작된중국의전통시대건축방법을기술한유일한 건축통합기술서로서 건축과 관계있는 문헌이 실려 있으며 호채(壕寨)·석작(石作)·대목작(大木作)·소목작(小木作)·조작(彫作)·선작(旋作)·거작(鋸作)·죽작(竹作)·와작(瓦作)·이작(泥作)·채화작(彩畫作)·전작(塼作)·요작(窯作) 등 13종의 공법, 소요시간, 재료의규격이상세히적혀있으며, 치밀한 그림이 곁들여져 있다. 여기에 보유(補遺)·목록을 합쳐서 모두 36권이다. 우리와중국그리고일본의전통건축의구조와기술을이해하는데꼭필요한문헌이다.



전남일, 박혜선, 문은미 공저 / 332쪽 / 20,000원 / 도서출판 발언 02-929-3546



문화재기술자 수험연구회 편저 / 360쪽 / 28,000원 / 공간예술사 발행 02-737-1020



국토연구원 옮김 / 25,000원 / 대건사 발행 02-715-6683

건축

베니스건축비에날레개최



베니스 비엔날레의독일관

베니스건축비에날레가개최되었다. 이번행사에서는건축과도시계획에관련한여러나라에서의다양한패션과스타일요소들이전시되었다. 올해의전시는건축으로부터초점이넓혀졌으며, 일부비평가는이제는건축전시회가아니라고까지이야기하고있다. 이번전시회에서도시의본질을탐구하려고하고있다. 주전시인 '도시:건축과사회'는오래된항만이있는아스날지역에서열리고있다. 과거로프를만들던공장건물이며, 도릭양식기둥이있으며, 그규모는300m 길이의건물에서전시회가열리고있다.

런던대 경제학부의 교수이자 런던시장의 건축자문위원리키버넷교수가큐레이터로 전시를준비하였다. 그는 '도시개발을형성하는힘은 무엇인가? 미래에 도시의 모습은어떠할것인가? 특히무엇이좋은도시를만드는가? 의질문을던지고있다.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현재 도시에 살고있고, 지구화의물결은 이들가로를 휩쓸고있으며, 이들 16개 도시는근본적으로같은양상을 보이고있다. 유사한형태의 건물들이보여지고있다. 보다많은돈을벌기위한 부유한 상업 건물의 에너지 과소비 건물과이에얽여있는슬럼가를이루고있다. 현재물건이 아닌브랜드로 대표되는, 같은공급자에 의한 같은 형태의 상점들이 있는 도시들과 가난만이 오직 성장하는 현상을 볼수있다. 2050년경에는최소인구의 75%가 도시에거주하게될것이다.

세계에 16개 주요 도시라 할수있는상파울로, 카라카스, 멕시코 시티, 로스엔젤레스

로부터 런던, 이스탄불, 뭄바이, 요하네스버그, 상해, 동경 등 다양한 도시에 관한 조명을하고있다. 이들도시들은거의같은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대량의 이민, 열악한 주거, 거대한에너지소비, 부적절한공공교통체계, 도시확장, 아이덴티티의상실등이다. 베를린의경우특수한경우로인구가감소하는특성이있다. 이전사회에서는 16개 도시들에대한이와 같은특성과 현상에대한 표현을 하고자많은노력을 하였다. 명확한 그래픽과 읽기충분한크기의 글자, 높은 수준의사진을감상할수있다. 크고개미굴형상의 모델은 이들 다른 도시들의 다른 밀도를 보여주고있다.

뭄바이는 새로운 메가 시티이다. 이미 1,800만인구가살고있으며, 2050년에는4천만의 인구가 살 것으로 추정된다. 베니스 전시회에서이와같은현상에대한문서화와 상 파울로와 상해와 같은 다른 도시에서의 모습을상세히기술하고 있다. 그 메시지는 확연하다. 규제 없이, 이와 같은 도시 환경은 사회적불평등, 환경적 재앙을몰고 올것이자명하기때문이다.

이상 도시는 이와 같은 도시 팽창과의 반대이다. 작은 규모의가정생활, 직장 그리고 레저가 같이공존하는것을 이야기한다. 자동차의 사용은 최소화되며, 주거밀도는 높으나 공공공간에 많은할애를 한도시를 생각하고 있다. 이와 같은가치관이이들 세계에서 가장가난한 도시에접목이 될수 있는가? 이 전시회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하고자하고있다.

프랑스관은 도시 맨션에서의 일상생활을 보여주고있다. 가사, 요리와사우나들할수 있는 시설을 보여주고 있다. 스페인관은 상류층 현대 건축의 주거를 보여주고 있으나 마치 화장품가계와같은 모습을하고 있다. 영국관은 셰필드에서의 일상생활을 나타내고 있다. 헝가리관은 밝은색의플라스틱 펄권을 천장에매 달아 장식하고있다. 캐나다관에서는컴퓨터스크린앞에서자전거를타도록 하고있다. 미국관은사회적주제를 조명하고 있다. 카타리나 태풍 이후파괴된 뉴올리언스에서의 풍경을 조명하고 있다. 그리고좋은사회적주거프로젝트를소개하고

있다. 특히뉴 올리언스의 재건을 통하여 옛 도심의 현대화를추진하는프로젝트를 선보이고있다.

시저펠리의새로운콘서트홀개관

시저펠리가설계한르네와헨리세거스토크콘서트홀이미국로스앤젤레스에서개관하였다. 2억불예산으로만들어진이건물은 250,000²ft의규모로지어졌다. 로비는최고급호텔로비와같이꾸며졌으며, 내부장식들은최고급의재질로마감되었다. 입면은물결모양의유리로되어있으며, 입구부분은흰색스페인식돌장식바닥으로마감되었다. 이건물은오렌지카운티의퍼포밍아트센터의일부분으로계획되고지어졌다.

시저펠리의‘ 붉은건물 ’계획안

미국 할리우드에 위치한 14acre 규모의 Pacific Design Center(PDC)의제3단계이자 마지막 건물에 대한 계획이 발표되었다. 400,000²ft 규모로붉은색의유리로된건물로시저펠리에의하여계획되었다. 두개의최고급예술타워를중심으로6층과8층규모로계획되었으며, 1,500대의주차시설을갖추고있다. 기존의파란색건물은상징적푸른고래를상징하고 있으며, 1975년완공되었다. 녹색 건물인 Pacific Green Building은1988년에완공되었으며, 최근미국AIA와LA 지부에서25년수상을하였다.

이들 건물과 대조를 이루며 새로이 계획된 붉은건물은 올해 하반기착공을하기 시작하여 2년 이내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멋진 오피스 건물로 창의적 성격을 지닌 미디어 회사 등의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건물은 14,000²ft²에서부터 36,000²ft 크기의 다양한 바닥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6층짜리 서측 타워와 8층짜리



미국루이빌에제한된뮤지움 플라자계획

동측 타워는형태적으로도 주위와 어울리는 우아한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최대의 에너지 효율도 추구하고 있다. 구조는 최신 현대적 구조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엘리베이터, HVAC 그리고 전기 등 최신의 건물 설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입주자의 최대한의 유동성을확보할수있도록계획되어있다.

911 이후의자극적건축으로의경향

미국에서는 911테러 이후에 미국 건축계는보다노골적이며실험적인경향이뚜렷해지고 있다. 이는세계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으며 상징적이며기념비적인건물이 없어진 이후의 현상이라 할 수있다. 재건축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중들은 미국에서 여지껏 보지 못하였던 고층건물에 대한 다양한 시도를 경험하고 있다. 이들 계획은 일반적인 박스 형태를 벗어나 있으며, 과거의 겸손한 자태의 건물 개념으로부터벗어나있다.

현재의 이와 같은 형상을 만들어 낸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의 건물들이정형성에기반한것과대비하여현재 미국 도시에서는 건축의 도발적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도시들이 상상력이 풍부한 디자인에 문호를 개방하였으며, 건축분야에서도이와같은현상을볼수있다. 시카고에서는 80층짜리 주거 타워가 곧 시공에 들어갈예정이다. 이 건물은건축사제니강에 의하여설계되어진것으로물결치는모습의 발코니로둘러쌓여있는건물이다.



미국시카고에제니강이 제안한 80층짜리고층 주거

날씨변화에반응하는건물

살아 있는 시스템과 같이 작동하게 위하여는, 날씨의 변화에 따라 형태를 변화하거나이를사용하는방법이달라야하는가? 미

래의 건축에 대하여생각하는새로운건축사 그룹이있다.‘ 대응적구조 모서어떠한상황에 적합한내부및외부환경에대응하여형태를변화하는개념이다.



기후에 반응하는건물을 위한구조디테일



기후에반응하는초 경량의고층건물안

이러한건물은생물의 시스템을모방하여바람, 온도의 변화나 변화하는 태양광 등을 감지하고 대응하는 건물이다. 내적으로는 사람들의 이동이나 보다 낮은 공기 순환에 대응하는 등의 개념이다. 로보틱 건축 미디어와 대응건축 위원회에서 Tristan d'Estree Sterk는변화하는건물표면에관하여 연구를 하고있다. 이 시스템은 인장재와 압축재의복합재로구성된구조형식으로모든벽체의프레임을구성하고있다.

이들 골조를 사용한 지능적 시스템으로, 경량이며, 매우 견고하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모양을 바꿀수있는 건물을 만들고자하고있다. 모습을변화할수있게하는 표면은 단순하고 자연적이며, 지속 가능한 건물을만들 수 있도록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와같은접근방식의다른장점으로, 갑작스러운 폭풍에대비하여자신을 긴장시키는 건물, 혹은 지붕으로부터 스스로 눈을 털어내는건물을생각할수있다.

건축사는건물의조명과 냉난방이건물의 형태와 관계가 있으며, 공간의 크기는 냉난방의 효율성과 관련이 있다. 새로운 재질의 건물 스킨은 태양을 인식함에 따라 보다 좋

은 그림자, 혹은 태양광의 침투를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재질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건물은 형태의 변환에 따라 환경성을 높이거나 냉방의 필요성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이 시도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개념으로부터 초경량 고층 건물에 대한 가능성 연구를 하고 있다. 진보된 과학 기술을 이용하여 내부에서 보다 지능적이며, 조명과 공기 조화 등에 의한 안락함을 추구함과 동시에 필요에 따른 전체 건물 모습의 변환 문제에 대한 도전이 시도되고 있다.

빌바오 뮤지엄의 경제성 논란

바스크 대학의 경제학자 비에트리즈 플라자에 의하면 빌바오에 지어진 구겐하임 뮤지엄은 2010년 이전에는 수익에 대한 공공자금 환원이 가능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였다. 바스크 지방 정부는 이 뮤지엄을 세우기 위하여 1억 6천 6백만 유로를 출연하였다. 이 자금에는 구겐하임 재단에게 라이선스와 서비스 비용 1,800만 유로와 함께 프랭크 게리에게 지불한 설계비 870만 유로를 포함하고 있다. 이 공공기금으로 개막을 위한 운영비를 지불하기도 하였다.

2004년 뮤지엄에서 출간한 한 보고서에 의하면, 초기 투자비용은 이미 회수되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출간된 도시 및 지역 연구 국제 저널에 의하면 플라자씨는 이와 같은 계산에서 전시품 구입 비용과 같은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주요 결함'이 있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플라자씨는 바스크 정부가 세금과 관광객의 증가와 이에 따른 고용 효과에 따라 3,000만 유로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추산하였다. 그는 바스크 정보와 구겐하임 사이의 계약이 만료되는 2017년까지 예술작품 구입을 위하여 1억 7천 2백만 유로를 투자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부다비의 루브르

아부다비 관광청 장관과 에미레이트 관계자는 지난 7월 파리에서 루브르의 디렉터인 헨리 로이렛 씨를 만났다. 이 만남은 아랍 에미리트 공화국의 수도에서 문화적 개발에서의

프랑스와의 협력 가능성을 이야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만남은 아부다비 정부와 구겐하임 재단이 아부다비에 구겐하임 박물관을 짓기로 한 후속적 조치이다.

아부다비 문화관광청은 세계적 문화 기관들과의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불란서 건축사장 누벨도 이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부다비에 구겐하임 박물관을 연다는 것은 2018년까지 에미레이트를 관광 대국으로 만들기 위한 대규모 개발 중 하나이다. 이 새로운 구겐하임은, 아랍 국가의 첫 번째 서방 박물관으로 \$27 billion의 국가 보조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부다비 연안으로부터 500미터 떨어진 사디야섬에 지어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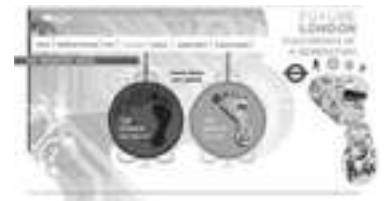
이 계약과 더불어 프랭크 게리와 프로젝트 계약을 할 예정에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전시 프로그램에 관한 구상이 필요하다. 박물관의 전시 프로그램은 누드와 아부다비의 이슬람 지도자들을 불편하게 하는 작품들은 제외할 예정이다.

플로리다 마이애미의 새로운 뮤지엄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 뮤지엄은 국제적 건축회사인 Herzog & de Meuron을 새로운 박물관의 확장을 위한 설계 회사로 선정하였다. 2010년 후반에 개관할 이 건물은 125,000ft²의 크기이며, 4acre 공원 부지에 세워질 예정이다. 마이애미 과학관 옆에 세워질 이 건물은 마이애미 시 활성화 계획의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이며, 도심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이다. 새로운 박물관은 마이애미의 자연적 그리고 인공적이며 문화적 이해와 변화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테이트 박물관 등 박물관 설계에 많은 경험을 가진 Herzog & de Meuron사를 선정하였다.

‘미래의 런던’ 전시회

2012년 런던 올림픽 위원회는 ‘미래의 런던: 세대의 발자국’ 익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 전시회는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한 생각을 위하여 기획되었다. 이 전시회는 2012년 게임에서 지속가능성의 원칙과 지역의 생산품



미래의 런던을 위한 전시회 웹사이트
http://www.futurelondon.co.uk/selector_transport.htm

을 사거나 폐자원의 재생과 같은 일상 생활에서의 작은 변화가 우리의 환경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관한 전시회이다. 조직 위원회는 올림픽 게임을 통하여 런던을 보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 도시로 만들고자 하고 있다.

핀란드 국제 아이디어 공모전

핀란드의 지바스킬라시는 키베란란타 주 거지역에 대한 국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 지역은 지바스킬라의 북서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호수를 끼고 있는 지역이다. 중심적 위치이기도 하며, 자연적 보존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개발에 있어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 공모전의 목적은 개성과 함께 상쾌한 지역을 만드는 것으로 주변 자연과의 지속가능한 요소에 대한 개발과 창의적 주거 개발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모든 공모전에 대한 내용은 <http://www.jkl.fi/lang/competition>에서 볼 수 있으며, 2007년 2월 21일 심사 예정이다. 그리고 최종 발표 결과는 2007년 2월 28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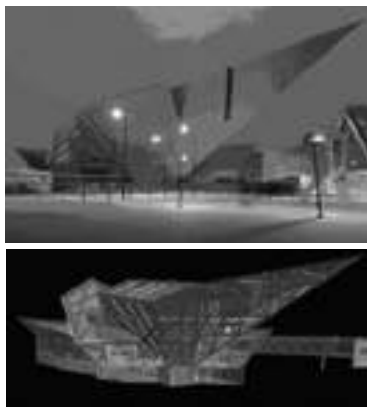
디지털

2006 제2회 Annual BIM Awards

BIM 상은 미국 건축사협회 기술 위원회에서 시상하는 것으로 2005년부터 시작되었다. 올해에는 41개 작품이 제출되었으며 우수 건축 부문, 프로세스 혁신 부문, 미래 가능성 부문, 학술 및 교과 과정 프로그램 부문, 분석 및 시뮬레이션 부문, 특별 부문의 6개 부분에서 작품이 시상 되었다. 올해에 시상된 작품들은 다음과 같다.

우수건축부문

다니엘 리베스킨드가 설계하고 모텐슨사에서 시공한 해밀턴 빌딩이 수상하였다. 이 건물은 146,000 ft^2 의 규모로 덴버 예술관의 새로운 전시공간 건물이다. 이 상은 기하학적으로 복잡한 건물을 3D/4D 기술을 이용하여 프로젝트를 완성한 것에 대한 공로의 결과이다.



덴버아트뮤지움의 확장프로젝트

프로세스혁신부분

이부분에서는미국미시간폴린트의 GM사의폴린트공장을설계하고완공한가파리사에게 돌아갔다. 이 회사는 건축, 디자인,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회사이다. 이 프로젝트는 442,000 ft^2 규모로 40주라는 짧은 기간과 예산 안에 완공하기 위하여BIM 기술을사용한공헌을인정받았다.

미래가능성부분

이 부분의 시상은 건축사 커크시가 설계한휴스턴의트터필드와폰티크사건물이수상하였다. 이 건물은 임대 가능성을 높이며, 운영의효율성과건물의성능을요구하는프로젝트이며 공사비와일정관리를철저히 수행하여야 하는 프로젝트였다. 3층 건물의 65,000 ft^2 면적 중에서 20,000 ft^2 가 본사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본사의 기능을수행하여야함과동시에나머지부분들은 임대가 수월하여야 하는 요구가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환경인증제인 LEED 인증을 받을수있도록지속가능성과에너지효율성이 추구된 건물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3D 기술을 사용하여협업과문서화를통한시범적프로젝트로 인정을받았다.

분석및시뮬레이션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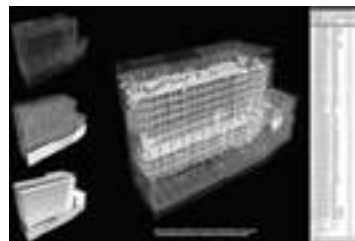
이 부문에서는 2개의 회사가 수상하였다. 아틀랜타 조지아주립대학의도서관 프로젝트수행의리오델리와워싱턴의허버빌딩의 설계회사가 수상하였다. 이 상은 건물의 다양한 성능에 대한 평가 도구로서의 사용에 따른 시상을 하였다. 조지아 주립대학의 도서관 프로젝트의 경우 캠퍼스 확장에 따른 재개발 프로젝트였다. 건축사는 주 건물과 부속 건물을 대상으로 개보수를 시도하였다. 이를위하여개념설계와대체안에대한 제안과 연결 건물에 대한 외부 공간 설계를 제안하였다. 주된 문제는 도심에 위치한 대지로서 설계와 시공 과정에 대한 물리적 제약이 많았으며 또한 다양한 캠퍼스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제약이 있었다. 디자인대안의적용과평가, 시공비용에대한고려 그리고캠퍼스 내 활동과기능에대한 지속적 고려가 필요하였다. 학교 당국은 도서관의 개보수와 확장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며, 또한외부공간에대한요구또한동시에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설계팀은 BIM 모델을이용하여이와같은복잡성에대처하였으며, 단계적 요구, 빠른 스케줄 관리 그리고 디자인의해결등을수행하였다.

다른 프로젝트는 워싱턴의 허버트 허버빌딩을 개조하여 현대화 하는 작업이었다. 이 건물은 1933년 지어진 건물로 기념비적 건물이다. 현재 재무성과 박물관 방문센터가 입주하여 있다. 이 건물의 현대화 계획은 12년에 걸친 4단계 공사로, 새로운 건물 시스템, 안전시스템, 새로운설비와유연한업무공간의 확보, 새로운 조경과 외부 파사드의 복원을 포함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어려운 점은 기존의 구조 시스템에 새로운 건물 시스템을 추가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층고로 기존 층에 새로운 오피스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새로운 수직 동선을 고려하여야 한다. 건축사는 BIM을 사용하여 기존 건물의복잡성을이해하고새로운시스템을집어넣을지를 결정하는 것에 사용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시간의절약과 현장에서의 논쟁과 주문의 정확성 보장 그리고 비용의 절감 등에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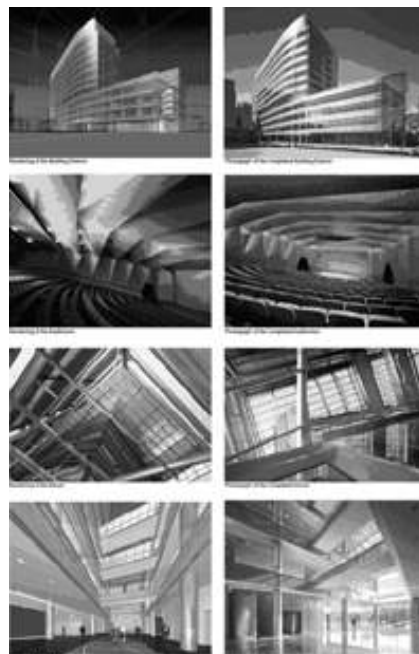
특별부문

이 부문에서는 보스턴의 머크 연구소 건물이수상하였다. 이 건물은 12층 건물로 지하에 6층 주차장이 있으며, 교육, 문화 그리고 역사적 환경을 보존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 프로젝트를 맡은 건축사 클링과 시공자 보브스가 맡았다. 보스턴 중심가 위치로써 한 개의 건물에 연구, 행정, 회의, 리셉션, 식사, 주차그리고 설비 등이 고려되어야 하였다. 설계팀에게는 암묵적으로 하이텍 공간의 '가상캠퍼스'를적용하고자하는과제가 주어졌다. 다른 주요 디자인의 문제는 내부 지향적공간을개방적이며빛이들어오는공공적개념으로써의변화의문제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BIM 기술을 사용하여 두 단계로의 진행을 하였다. 기본 문서화 단계로 현재 디자인 해결책에 대한 기술과 적용이 시도되는 단계와 세부 분석 단계로 고차원적 디자인 문제 해결 단계로 주기적 토의 형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갔다. 기본 문서화 단계에서는 마이크로



BIM 모델을 이용한머크 연구소건물프로젝트



머크연구소프로젝트에서의BIM 기술을이용한렌더링

스테이션의 트라이포마를 사용하여 BIM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구조 시스템, 건축 마감과 주요 설비 공간들에 대한 공간을 모델링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건축가 및 엔지니어들 간의 정보가 공유되었으며, 104개의 건축, 구조 및 설비 모델이 개발되었다. 이를 사용하여 시각화와 랜더링 등도 생성하여 활용하였다. 디자인 문제해결 단계에서는 적정화 기술이 사용되었으며, 다양한 분석과 시각화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음향설계, 조명설계, 환경 제어 등의 시뮬레이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학술 및 교과과정 부문

이 부분에서는 일리노이 시카고 대학의 건축과가 수상하였다. 이 대학은 BIM 기술을 건축과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에 반영하였으며, 디지털 도구를 이용한 실무에서의 적용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벤틀리사, 구조 해석을 위한 STAAD Pro 2006 발표

벤틀리사는 구조 해석을 위한 프로그램인 STAAD.Pro 2006을 발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구조 프로그램이다. STAAD.Pro 2006은 지진과 동적 해석 도구를 추가하였으며, 디자인 분야와의 호환성 문제를 향상시켰다. 이 프로그램은 벤틀리사의 건물 모델링 솔루션과 통합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모델링으로부터 문서화에 이르기까지 통합적 활용이 가능하다. 이 프로그램은 RAM 개념 (보강 디자인과 포스트 텐션 콘크리트 슬라브의 디자인)과 파이프 디자인 등의 프로그램과 호환성을 가지고 있다. 파이프 디자인의 경우 AutoPIPE를 사용할 경우 정확한 하중에 대한 정보를 구조 해석과 함께 통합할 수 있다.

STAAD.Pro 2006에 추가된 지진 및 동적 해석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철골 접합을 위한 힘의 전달의 자동 계산
- 물리적 부재에 대한 속성, 재료, 하중 등의 실제 모델링 기능
- 철골 디자인을 위한 버클링 길이의 자동 계산
- 단순 지역 코드 혹은 경도/위도 입력에

의한 IBC 지진 지도에 따른 응답 스펙트럼의 자동 생성

ARCHIBUS와 전략적 비즈니스 파트너 상수상

시설 관리 분야 소프트웨어 회사인 ARCHIBUS 사는 교육 시설 관리 협회인 APPA로부터 2006 최고의 전략적 비즈니스 파트너상을 수여 받았다. 이 상은 APPA에 대한 ARCHIBUS 사의 공헌에 따른 시상이다. 특히 ARCHIBUS 사는 고등 교육 기관에서의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한 공로를 인정 받은 것이다. ARCHIBUS 사는 APPA 소속 기관들의 데이터를 중앙 웹에 연결시켜 지속적 지원과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이 결과 지표의 개발을 가져 올 수 있게 되었다. 이 지표를 사용할 경우 시설에 대한 모든 특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교육과 관련한 운영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시설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Autodesk Revit Structure 4와 Revit Building 9.1 출시

Autodesk 사는 Revit Structure 4와 Revit Building 9.1을 발표하였다. Revit Structure 4는 향상된 분석 도구를 제공하고 있으며, 손쉽게 사용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Revit Building 9.1은 한층 증진된 호환성을 제공하고 있다.

새로운 Revit Structure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트러스와 보설계를 위한 손쉬운 모델링 기능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등의 다양한 설계 기능을 보강하였다. 트러스와 보 그리고 브레이스 와 벽체는 보다 조작이 손쉬워졌다.
- 구조 설계 조건에 의한 향상된 분석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새로운 'auto-detect' 기능은 구조 세팅에서 사용자 정의에 의한 분석 모델을 자동으로 보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 보강된 철근 콘크리트 모델링 기능을 통한 조작과 다양한 보기가 가능하며, 부

재들 간의 자동 접합 부설 계와 손쉬운 디테일 작성이 가능하다

Autodesk Revit Building 9.1은 다른 프로그램 사용자와의 호환성과 협업을 강조한 기능을 보강하였다.

Graphisoft Reports on Virtual Construction Conference

Graphisoft 사는 부다페스트에서 가상 시공에 관한 첫 컨퍼런스를 열었다. 세계의 유수의 건설사 및 개발사들이 모인 이 대회에서는 가상 건설 기술을 이용한 경쟁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가상 건설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많이 진척이 되었으며, 이 기술을 이용한 공기 단축과 비용 절감에 대한 이득의 확산에 따른 결과를 공유하고자 이 모임이 이루어졌다. 전 세계에서 가상 건설 기술을 이용한 적용 사례들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으며, 일반적으로 5~10%의 비용 절감 결과가 보고되었다.

Adobe Introduces Acrobat 8

Adobe 사는 최근 Acrobat 8을 출시하였다. 이 소프트웨어는 운영 체제나 소프트웨어에 관계 없이 협업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혁신적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Acrobat Connect 1 소프트웨어와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웹 회의의 직접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 문서와 실시간 웹에 의한 접근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번 제품은 문서 협업, PDF 문서의 재사용, PDF 문서 형식, 다양한 문서의 일관된 형식화 그리고 정보 보안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도입이 되었다. 형식화 기능은 정적인 PDF 문서로부터 일관된 형식의 문서를 만들 수 있으며, 이를 배포하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또한 디지털 사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하나의 문서에서 다른 그룹 간에 볼 수 있는 문서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다. 또한 문서 정보 기능을 통한 문서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있다. 

<제공: 윤기병(원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2004년 건축허가 현황(8월)

■ 용도별

(단위: 동, 제곱미터)

구 분		당월(8월)			누계(1~8월)		
		2004년	2003년	증가율	2004년	2003년	증가율
계	동 수	10,076	14,606	45.0%	84,512	119,328	41.2%
	연면적	7,908,037	8,502,420	7.5%	70,167,578	89,122,309	27.0%
주거용	동 수	2,798	4,595	64.2%	24,524	32,996	34.5%
	연면적	3,641,032	3,498,783	-3.9%	30,640,510	34,800,963	13.6%
상업용	동 수	3,129	4,570	46.1%	25,445	36,216	42.3%
	연면적	1,682,957	2,080,335	23.6%	15,726,594	22,310,200	41.9%
공업용	동 수	1,599	1,611	0.8%	13,087	18,360	40.3%
	연면적	859,639	798,088	-7.2%	8,719,124	11,429,503	31.1%
문교및 사회용	동 수	805	861	7.0%	6,237	7,994	28.2%
	연면적	753,492	913,547	21.2%	6,233,781	8,253,846	32.4%
기 타	동 수	1,745	2,969	70.1%	15,219	23,762	56.1%
	연면적	970,917	1,211,667	24.8%	8,847,569	12,327,797	39.3%

■ 구조별

(단위: 동, 제곱미터)

구 분		당월(8월)			누계(1~8월)		
		2004년	2003년	증가율	2004년	2003년	증가율
계	동 수	10,076	14,606	45.0%		119,328	41.2%
	연면적	7,908,037	8,502,420	7.5%		89,122,309	27.0%
철 근	동 수	8,852	11,885	34.3%		104,165	40.8%
철골조	동 수	7,813,471	8,016,136	2.6%	69,266,676	87,600,727	26.5%
조적조	동 수	1,037	2,094	101.9%	9,015	12,168	35.0%
	연면적	78,570	164,127	108.9%	746,279	978,733	31.1%
목 조	동 수	185	532	187.6%	1,502	2,871	91.1%
	연면적	15,861	39,054	146.2%	153,935	257,301	67.1%
기 타	동 수	2	95	0.0%	7	124	0.0%
	연면적	135	283,103	0.0%	687	285,548	0.0%

■ 시도별

(단위: 동, 제곱미터)

구 분		당월(8월)			누계(1~8월)		
		2004년	2003년	증가율	2004년	2003년	증가율
계	동 수	10,076	14,606	45.0%	84,512	119,328	41.2%
	연면적	7,908,037	8,502,420	7.5%	70,167,578	89,122,309	27.0%
수도권	동 수	3,180	4,400	38.4%	26,252	39,552	50.7%
	연면적	3,281,881	4,239,023	29.2%	31,273,379	37,320,019	19.3%
서울	동 수	630	645	2.4%	4,760	6,802	42.9%
	연면적	784,135	692,407	-11.7%	7,379,162	10,228,585	38.6%
인천	동 수	298	390	30.9%	2,436	2,956	21.3%
	연면적	217,343	230,433	6.0%	3,170,967	2,919,232	-7.9%
경기	동 수	2,252	3,365	49.4%	19,056	29,794	56.3%
	연면적	2,280,403	3,316,183	45.4%	20,723,250	24,172,202	16.6%
지방	동 수	6,896	10,206	48.0%	58,260	79,776	36.9%
	연면적	4,626,156	4,263,397	-7.8%	38,894,199	51,802,290	33.2%
부산	동 수	379	433	14.2%	3,368	4,252	26.2%
	연면적	473,591	740,760	56.4%	3,496,934	7,988,464	128.4%
대구	동 수	353	399	13.0%	3,158	3,944	24.9%
	연면적	892,362	151,715	-83.0%	4,748,241	4,431,196	-6.7%
광주	동 수	299	260	-13.0%	2,253	3,045	35.2%
	연면적	404,320	83,112	-79.4%	1,875,049	2,841,386	51.5%
대전	동 수	209	286	36.8%	1,856	2,565	38.2%
	연면적	88,677	109,015	22.9%	1,547,692	1,913,842	23.7%
울산	동 수	233	383	64.4%	2,232	3,183	42.6%
	연면적	145,748	105,747	-27.4%	1,170,070	1,829,359	56.3%
강원	동 수	498	924	85.5%	4,619	6,481	40.3%
	연면적	432,758	433,479	0.2%	3,228,515	3,404,423	5.4%
충북	동 수	711	940	32.2%	4,893	6,949	42.0%
	연면적	319,081	337,932	5.9%	3,163,427	3,950,233	24.9%
충남	동 수	717	1,213	69.2%	6,003	8,332	38.8%
	연면적	584,766	457,899	-21.7%	4,724,564	5,226,722	10.6%
전북	동 수	507	981	93.5%	4,552	7,030	54.4%
	연면적	218,217	260,983	19.6%	2,553,726	2,644,509	3.6%
전남	동 수	670	1,048	56.4%	5,091	8,059	58.3%
	연면적	190,920	301,483	57.9%	1,621,499	3,368,039	107.7%
경북	동 수	1,001	1,692	69.0%	9,148	12,427	35.8%
	연면적	351,029	665,893	89.7%	4,612,444	5,772,675	25.2%
경남	동 수	1,044	1,387	32.9%	9,090	11,007	21.1%
	연면적	417,284	566,503	35.8%	5,544,132	7,702,847	38.9%
제주	동 수	275	260	-5.5%	1,997	2,502	25.3%
	연면적	107,403	48,876	-54.5%	607,906	728,595	19.9%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사무소수, 회: 회원수)

2006년 8월말

구 분 건축 사회	개 인 사 무 소										법 인 사 무 소														용 역 사무소		합 계		비율(%)							
	1인		2인		3인이상				소 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소 계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합계	5,113	5,113	157	314	24	77					5,294	5,504	1,499	1,499	275	550	70	210	31	124	32	212							1,907	2,595	7	7	7,201	8,099	100.0%	100.0%
서울	1,160	1,160	46	92	10	32					1,216	1,284	864	864	180	360	39	117	19	76	19	132							1,121	1,549	6	6	2,337	2,833	33.2%	35.4%
부산	491	491	17	34	5	16					513	541	82	82	13	26	7	21	4	16	3	17							109	162			622	703	8.9%	9.1%
대구	418	418	24	48	6	19					448	485	49	49	24	48	6	18	1	4	2	10							82	129			530	614	7.3%	7.5%
인천	230	230	2	4	0	0					232	234	48	48	6	12	0	0	0	0	0	0							54	60			286	294	3.9%	3.5%
광주	215	215	2	4	0	0					217	219	33	33	7	14	1	3	2	8	3	17							46	75			263	294	3.5%	3.6%
대전	199	199	16	32	1	3					216	234	27	27	8	16	3	9	0	0	1	12							39	64			255	298	3.6%	3.7%
울산	160	160	7	14	1	3					168	177	16	16	3	6	2	6	0	0	0	0							21	28			189	205	2.6%	2.5%
경기	673	673	7	14	0	0					680	687	215	215	18	36	3	9	1	4	1	5							238	269			918	956	12.7%	12.1%
강원	161	161	3	6	0	0					164	167	20	20	3	6	0	0	0	0	1	5							24	31			188	198	2.5%	2.4%
충북	176	176	8	16	0	0					184	192	24	24	2	4	1	3	1	4	2	14							30	49			214	241	2.9%	2.9%
충남	162	162	4	8	0	0					166	170	32	32	2	4	2	6	2	8	0	0							38	50			204	220	2.7%	2.6%
전북	187	187	3	6	0	0					190	193	21	21	2	4	2	6	1	4	0	0							26	35			216	228	2.8%	2.6%
전남	132	132	0	0	0	0					132	132	9	9	0	0	2	6	0	0	0	0							11	15			143	147	1.9%	1.7%
경북	303	303	7	14	1	4					311	321	29	29	2	4	1	3	0	0	0	0							32	36	1	1	343	357	4.6%	4.2%
경남	347	347	11	22	0	0					358	369	23	23	5	10	1	3	0	0	0	0							29	36			387	405	5.2%	4.9%
제주	99	99	0	0	0	0					99	99	7	7	0	0	0	0	0	0	0	0							7	7			106	106	1.5%	1.4%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 분	회 원				준회원
	건축사	2급	계	비 율	
합 계	8,099	10	8,109	100.0%	23
서울	2,833	3	2,836	35.4%	10
부산	703	1	704	9.1%	9
대구	614	0	614	7.5%	0
인천	294	0	294	3.5%	0
광주	294	0	294	3.6%	0
대전	298	1	299	3.7%	0
울산	205	0	205	2.5%	0
경기	956	2	956	12.1%	2
강원	198	0	198	2.4%	0
충북	241	0	241	2.9%	0
충남	220	3	223	2.6%	0
전북	228	0	228	2.6%	0
전남	147	0	147	1.7%	0
경북	357	0	357	4.2%	1
경남	405	0	405	4.9%	1
제주	106	0	106	1.4%	0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 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전임미처리	합 계	비 고
회 원 수	5,501	2,598	76	8,175	
비 율	67.29%	31.78%	0.93%	100.0%	
사무소수	5,291	1,909	-	7,200	
비 율	73.49%	26.51%	-	100.0%	

ARCHITECTURAL RECORD

8월호

이번호에서 Green by Design이라는 슬로건으로 친환경 설계에 대한 광범위한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있다.

지난수십 년 동안 현대 건축은 근대 건축운동의 실패를 증명하면서 나름의 대안들을 제시해왔지만 점점 많은 부분에서 에코 디자인이 가장 강력한 화두가 될 것임이 드러나고있다. 특히 지속가능성과 에너지 사용, 랜드스케이프 및 기후, 친환경 정책과 건축 등에 관련된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담고 있는 특집 기사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무엇을 고려하여야 하는가에 대한열린담론을우리에게요구하고있다.

■ 신간서적 리뷰

다양한스펙트럼에서그린디자인에대한깊은성찰을보여주는서적들이소개되었다.

- Ecological Architecture: A Critical History, by James Steele: Thames & Hudson, 2005
- Future Forms and Design for



Norman Foster



Sustainable Cities, Edited by Mike Jenks and Nicola Dempsey

- Toward a New Regionalism: Environmental Architecture in the Pacific Northwest, by David E. Miller :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5

■ 작품 리뷰

건축사들은친환경이라는주제에있어가장 강력한제안을할수있는유리한위치에있다. 일찍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 유기적 디자인 '으로 환경과의 연계를 훌륭히 수행했듯이, 이번호에 다뤄진 작품은 ' integrated'의 방식으로서 보다 폭넓고 깊은 친환경 디자인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Sauerbruch Hutton Architects는 지하의 메탄 가스를 사용하여 테사우 연방 환경부 청사 건물의 난방을 해결하고 있으며, 노먼 포스터의 신작 Hearst Tower는 빗물을 모아 폭포를 설치하여 로비의 냉방과 가습을 해결하고, 재활용된 재료와 내부에 방열을 일으키지 않는 유리의 사용등을통해지속가능성과친환경의수법을 교묘히 연결하고 있다. 한편 켄 양의 싱가포르



Sauerbruch Hutton Architects



Richard Rogers

국립 도서관 건물은 다양한 차양 방식과 자연 환기를 통한 냉각시스템의 도입, 조명의 자동시설, 7만 제곱피트에 달하는 자연공간의 활용등을 통해 이를 달성하고 있다. 리차드 로저스는웨일즈의 국회의사당 건물에서 자연광을 최대로유입하여 주간에 인공조명을 줄이고, 건물하부에 충회의실로 외기를 유도하고 전체적으로자연환기등을통해 에너지절약차원에서의친환경에대한고려를 보여준다.

■ 건물 유형연구

공연시설은 오케스트라가 행정관료들의 연회이나 집착하는것으로 보이는 유럽에서조차도 경제적발전의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건축물들은 더 나아가 도시적 삶의 건강성과 그 도시의 역량을 보여주는 지표로대중들에게 폭넓게 인지되고 있는 공연시설들을 다루고 있다. 미네아폴리스의Guthrie 극장에서장누벨은어른거리는이미지와감한색상과형태로현대극장건축에서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관객의 심리적인집중과개입을매우충실히구현하고 있다. 한편 크리스티앙 포잠팍은 공연장과는거리가있어보이는외양의룩셈부르크



Christian Portzamparc



Jean Nouvel

필하모니에서 좌석이 오케스트라 사방으로 휘감아접근도를높여외부형상에서보이는 낮설음을 극복하고 있다. 폴섹 파트너쉽과 HDR의 협동 작업으로 이루어진 네브라스카 오마하의 Holland Performing Arts는 중소도시가 보여주는 도시적, 음악적 욕망의과잉을우아한오케스트라와함께활력있게 조절하고 있다. 특히 도시성의 발현과 건물의 개성을 향한 건축사의 기본적인 성향 사이에서 적절히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데에서다시금살펴볼만한것들이다.

■ 조명프로젝트

LED가네온싸인의대체물에서그치지않고 실내 조명의 대안으로써의 가능성을 그 어느때보다도강력하게시사하는요즈음에아예조명으로공간을만들어내고변화시키는 작업하나가 보스톤에서 이루어 졌다. 부부로 구성된 스튜디오 러즈(LUZ)는 Diva Lounge에서마치 HdM의알리안츠아레나를 내부로 전위시킨 듯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브라운관을 연상시키는 LED 조명은 음악의 흐름에 따라 흰색과 난연계색상을 부드럽게 오가며 공간 자체가 되고 있다. 매끈하면서 차가운 조명의 표면은 목



Studio Luz

재 테이블에서느껴지는 따뜻함과 대조되어 매우 관능적인 느낌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이를 통해 방문객은 자신의 몸에 허락된 모든 감각들이 만들어 내는 농밀한 각테일을 즐기게되는것이다.

ARCHITECTURAL REVIEW

8월호



여러모로2006년8월호의 Architectural Review지와 Architectural Record지는 서로가서로를벤치마킹하고있는듯한느낌을 준다. Architectural Review 지 또한 ‘ 변화의 징후 ’ 정도로 의역될 만한 ‘ Climate of Change ’ 라는 주제로 기후에 대응하는 모더니즘 건축들을살펴보고 있다. 하지만Record 지가지속가능성에 초점을맞추고 환경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위한광범위한채집에관심을기울이고있다면Review 지는멕시코와스페인, 나이지리아및 일본 등 기록치 않은 기후를 가진지역에서모더니즘건축이어떤방식으로 '더위' 에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지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소박하고 시적인 특징들이 review 지의 개성을 잘 드러내는것같아흥미롭다.

■ Mexican Treehouse

Torre Cube/오피스 블록/
Guadalajara, 멕시코/ 건축사:
Carme Pinos

이건축물에서확인되는코르뷔제적비전과 지역주의의 결합은 ‘ 그 밥에 그 나물 ’ 토



느껴지는 유리커튼월로 둘러싸인 사무실 건물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한순간에 날려 버린다. 모서리가 깎인 세 방향의 삼각형의 메스들은 서로 약간의 단차를 두고 마찬가지로 삼각형의 대진으로 마주보고 있는 코어 사이에 플러그가 꽂히듯 중앙과 메스 사이에 빈 공간들을 만들어 내며 결합되어 있다. 개발을 통해 새로운 컨텍스트가 활발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멕시코의 기후와 기후가 만들어 내는 문화와 특징들은 이 건축이 의지할 만한 얼마 없는 증빙 자료들인 것이다. 큼직큼직한 보이드와 메스는 외부의 빛과 공기가 최대한 내부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매우 '모던한' 방식으로 기후와 관련된 문제들에 접근하고 있다.

■ Layer Cake

**아메리카 컵 파빌리온/요트 정박시설/
발렌시아, 스페인/ 건축사: David
Chipperfield**

칼라트라바의 사토라스 역사의 화려한 구조미와 도시 이미지가 자주 혼동되는 도시 발렌시아에서 데이빗 치퍼필드는 부유층의 폐쇄적인 건물이기 마련인 요트대회(아메리카 컵)를 위한 파빌리온을, 모더니스트의 원형을 세련되게 환기하면서 동시에 저층에 자유로운 일반인의 접근을 유도하여 사회적 포용성을 드러내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어 냈다. 이것 역시 발렌시아의 이미지와는 대조적이긴 하지만 시설이 도시와 도시민에게



여하는 바에 얘기한다면 충실히 그 지역의 기후와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 측면에서 이 건축물은 유사한 감성과 구조를 보여주는 선행 작품들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유사성은 치퍼필드가 박약한 창조력을 가졌다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모더니스트적 지향점이 이미 골수에 닿아 있고 이를 완전히 소화해서 자신의 근원으로 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 Tropical Misson

**영국 문화협회 교육 및 정보센터
/정보 센터/ 라고스, 나이지리아/
건축사: Allies and Morrison**

영국 문화협회(the British Council)가 나이지리아 본부를 라고스로 옮기면서 건축사 Allies and Morrison에게 직원 숙소의 개선과 새로운 교육 및 정보 센터의 설계를 의뢰했다. 설계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덥고 습기 많은 적도의 기후와 보안에 관련된 문제 등에서 열악하다 할 수 있는 주변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개방성과 접근성을 확보하는가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Allies and



Morrison은 소박하지만 충실하고, 획기적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놀라운 건축물을 만들어 냈다. 특히 입면 처리에서 널빤지 형태의 웨이드를 촘촘히 붙인 가장 외부의 벽이 내부 공간을 규정하는 유리 커튼월과 충분히 이격되어 매우 방어적인 외벽과 개방적인 커튼월 사이의 양가적 감성을 무리없이 연계하며 미묘한 전이공간들을 형성하고 있다. 지역의 조건과 기후적 상황에서 '반듯함'의 미학을 보여주는 열대 건축의 사례로 기억할 만한 것이다.

■ Interior Design ;

Stairway to Heaven

**Longchamp 부띠크/ 뉴욕/ 건축사:
Thomas Heatherwick**



1930년대 뉴욕 소호 지역에 지어진 2층의 벽돌 건물 내부를 개조한 이 가방 천국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바로 넘실거리는 계단과 굽이치는 디스플레이에서 넘실거리는 '폴드(fold)'의 기운과 원래 건물이 만들어 내는 충동과 괴리감이다. 특히 계단부의 이미지는 한참을 들여다보아도 묘하게 비현실적이다. 줄기차게 이어진 이런 유동적인 형태 디자인에 대한 답문들에 치질만도 하건만, 이 작품은 맥아더식으로 말하자면 '진부한 스타일은 없다. 다만 진부한 디자인이 있을 뿐이다!' 라고 강변하고 있는 듯하다.

(글/김훈/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
인천전문대출강) ■

사무공간의쾌적성, 효율성창출PIT OA FLOOR 리모델링및신축시천정과·하중문제해결



삼정엘비엘PIT FLOOR는사무공간의OA화가진행되어, 컴퓨터기기의신설이나증설등이이루어져각각의배선처리가요구되는현장에배선을PIT에집어넣은기능적인OA Floor System입니다.

<PIT OA FLOOR 특징>

- OA FLOOR 높이(H=50)낮아천정고확보유리
- 배선의위치확인가능, 유지보수유리
- 기존 OA FLOOR 무게의 1/3에 해당하는 15kg/m²로 Dead Load작다.
- 시공성, 배선용량대폭향상

<시공실적>

- 가스공사, 롯데명품관, 숙대·남서울대, 무영건축사옥, 양천구청 등.

삼정엘비엘(주)

Tel. 02-325-3422

노출콘크리트의미적완성과자연스러운길감표현! 특허받은NRS공법과전용발수제로특화된표면마감완성



(주)나눔테크는노출콘크리트표면의소재감, 아름다움을재생·유지시켜주는NRS공법으로노출콘크리트관련국내최초의특허(제042495호:메이크업층을 이용한 노출콘크리트 보수공법)를 획득한회사로, 끊임없는기술혁신을거쳐전국여러현장에특화된기술과전용발수제를적용함으로써국내노출콘크리트시장의트렌드를선도하고있습니다.

<발수제소개>

- NB3000 : 기존유성발수제보다우수한제품으로, 친환경적인 원료를사용한무독·무취의수성발수제입니다.
- NB5000 : 불소수지를대체할수있는이상적인원료로, 콘크리트구조물에대한건고한피막을형성하므로내구성과내오염성이뛰어난제품입니다.
- SS20WB : Siloxane/Silane 20%WB는콘크리트와의화학적반응을통해콘크리트내부에보호층을형성하여이물질의침투를막아줌으로써구조체의손상, 철근부식등을방지해줍니다.

(주)나눔테크

TEL. 02-2668-2340 | www.nanumtech.co.kr

웰빙민속한지벽지

전통한지단점보완해치지않고시공편리



민속한지벽지는우리고유전통한지의단점을보완개선하여치지않는다. 또한시공이편리하게 특수합지 가공처리된 길이 18m Roll로 제조되었고 다습한 기후에 자동습도조절력이강하여실내공간이쾌적할뿐아니라 건강에좋고최초의한지를다용도로개발한국제환경규제에대비한재활용제품입니다.

제품에는 고구려 기상을대변한 고구려수렵도벽지와농자전지대본야, 실물낙엽벽지(실물낙엽인 대나무잎, 단풍나무잎, 은행나무잎등자연잎을벽지안에실물삼입시공), 실물황토다과벽지(원적외선단나무표피와방사율이좋은 황토를섞어합지한벽지), 실물황토운용벽지(황토벽지일반한지에 황토를섞어합지하여원적외선방사율이높다.) 등이있다.

- 규격 : 90cm(넓이) × 18m(길이) 1 Roll 5평단위

민속한지

Tel. 02-587-9596

자연과사람이만나는곳3세대창호문화, AHC복합시스템창 국내발명특허, 국제특허·GRC마크획득



• AHC복합창이란?

방음, 방풍, 단열이우수하고다양한제품(미서기창, 각종시스템창, 커튼월)으로 품격있는인테리어연출을추구하는현대소비자의욕구를충족할수있는시대감각에맞는창호로서고강도알루미늄과 결합된 폴리스틸렌(PS)단열제가

열전도를차단하여단열성이탁월하고, 내측면에결합된폴리스틸렌(PS)단열제가알루미늄의열전도를차단하여물방울맺힘(결로)현상을방지한다.

창틀과창짝사이에방풍창단캉장작으로인한밀폐기능으로단열, 방음 이 우수하고, 알루미늄프로파일과폴리스틸렌(PS)단열제가 견고하게결합되어내구성있어내마모에대한수축팽창이없다.

• 주요생산물품

미서기창, 이중미서기창, 고정및미서기창, 발코니전용창, 풀다운, 프로젝트창, 오르내리기창시스템창제품군(L/S, T/T, T/L/S), 학교창, AHC커튼월, AHC도어, AHC방화문, AHC루버창

(주)점보AHC복합창

Tel. 02-558-6271~3 | www.jumboahc.com

※자재정보원고모집
건축사회원과우수한건축자재정보를공유하고자합니다.
자재사용결과우수하다고판단되는자재를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 보내실곳_gods@kira.or.kr
• 원고내용
—사진1컷(300dpi 이상)
—제품정보(원고지3매이내)
—기업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기재

일빙석제품“ 물다듬 ”

디자인시대 - 이제는석재도달라져야한다!



2004년부산경향하우징페어를비롯, MBC 건축박람회등을통해소개되고있는물다듬공법은고압수리이용, 석재표면에다양한무늬를디자인할수있는최첨단고급기술이다. 물다듬공법을이용한제품은석재디자인의폭을넓혔으며, 미끄럼 방지 효과가 탁월하다.(외부바닥용으로, 보도용으로 현재 천연석재가공비용중가장우수함) 또한발지압효과있어엘빙 시대에맞는기능성제품이기도하며, 화강석을비롯대리석표면에까지가공이가능하여인테리어용으로도각광을받고있다.

■제품의특성

- 물다듬무늬종류
 - 빗살무늬, 입체무늬, 미소무늬, 벽화무늬, 산수화무늬등
- 기능
 - 미끄럼방지, 발지압효과
 - 조경시설의홀름한연출
 - 음양각효과로자연미연출
 - 벽체, 실내외인테리어에세로문질감표현
- 제품의용도
 - 내, 외장용. 인도포장, 광장바닥
 - 승강장연단석, 수영장, 목욕탕
 - 미끄럼방지용석재(물다듬빛살계단판석)

(주)초석석재산업

Tel_ 063-858-6527~8 |www.cho-suk.co.kr

도시의초록벽을꿈꾼다

친환경벽면녹화시스템 - 그린메쉬웨이브



‘그린메쉬웨이브’는 건축구조물의 높은 수직벽면을 녹화시키는 친환경적인벽면녹화시스템으로서작막한콘크리트벽, 회백색의벽면을녹음으로차폐함으로써도시경관을향상시킬뿐아니라 건축물표면의복사열을감소시켜도시기후의조절에도움을주며, 산성비와와자외선으로부터건축물표면을보호, 도로의탈색과 표면균열을방지하며흡착력이큰덩굴식물은건축물을보장하는효과가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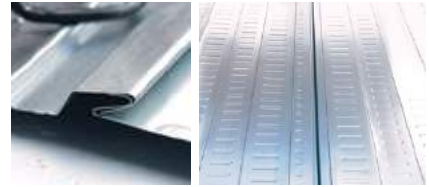
이밖에도아파트단지내에설치된체육시설등에서발생하는각종소음의흡입현상을방지하는효과, 각종오염물질의정화, 프라이버시의 확보와 우수 및 자연에너지를이용하는환경친화적 시스템으로단메쉬형, 이중메쉬형등다양한형태로입체감있는시공이가능하다.

(주)한설그린

Tel_ 02-3411-0898 |www.hgreen.com

빠른효율과안전이임증된일체형데크 스피드데크 ’

어떤건물구조에서도완벽을추구한다- (주)덕신하우징



일체형데크플레이트(Deckplate)기본적으로건축물의하중을감소시키고, 시공이 간단해 전체 공사 기간과 비용을 절감(약 20~30%)할수있다는장점이있어적용사례가늘고있다.

일체형 데크플레이트를 대표하는 (주)덕신하우징의 스피드데크 (SPEED DECK)는설계도면에따라공장에서생산된데크로시공하기때문에약30~60% 정도현장작업량을줄이고콘크리트 타설시기를앞당길수있으며, 하부용접점을없애부식문제를완벽하게보완했다. 또한, 트러스와상부의강판이닿는용접면적을넓혀강도를높였다. 때문에미려한외관과높은안전성을보장한다.

• 구성재료 : 철선(원형, 이형철선), 아연도금강판

• 적용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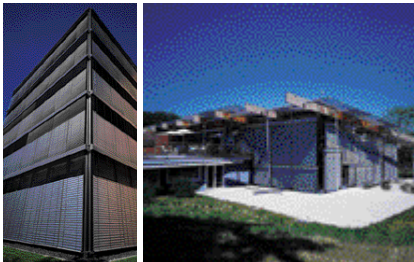
- 해외수출공사(양골라컨벤션센터), 경기장, 운동장(울산종합운동장외), 공장(파주LG 필립스 LCD 모듈동외), 관공서(원주시청사 외), 물류센터(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 외), 연구소(LG생활건강기술연구원외)
- 그외아파트주차장, 아파트형공장, 오피스텔, 주상복합빌딩, 학교, 교회등

(주)덕신하우징

Tel_ 02-2600-2600 |www.duckshin.com

에너지절감에더욱효율적인외부베네시안블라인드

13칼라의슬랫과가이드레일로건물미관차별화



아이블라인드가차량하는외부차량의대명사E.V.베네시안을건물밖에설치하는신개념의차량방법이다. 외부차량은일반적으로내부차량에비해열차단효과가탁월하며차별화된건물외관의가능성을보여줄수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외부베네시안블라인드는빛조절, 사생활보호와외부조망기능이탁월하며, 차양고유의기능인탁월한열차단효과로냉방비절감에기여하고, 외부의악천후에견딜수있도록견고한재질의제품으로부식방지처리되어있다. 일반베네시안보다폭이넓은슬랫사용으로실내적정조도조절이용이하며용도에따른다양한디자인의슬랫과가이드레일로독특한건물미관을차별화할수있으며, 전동으로작동하여실내에서손쉽게제어할수있다.

- 슬랫 : 사이즈60mm, 80mm, 100mm
- 재질 : 코팅된알루미늄합금/ 알루미늄미늄
- 두께 : 0.45mm

i-Blind PR

Tel_ 02-594-4311 |www.i-blind.co.kr

벽지, 패널, 파티션, 쇼파원단전문 아트플렉스 ’

APEC 정상회담장및국회의사당적용



산업이발달하고소비자의기호가다양해질수록원단의사용범위는또한다양해지고있다. 아트플렉스는아파트, 사무공간, 공용공간등에요구되는다양한문양과색상의원단을생산, 판매하고있다. 모든제품은소방검정공사기준에부합하도록선방염처리되어있으며필요시유연, 원적외선, 항균, 발수처리등이가능하다. 더불어전제품충분한재고물량을확보하여지체없는수급이가능하며필요시주문생산또한이루어지고있다. 새로운요구와흐름에부합할수있도록꾸준히신제품을출시하고있다.

• 인증서류 : KFI 방염성적서, 공인기관품질, 성능인증시험성적서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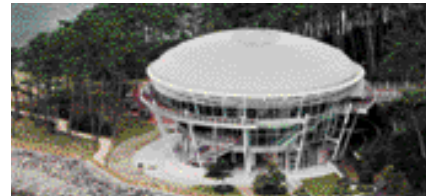
• 적용사례 : APEC정상회담장(부산BEXCO), 김대중센터(광주전지컨벤션센터), 청와대온실, 국회의사당, 국방부신청사, 각지자체신청사, 국내건설사시공아파트아드월, 금융권각지점, 국,내외기업체회의실및사무공간, 교회예배당, 종합병원, 학교강의실, 대사관, 골프클럽하우스, 스튜디오등

아트플렉스

Tel_ 02-540-5491

부산13와APEC 정상회의회의장지붕마감재로선정!

RHEINZINK 티타늄아연판최고급제품 - ㈜미앤지산업



각국정상들이모인자리인만큼 ‘APEC’이라무는모임의품격과가치를담아내며해변에건립됨에따른재료의내구성과오염등에 특별한 보장이 필요했다. 이런 특수성으로 인해 라인징크(RHEINZINK)고급스테인화질강, 고도의내구성같은장점들이부각되며지붕마감재로선정, 적용되었다.

<제품특징>

1. 영구적수명을가진다.
 - 아연판특유의산화막인PATINOX내부식성,내마모성이탁월
 - WALL의경우15여년이상수명을가질수있다.
2. 천연의질감을가진다.
 - 청회색의특유한질감은음영에따라다르게표현
 - 휘도가낮으며자연광또는인공광에따라깊이있는청회색질감표현
3. 환경친화적인소재이다.
 - 100% 환경에무해한재료
 - 재활용이가능하다.
4. 생애주기비용이적게든다.
 - 내구성과표면마감산화증의독특한성능
 - 부착된오염물에대한자정기능이있어설치후부적인증격과변형이없는이상사후관리비용이들지않아경제적이다.

(주)미앤지산업

Tel_ 02-3401-1100 |www.mijie.com